

한국한문교육학회

2019년 하계 학술대회

미래 교육과정과 한문교육의 지향

일시: 2019년 7월 6일(토) 09:00 ~ 18:40

장소: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서관 202호

주최: 한국한문교육학회

주관: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후원: (재)국제교류진흥회

한국한문교육학회

2019년 하계 학술대회

미래 교육과정과 한문교육의 지향

일시: 2019년 7월 6일(토) 09:00 ~ 18:40

장소: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서관 202호

주최: 한국한문교육학회

주관: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후원: (재)국제교류진흥회

韓國漢文教育學會 2019年度 夏季 學術大會

가. 주제 : 미래 교육과정과 한문교육의 지향

나. 일시 : 2019년 7월 6일(토), 09:00~18:40

다. 장소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서관 202호

라. 발표 및 토론 세부 내용

일정		발 표 및 내 용	
1 부	09:00 -09:30	▪ 학술대회 참가 접수	사회: 정효영(등촌중)
	09:30	▪ 개회식	
	09:40 -10:00	<p style="text-align: center;"><기조 강연></p> <p>▪ 발표주제 : 漢文科 教育의 內容, 形勢, 그리고 指向</p> <p>▪ 발표자 : 김왕규(교원대)</p>	
	10:00 -10:30	<p>▪ 발표주제 : 인문고전으로서의 한문교육 역할-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포용적 가치를 중심으로</p> <p>▪ 발표자 : 김미선(청주대)</p> <p>▪ 토론자 : 신두환(안동대)</p>	
	10:30 -11:00	<p>▪ 발표주제 : 미래 교육과정과 한자 교육의 지향</p> <p>▪ 발표자 : 양원석(고려대)</p> <p>▪ 토론자 : 한은수(서울구암초)</p>	
	11:00 -11:20	휴식	
	11:20 -11:50	<p>▪ 발표주제 : 2015 한문과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적 검토</p> <p>▪ 발표자 : 김우정(단국대)</p> <p>▪ 토론자 : 윤지훈(한국교육과정평가원)</p>	
	11:50 -12:20	<p>▪ 발표주제 : 한문교과서 체제 연구 - 2015개정교육과정 한문I 교과서를 중심으로</p> <p>▪ 발표자 : 남궁원(강원과학고)</p> <p>▪ 토론자 : 김병철(군포고)</p>	
	12:20 -14:00	점심식사	

일정		발 표 및 내 용	
2 부	14:00 -1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주제 : 제재에 따른 중학교와 고등학교 한문의 위계성 연구 ▪ 발표자 : 김영주(성균관대) ▪ 토론자 : 이성형(공주대) 	사회: 박상우(교원대)
	14:30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주제 : 한문과 교과 독서 수업 사례 ▪ 발표자 : 김은경(능곡고) ▪ 토론자 : 정효영(등촌중) 	
	15:00 -1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주제 : 유교경전 교육의 미래 전략-『만화 논어』의 경우 ▪ 발표자 : 함영대(성균관대) · 장현곤(광명 광남중) ▪ 토론자 : 임종수(감신대) 	
	15:30 -15:50	휴식	
	15:50 -1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주제 : 대학교 한문학 교육에서의 한시 강의 현황 및 개선 방안 ▪ 발표자 : 이현일(성균관대) ▪ 토론자 : 김연수(고려대) 	
	16:20 -16: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주제 : 한문 임용시험의 실태 분석과 비판적 고찰 ▪ 발표자 : 김성중(계명대) ▪ 토론자 : 양원석(고려대) 	
	16:50 -1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주제 : 名詞와 代名詞의 특수한 쓰임 一見 ▪ 발표자 : 송병렬(영남대) ▪ 토론자 : 윤재민(고려대) 	
	17:20 -17:30	휴식 및 장내 정리	
	17:30 -18:30	종합토론(좌장 : 이동재(공주대))	
	18:30 -18:40	연구윤리 교육	
	18:40	폐회식	

목 차

1부

<기조강연>

漢文科 教育의 內容, 形勢, 그리고 指向 / 김왕규(교원대)	1
인문고전으로서의 한문교육 역할-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포용적 가치를 중심으로 / 김미선(청주대)	17
토론문: 신두환(안동대)	19
미래 교육과정과 한자 교육의 지향 / 양원석(고려대)	21
토론문: 한은수(서울구암초)	37
2015 한문과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적 검토 / 김우정(단국대)	39
토론문: 윤지훈(한국교육과정평가원)	41
한문교과서 체제 연구 - 2015개정교육과정 한문 교과서를 중심으로 / 남궁원(강원과학고)	43
토론문: 김병철(군포고)	63

2부

제재에 따른 중학교와 고등학교 한문의 위계성 연구 / 김영주(성균관대)	65
토론문: 이성형(공주대)	67
한문과 교과 독서 수업 사례 / 김은경(능곡고)	69
토론문: 정효영(등촌중)	93
유교경전 교육의 미래 전략-『만화 논어』의 경우 / 함영대(성균관대)·장현곤(광명 광남중)	95
토론문: 임종수(감신대)	115
대학교 한문학 교육에서의 한시 강의 현황 및 개선 방안 / 이현일(성균관대)	117
토론문: 김연수(고려대)	129
한문 임용시험의 실태 분석과 비판적 고찰 / 김성중(계명대)	131
토론문: 양원석(고려대)	145
名詞와 代名詞의 특수한 쓰임 一見 / 송병렬(영남대)	147
토론문: 윤재민(고려대)	155
식사 장소 안내	156

<기초 강연>

漢文科 教育의 內容, 形勢, 그리고 指向

金王奎[韓國敎員大學校]

【目次】

- I. 緒言
 - II. 한문과 교육의 학습[교육] 내용
 - III. 한문과 교육의 형세와 지향
 - 1. 한문과 교육의 형세
 - 2. 한문과 교육의 지향
 - IV. 餘言 : 남은 課題
-

I. 緒言

다가올 미래 사회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교육과정 總論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각론 교육과정의 하나인 한문과 교육과정은 어떤 내용을 保持해야 하는가? 바로 ‘미래 교육과정과 한문교육의 지향’이다. 총론과 有機的 關係를 형성하면서 한문과의 正體性을 확보하는 작업은 다방면에서 수행 가능할 터이다. 한문교육의 미래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지향은 특정 부분에서 방향을 달리할 수도 있고, 특정 국면에서는 합일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문제는 한문과의 正體性을 유지하면서, 미래 사회의 요구에 寄與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그 地點을 찾는 작업이 중요한데, 오늘 선배, 동학들의 연구¹⁾가 필요한 이유이다. 탐구 및 연구 결과에 대한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한문과가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지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1) 2019년 7월 6일(고려대), 한국한문교육학회 2019년도 하계 학술대회의 기획 주제는 ‘미래 교육과정과 한문교육의 지향’인데, 세부 발표 주제(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인문 고전으로서의 한문과(김미선), 미래 교육과정과 한자 교육의 지향(양원식), 2015 한문과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적 검토(김우정), 한문교과서 체제 연구-2015 개정 교육과정 한문1 교과서를 중심으로(남궁원), 제제에 따른 중학교와 고등학교 한문의 위계성 연구(김영주), 한문과 교과 독서 수업 사례(김은경), 유교 경전 교육의 미래 전략-만화 논어의 경우(함영대·장현곤), 대학교 한문학 교육에서의 한시 강의 현황 및 개선 방안(이현일), 한문 임용 시험의 실태 분석과 비판적 고찰(김성중), 학교 한문 교육을 위한 한문 문법의 새로운 접근(송병렬)

이 글은 한문과 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지금 한문과 교육의 형편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에 焦點을 두었다. 바로, 한문과 교육의 학습[교육] 내용, 형제 그리고 지향이다. 현재 처한 形便을 眺望하고 나아갈 地點을 確保하는 작업은 容易하지 않은데, 작업의 端緒를 한문과 교육의 학습 내용 곧, 각 시기별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강조했고,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한 자료²⁾ 검토에서 찾는다. 예상되는 일이지만, 교과와 內容과 교과의 形勢[位相]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順航할 수 도 있지만, 때론 여타의 要因으로 인해 斷絶되기도 하는데, 끊어진 길에서 ‘지향점’을 모색하는 일은 至難하다. 참고로, ‘한문, 한문과, 한문 교과’, 그리고 ‘한문과 교육과 한문교육’ 등의 명칭 및 개념과 관련된 정의는 선행 연구³⁾로 미룬다.

II. 한문과 교육의 학습[교육] 내용

‘한문과 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쳤는가?’라는 물음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무엇’은 이전 시기 한문과 교육과정에 기술된 내용 곧, 가르칠 내용 혹 학습할 내용을 말한다. 교육과정 시기별로 이 글에서 함의하는 ‘내용’이란 용어는 달리 쓰였는데, 예컨대, 학습 내용 및 교재 내용(1차), 지도 내용(2차), 내용(3차, 4차, 5차, 6차, 7차, 2007개정), 학년별 내용(6차), 영역별 내용(7차, 2007개정), 학습내용 성취 기준(2009개정), 성취기준(2015개정)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

주지하듯이, 한문과 교육의 학습 내용은 제1차 교육과정 시기에서부터 명문화되었는데, 문교부령 제45호(1955.8.1 제정 공포)에 따른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 ‘중학교의 漢字 및 漢字語 학습’이 실려 있다.⁴⁾ 중학교의 한자 및 한자어 학습은 크게 세 부분 곧, 1. 漢字 및 漢文 학습의 의의, 2. 漢字 및 漢文의 지도 요령, 그리고 3. 중학교 漢字 및 漢文 학습 내용으로 구분되었다. 3. 중학교 漢字 및 漢文 학습 내용은 “국민 학교에서 습득한 漢字 지식을⁵⁾ 기초로 하여, 일상 생활에 활용되는 상용 한자(常用漢字) 범위 내의 漢字, 漢字語 및 간이한 漢文을 습득하게 한다.”라는 前文을 제시하고, 학년별로 교재 내용과 지도 요령을 기술하였다.⁶⁾ ‘실생활’에 중점⁷⁾을 두었으며, 한문과의 영역과 텍스트의 범위

2) 이 글에서는, 1차 교육과정에서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과 교육과정 가운데, 중학교 한문과 교육과정 [1차, 2차의 경우 국어과 교육과정의 한 부분]의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한편, 제7차 교육과정 시기까지의 중학교 한문과 교육과정 全文은 교육부(2000), 『초·중·고등학교 국어과·한문과 교육 과정 기준』(선명 인쇄주식회사)을 참조했다. 이하 한문과 교육과정의 인용 및 참고는 이 책에 의거한다.

3) 김왕규(2018). 참조.

4) 교육부(2000), 191~193면. 참조.

5) ‘중학교의 漢字 및 漢字語 학습’에 ‘국민 학교에서 습득한 한자 지식’의 수준과 범위에 대한 명시적 기술이 없어서 알 수 없다. 단, 다음 자료 내용이 참고된다. “전시 학습 지도 요령(문교부, 전시 중요 문교 시책, 1951.2)에 제시한 ‘한자 지도 요강’ : 한글 전용법까지 제정하여 한글 전용을 추진하려던 당국으로서도 당시의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부응한 한자 지도를 교육 정책상 양성화하였다. 문교부가 수 년간 조사하여 놓은 기초 자료를 검토 정리하여 일상 생활에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한자 1,000자를 골라서, 국민 학교 4학년 300자, 5학년 300자, 6학년 400자로 배당**하여 교수하도록 하였는데 이 1,000자의 제한 한자는 국민 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에도 적용하도록 하였다.” 문교부(1988), 91면. 참조.

6) 예컨대, 제1학년의 경우, 교재 내용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漢字를 주로 하여 간명(簡明) 적절(適切)한 漢字語를 배열하고, 반복 연습할 자료를 풍부하게 한다.”이고, 지도 요령은 “漢字의 구조(構造), 서획(書劃)의 순차(順次), 음의(音義), 서체(書體) 등을 지도하고, 한자 사전류의 활용 방법을 숙달(熟達)하게

를 ‘한자, 한자어, (간이한)한문[단문, 한시등]’으로 설정했다.⁸⁾ 1963년 2월 15일 개정 공포된 2차 교육과정의 한문과의 지도 내용은 1차의 학습 내용을 適用하되 부분적으로 補完했다.⁹⁾

3차 한문과 교육과정과 학습 내용은 몇 가지 점에서 우리의 注目을 요하는데, [표 1]을 보면서 논의를 계속한다.

[표 1] 3차 중학교 한문과 교육과정 ‘내용’¹⁰⁾

나. 내용
[지도 사항 및 형식]
<제3학년>
(1) 지도 사항
(가) 한자의 수 늘리기(신출 약 250자)
(나) 어휘 늘리기
(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및 수식어를 중심으로 한 간단한 문형 알기
(라) 쉬운 허사 용법 알기
(마) 글의 형식 알기
(바) 글의 줄거리와 주제 알기
(사) 우리말로 번역하기
(아) 좋은 글귀를 암송하고 그 감명을 되살리기
(2) 주요 형식
(가) 단어 (나) 속어 (다) 고사 (라) 속담 (마) 격언 (바) 간이한 한문 (사) 시
[제제 선정의 기준]
한문 학습을 위한 제제는 다음에 따라서 선정한다.
(1) 제제에 사용된 한자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중 중학교용 기초 한자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인명, 지명 등의 고유 명사와 학습 효과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자는 이를 약한 추가 지도할 수 있다.
(2) <u>우리 문화와 동양 문화</u> 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3) <u>건전한 사상, 아름다운 정서, 지혜로운 행동</u> 이 담긴 것.
(4) <u>한국인으로서의 긍지</u> 를 드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1973년 8월 31일 공포된 문교부령 제325호 3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한문과는 獨立 教科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 이전, 1972년 2월 28일 공포된 ‘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국어

한다.”로 기술되었다. 교육부(2000), 192면. 참조.

7) 1차 교육과정기 ‘중학교 한자 및 한자어 학습’의 중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실생활’이었다. 이 점은 ‘중학교 한자 및 한자어 학습’에 반복적으로 기술되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5. 다만 우리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범위 내의 漢字와 漢文을”, “일상 생활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한자어, 격언, 고사 등을”, “일상 생활에 활용되는 상용 한자 범위 내의”, “우리의 일상 생활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일상 생활에 많이 쓰이는” 등이 그것이다. 교육부(2000), 191~193면. 참조.

8) 한자, 한자어, 한문이라는 영역을 명시적으로 구분한 것은 아니다. 前文에 기술된 ‘상용 한자 범위 내의 한자, 한자어 및 간이한 한문’에 주목했다. 3학년 교재 내용에 기술된 “상용 한자(常用漢字) 범위 내의 漢字를 완전히 습득하게 하고, 아울러 간단한 단문(短文類)와 평이(平易)한 시가류(詩歌類)를 과(課)한다.”를 참고했다.

9) 문교부령 제120호(1963.2.15 개정 공포)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은 크게 5부분(I. 목표, II. 학년 목표, III. 지도 내용, IV. 지도상의 유의점, V. 한자 및 한문 지도)으로 구성되었는데, 한문과의 지도 내용은 ‘V. 한자 및 한문 지도’에 기술되었다. 한편, ‘V. 한자 및 한문 지도’는 크게 1. 의의와 목표, 2. 학년 목표, 3. 지도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 학년 목표’의 경우, “일상 생활에 활용되는 교육 한자 범위 안의 한자, 한자어 및 간이한 한문을 습득케 한다.”라는 전문 아래, 제1학년~제3학년까지 학년별 목표를 간단하게 기술했다. 교육부(2000), 214~216면. 참조.

10) 교육부(2000), 234~235면. 참조.

과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 존속하였던 한문과가 국어과로부터 독립 신설되었고, 이와 함께 동년 8월 16일에 문교부에서 확정, 공포한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필수적으로 지도하게 되었다.¹¹⁾ 이 점에서 제3차 한문과 교육과정은 特記할 만하다.

제3차 한문과 교육과정의 體制는 ‘가. 목표, 나. 내용, 다.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구성되었다. ‘나. 내용’은 크게 ‘지도 사항 및 형식’, ‘제재 선정의 기준’으로 나누었고, ‘지도 사항 및 형식’은 먼저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으로 학년을 구분한 다음, 학년별로 ‘지도 사항’과 ‘주요 형식’을 기술했다. 이 글의 초점인, 학습 내용 측면에서 ‘한자, 어휘, 한문’이라는 영역 구분¹²⁾, ‘한자, 단어, 숙어, 고사, 속담과 격언, 간이한 한문과 시’ 등의 텍스트의 형식과 범위, 그리고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의 학년별 배당(1학년 약 350자, 2학년 신출 약300자, 3학년 신출 약 250자) 등이 주목된다. 특히 ‘제재 선정의 기준’에서 ‘우리 문화’, ‘동양 문화’, ‘건전한 사상’, ‘아름다운 정서’, ‘지혜로운 행동’, ‘한국인으로서의 긍지’ 등 정의적 영역을 기술했는데, 제재 선정 기준에 제시된 위의 내용은 향후 한문과 교육과정의 정체성 확보와 관련하여 한문과의 핵심 내용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3차 한문과 교육과정에 기술된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의 범위, 영역 구분, 텍스트의 형식 및 범위, 정의적 영역 등의 학습 내용은 이후 전개되는 한문과 교육과정과 한문과 학습 내용의 母胎가 된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附庸으로부터 독립한¹³⁾ 한문과는 그 이후 4차, 5차, 6차, 7차, 2007개정, 2009개정, 그리고 2015개정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체제 및 내용 체계, 텍스트의 수준과 범위, 그리고 학습 내용의 增減 측면에서 적지 않은 변천 양상을 겪었고, 이에 대해 한문교육학계는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보고하였다.¹⁴⁾ 여기서는 2015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표 2] 2015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성취기준’¹⁵⁾

[9한01-01]¹⁶⁾ 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별한다.

[9한01-02] 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활용한다.

[9한01-03] 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쓴다.

11) 문교부(1988), 92~93면. 참조. 1972년 제정 공포된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와 그 이후 2000년에 제정, 공포된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와 관련하여,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漢文教育用 基礎 漢字 1,800字 調整白書』로 발간했다. 한편, 한국한문교육학회는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학계에 보고하였다. 김상홍·정우상·이동환·신용호·심경호(2000). 참조.

12) 한자, 어휘, 한문 영역 구분을 明示의으로 體系化하거나 構造化한 것은 아니다. 단 일반 목표에 기술된 “(가) 한문 해독에 필요한 **한자, 어휘, 간단한 한문**의 구조를 이해하게 한다.”와 <제1학년> 학년 목표에 기술된 “(가) **한자, 어휘 및 한문**의 구조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게 한다.”를 참고하면, 한자, 어휘, 한문이라는 영역을 暗黙의으로 堅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임형택(2004), 236면. 참조.

14) 이와 관련하여 학계에 보고된 성과를 몇 편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우상(1988; 1991); 박영호(1996); 정재철(1999; 2010); 송병렬(2003; 2005; 2006); 윤재민(2007); 원용석(2007); 안재철(2010); 윤재민(2011); 윤재민·송혁기(2012a; 2012b); 송혁기(2012); 김왕규(2004; 2005; 2007; 2013a; 2013b). 참조. 한편, 이 글의 자료 검토 대상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한자 교육 혹은 초등학교 한자[한문] 교육과정과 관련된 논의는 한은수(2008; 2010). 참조.

15) 장호성 외(2015), 43면. 참조. “2015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한문)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지식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 할 수 있어야 할 수행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며, 수업 후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할, 또는 할 수 있기를 기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결과 중심의 도달점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
- [9한01-04]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구별한다.
 [9한01-05]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
 [9한01-06] 문장에 사용된 실사와 허사를 구별한다.
 [9한02-01] 문장의 구조를 구별한다.
 [9한02-02] 문장의 유형을 구별한다.
 [9한02-03]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9한02-04] 토가 달려 있는 글을 토의 역할에 유의하여 바르게 끊어 읽는다.
 [9한02-05]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9한02-06] 한문 산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9한02-07]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9한03-01]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9한03-02]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9한03-03]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9한04-01]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 사상 등을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내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9한05-01]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9한05-02]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

2015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은 한문의 ‘활용’을 浮刻했다. 이전 교육과정의 공통된 학습 내용이었던 한자, 한자어[단어, 속어, 성어, 한자 어휘 등], 그리고 한문[문장, 단문, 산문, 한시 등]과 관련된 지식, 이해, 감상은 한문의 이해[9한01-01~06, 9한02-01~07]¹⁷⁾로 수렴(收斂)하고, 한문이라는 언어를 학습한 뒤 학습자들이 이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強調했는데,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9한03-01, 02, 03]’, ‘한문과 인성[9한04-01]’, ‘한문과 문화[9한05-01, 02]’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하는 것’을 성취기준으로 기술했는데, 한자와 한자어 학습의 언어생활과 교과 학습으로의 轉移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학습자와 시대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학습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한문 기록 가운데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내면화”하는 성취기준은 인성 함양이라는 시대의 요구와 사회적 제반 문제 해소 방안으로¹⁸⁾ 선정되었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을 삼으려는 태도 형성”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이라는 시대의 當爲的 課業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한편,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은 한자를 공유하는 이른바 漢字文化圈이라는 지역 공동체의 相生과 和解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학습 내용으로 볼 수 있다.

2015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기술된 한문과의 내용을 이전 교육과정, 특히 3차 한문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共通點과 強調點을 찾을 수 있다. 우선, 한문과의 내용 영역 측면에서 한자, 한자어[단어, 어휘], 한문 3분법을 堅持하였다. 텍스트의 종류와 범위는 한자,

-
- 16) [9한01-01]에서 ‘9’는 중학교 학년군의 마지막 숫자를, ‘한’은 교과목명을, 그리고 ‘01’은 ‘한자와 어휘’ 영역을 나타낸다. 장호성 외(2015), 45~46면. 참조.
 17) 2015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은 영역을 크게 ‘한문의 이해’, ‘한문의 활용’으로 구분했다. ‘한문의 이해’는 ‘한자와 어휘’[9한01-01, 02, 03, 04, 05, 06], ‘한문의 독해’[9한02-01, 02, 03, 04, 05, 06, 07]라는 두 개의 핵심 개념을, ‘한문의 활용’은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한문과 인성’, ‘한문과 문화’라는 세 개의 핵심 개념을 하위 영역으로 설정했다.
 18) 장호성 외(2015), 89면. 참조. “한문 기록 속에는 우리의 정신문화가 대부분 축적되어 있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의 문제 등을 치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으므로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한문 학습이 필요하다.”

어휘[단어, 속어, 성어 등], 격언과 속담, 한문[문장, 산문, 한시]으로 선정했다. 특히 한자의 수준과 범위는 3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로 제한했다. 가치관, 인성, 도의, 지혜 등 정의적 영역의 강조 또한 한문과 교육의 공통 指標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6차 교육과정 이후로 선택 과목으로 저락된 교과 위상 提高의 方便으로 시대와 학습자의 要求에 副應하기 위한 학습 내용을 추가하거나 이전에 비해 강조하였는데, ‘일상 용어’와 ‘교과 학습 용어’의 ‘맥락에 맞는 활용’, ‘한문 기록의 현재적 가치의 내면화와 인성 강조’ 등이 바로 그것이다.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을 한문 기록에서 찾으려는 태도, 한자를 媒介로 한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 방안 또한 한문과의 정체성을 確保하는 한편, 低落된 교과의 위상을 浮上시키기 위한 方案으로 볼 수 있다.

Ⅲ. 한문과 교육의 形勢와 指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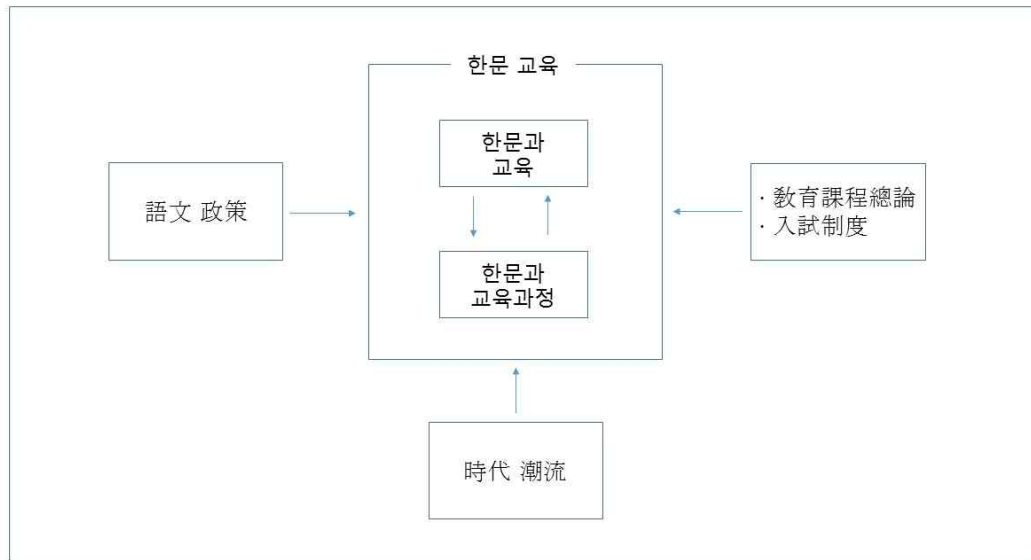
1. 한문과 교육의 形勢

2015 개정 국가 수준 교육과정 총론의 ‘編制와 時間 配當 基準’에 따르면, 중학교의 경우, ‘한문’은 選擇 教科의 하나로 편성, 운영되고 있는 科目의 하나이고, 고등학교의 경우, ‘한문’은 생활·교양 교과 영역의 교과(군)의 하나로, 그 하위에 선택 과목으로 일반 선택 ‘한문Ⅰ’, 진로 선택 ‘한문Ⅱ’로 편성되었다.¹⁹⁾ 국가 수준 교육과정 총론 편제에 따른 한문과의 位相은, 제6차 교육과정 이후로 현재 2015개정 교육과정 시기에 이르기까지 ‘選擇 科目으로의 固着化’²⁰⁾로 低落되었다. 한문과 교육의 안과 밖을 두루 살펴야 그 배경에 대한 視野를 확보할 수 있을 터이다.²¹⁾

19) 교육부(2015a); 김왕규(2018), 31면. 참조.

20) 김왕규(2007)에서 교육과정 개정, 변천에 따른 한문과의 위상 변화를 교수 요목기부터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시기까지 검토했고, ‘선택 과목의 고착화’로 한문과의 위상 변화를 결론지었다.

21) 김왕규(2013b)에서 한문 교육 정책 작용 요인과 영향 관계를 보고했다. 여기서는 한문과 교육과 한문과 교육과정과의 관계, 한문과 교육과 한문 교육의 범위와 포함 관계를 보완하는 한편, 한문교육의 작용 요인을 통합하여 논의했다.



[그림 1] 한문과 교육의 形勢圖

[그림 1]은 세 가지 층위의 문제를 나타내는 바, 한문과 교육과 한문과 교육과정의 관계, 한문과 교육과 한문 교육의 개념 및 범위, 그리고 한문과 교육과 한문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요인과 그 형세가 그것이다. 여기서는 한문교육의 地形 내지 形勢에 초점을 두었다. 주지하듯이 중등학교 학교 교육을 전제로 한 한문과 교육은 한문과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한문과 교육과정은 학교 교실에서 실행되는 한문과 교육의 실패, 성공 사례와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다. 한편, 공교육 차원, 사교육 차원 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한자, 한문 교육을 포함하는 한문교육은 공교육 차원의 한문과 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문과 교육을 포함하는 한국의 한문교육은 20세기 이후로, 교육과정 개정·변천 과정 속에서 그 위상이 저락되었다. 여기에는 크게 몇 가지 요인이 作動되는 바, 국가의 어문 정책, 교육과정 총론의 편제와 이에 근거한 입시제도, 그리고 시대 조류가 바로 그것이다. 국가의 어문 정책은 갑오개혁의 법령²²⁾,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²³⁾, 그리고 국어기본법²⁴⁾에서 알 수 있듯이 일관된 基調를 유지하였는데, 그 핵심은 ‘한글전용’ 이고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쓸 수 있는’ 것이다.²⁵⁾ 앞에서 검토한 바, 2015개정 교육과정시기까지 국가 수준의

22) “第十四條, 法律勅令, 總以國文爲本, 漢文附譯, 或混用國漢文.”(1894년 11월 21일, 勅令 제1호, 公文式, 『舊韓國官報』 제1권, 아세아문화사, 1973, 744면.)[제14조 법률 칙령은 모두 국문으로 본을 삼고 한문 번역을 붙이며, 혹 국한문을 혼용함.(고종31년, 1894.11.21)]. 임형택(2002), 401면.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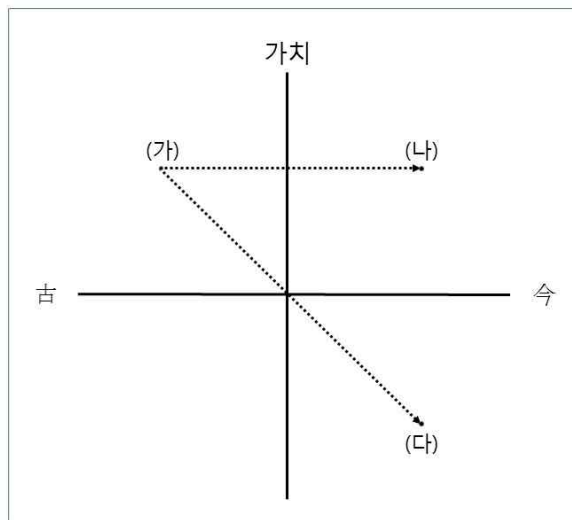
23) 大韓民國의 公用文書는 한글로 쓰되, 一定期間 漢字를 併用할 수 있도록 함.[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진재교(2006), 326면. 재인용.

24) 김왕규(2013b). 참조. 국어기본법(제정 2005.1.27. 법률 제7368호)의 “○ 제14조 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와 국어기본법 시행령(제정 2005.7.27. 대통령령 제18973호)의 “○ 제11조 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법 제14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낱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에 따르면 한문과의 위상은 국어과의 부용에서 독립 교과로, 필수 교과에서 선택 교과로 그 浮沈을 거듭하였다. 교육과정 총론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에 준하는 대학입시제도 운영 체제 속에서도 한문과는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편성되었고, 선택 영역의 선택 과목의 하나로 轉落되었다. 20세기 이후, 근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성장 제일주의, 상업주의, 경쟁주의, 패권주의 등의 渦流 속에서 한문과 교육 내용은 시대 조류와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지금, 한문과 교육의 형세는 ‘선택 과목의 고착화’에서 ‘枯死’ 직전이다. 사물이 극에 달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는 이치를 따르면, 한문과 교육의 ‘變通’을 언제,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2. 한문과 교육의 指向

현재의 저락된 위상을 제고하고 다가올 미래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문과 교육의 지향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과거에서 미래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대의 요구에 副應하거나 시대를 牽引하는 가치와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두 가지 물음 앞에 面壁한다. [그림 2]를 보고, 생각을 가다듬는다.



[그림 2] 한문과 교육의 지향

‘古’ 곧, ‘옛 날 그 곳’에서 한자, 한문은 유일한 表記 문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경제·사회적 가치와 정신·문화적 가치를 同伴했다. 그야말로 제왕적으로 君臨했다. 특정 어느 시기, 대략 20세기를 전후하여 한자·한문의 언어로서의 기능은 약화되었고, 가치 또한 急落했다. ‘지금 이 곳’에서 한자·한문은, 한문과 교육은 ‘枯死’ 상태인데, (가)에서 (다)로 轉落했다. 과거, 그 곳의 가치가 오늘, 여기서 一方 通行되지 않는 다는 것을 前提하고, 바람직하기는 (가)에서 (나)로의 지향을 한문교육학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 희망한다.

25) 임형택(2002); 진재교(2006); 김왕규(2013b). 참조.

희망의 端初는 價値의 提高 方面에서 찾아야 할 터인데, 가능한가?

한문과는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교수·학습해야 하는 과제와 함께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기록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교양적 이해와 창조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한문 독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라는 특수성을 안고 있다. 2015개정 교육과정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문(文)·사(史)·철(哲)을 아우르는 한문이야말로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데 적합한 교과인 것이다.²⁶⁾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이 시대의 요구이고 미래 사회가 기대하는 인간상인데, 창조력과 상상력을 推動시키는 인문학적 素養의 寶庫가 바로 古典 漢文이고 고전 한문을 교육하는 敎科가 바로 한문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자로 구성된 일상용어의 언어생활로의 활용과 교과 학습 용어의 교과 학습으로의 활용이 한자의 ‘실용성 가치’를 강조한 것이라면,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한문 고전을 내면화하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을 한문 고전에서 찾으려는 태도 형성 등은 한문의 ‘인문적 가치’를 부각시킨 것인데, 실용적 가치와 인문적 가치 어느 한 쪽에 매몰되지 않고 양자를 包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작업이 바로 한문과 교육과 한문교육학 연구자의 ‘指向’이다.

IV. 餘言 : 남은 課題

이 글은 먼저 한문과 교육과정에 기술된 학습 내용 분석을 통해 한문과 교육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확인했다. 저락된 한문과의 형세를 파악하는 일과 한문과 교육의 지향점을 찾는 작업은 다르지 않을 것인데, 시간의 흐름과 시대의 潮流 속에서 한문과의 正體性을 유지하면서 시대의 요구에 副應하는 과제는 녹록하지 않다. 과제 수행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할 터이다. 그 한 가지는 한문과 교육과정 내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한문과 교육과정 외적 측면이다.

한문과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 관점에서 실용적 가치와 인문적 가치를 擔保할 수 있는 학습 내용을 개발하고 성취기준으로 命題化하는 작업은 시대와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인데, 한문교육학 구성원들의 工夫에 힘입을 것이다. 기실, 이 방면의 努力과 傾注가 적지 않았지만, 늘 거대한 障壁에 가로막혀 좌절했다. 바로 국가의 어문 정책, 교육과정 총론 편제, 그리고 대학입시제도 운영 체제이다. 그래서 한국어[국어]와 한자 어휘[한자어], 한국어[국어] 교육과 한자·한자 어휘 교육의 관계를 研究하고, 교육과정 총론 편제에서 국어와 연계하는 방안을 摸索하며, 대학입시제도 수학능력시험 운영 체제에서 국어[언어] 영역과 통합하는 方案 樹立이 필요하다.

26) 장호성 외(2015), 75면. 참조.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 교육과학기술부(2011), 『한문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 17].
- 교육인적자원부(2001), 『漢文教育用 基礎 漢字 1,800字 調整白書』
- 교육인적자원부(2007), 『중학교 재량활동의 선택과목 교육과정 11. 한문』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별책 16].
- 교육부(2000), 『초·중·고등학교 국어과·한문과 교육 과정 기준』, 선명인쇄주식회사.
- 교육부(2015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1].
- 교육부(2015b),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17].
- 문교부(1988), 『중학교 한문과 교육과정 해설』, 서울시인쇄공업협동조합.
- 김상홍·정우상·이동환·신용호·심경호(2000),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에 관한 연구」, 『한문교육연구』 14, 한국한문교육학회.
- 金王奎(2004), 「한문교육과정 개정·변천의 양상과 한문과의 위상-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22, 한국한문교육학회.
- 金王奎(2005), 「언어교과의 내용 체계의 몇 가지 쟁점」, 『한문교육연구』 24, 한국한문교육학회.
- 金王奎(2007), 「2007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특징과 그 位相」, 『청람어문교육』 36, 청람어문교육학회.
- 金王奎(2013a), 「한문과 창의·인성 학습 내용 선정 및 조직」, 『한문교육연구』 40, 한국한문교육학회.
- 金王奎(2013b), 「漢文, 국가 語文 政策에 길을 묻다」, 『東洋漢文學研究』 37, 東洋漢文學會.
- 金王奎(2018), 「漢文教育學의 探求 領域과 그 實際」, 『漢文教育研究』 50, 韓國漢文教育學會.
- 박영호(1996), 「제6차 한문과 교육과정 중 내용체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한문교육연구』 1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 송병렬(2003), 「한문과 교육과정의 영역과 내용 체계의 문제」, 『동방한문학』 24, 동방한문학회.
- 송병렬(2005), 「새로운 한문과 교육과정을 위한 한문과 교육과정의 쟁점 고찰」, 『한문교육연구』 25, 한국한문교육학회.
- 송병렬(2006), 『(개정·증보)새로운 한문교육의 지평』, 문자향.
- 송혁기(2012),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중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에 대하여」, 『한문교육연구』 38, 한국한문교육학회.
- 안재철(2010),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의 문제점」, 『한자한문교육』 24,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원용석(2007), 「한문과 교육과정 변천과 내용 체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재민(2007), 「2007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구체적 내용 분석」, 『한문교육연구』 29, 한국한문교육학회.
- 윤재민(2011), 「한문과 교육에서의 텍스트의 수준과 범위」, 『한문교육연구』 36, 한국한문교육학회.
- 윤재민·송혁기(2012a), 『한문과 교육과정론』, 보고서.
- 윤재민·송혁기(2012b), 「한문교육학의 개념과 한문과 교육과정론」, 『한문과 교육과정론』, 보고서.
- 임형택(2002), 「근대계몽기 국한문체의 발전과 한문의 위상」,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 비평사.
- 임형택(2004), 「한국 20세기의 한문 교육과 당면 과제-표기법 문제와 관련하여」, 『한문교육연구』 23, 한국한문교육학회.
- 장호성·윤지훈·윤재민·김왕규·이군선·김우정·김은경·이승현·최현선·정효영·배희정(2015),

-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I 한문과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재철(1999), 「제6·7차 한문과 교육과정의 비교 연구」, 『한문교육연구』 13호, 한국한문교육학회.
- 정재철(2010), 「개정 교육과정 ‘한문지식’ 내용 분석-중학교 『한문1』의 적용 사례와 관련하여」, 『한문교육연구』 24호, 한국한문교육학회.
- 정우상(1988), 「중학교 한문과 교육과정의 사적 고찰」, 『강윤호교수화갑기념논총』. 윤재민·송혁기 (2012), 『한문과 교육과정론』 재수록.
- 정우상(1991), 「고등학교 한문과 교육과정의 사적 고찰」, 『계봉임만영교수화갑기념논집』. 윤재민·송혁기(2012), 『한문과 교육과정론』 재수록.
- 진재교(2006), 「국어기본법과 한문교육의 방향」, 『한문교육연구』 27, 한국한문교육학회.
- 한은수(2008), 「초등학교 한문 교육과정 제정을 위한 시론(1)-교과의 성격, 목표, 내용 체계를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20,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한은수(2010), 「초등학교 한문 교육과정 제정을 위한 시론(2)-교수·학습 방법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30, 근역한문학회.

[부록 1] 1차 교육과정 ‘중학교의 漢字 및 漢字語 학습’²⁷⁾

一. 漢字 및 漢文 학습의 의의

1. 漢字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어 근 이천 년 동안 우리의 글에 섞여 쓰이어 왔다.
2. 동양 문화의 연원(淵源)을 고찰(考察)하거나, 우리 문화의 정수(精髓)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漢字에 대한 이해가 그 기본이 되고 있다.
3. 현재 우리와 가장 가까이 인접(隣接)하고 있는 자유 중국, 일본 등에서는 여전히 漢字로서 그들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과 문화를 교류(交流)하고 국교(國交)를 조정(調整)하는데 있어서도 漢字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4. 우리의 漢字, 漢文의 학습은 결코 과거의 진부(陳腐)한 봉건적인 사대사상(事大思想)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며, 우리 조상들이 한 것같이 모든 의사(意思) 표시를 漢字에 의존(依存)하자는 것도 물론 아니다.
5. 다만 우리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범위 내의 漢字와 漢文을 적은 노력으로 짧은 시간에 습득하게 하려는 것이다.

二. 漢字 및 漢文의 지도 요령

1. 한자의 구조(構造)와 음의(音義)를 정확히 이해시킨다.
2. 한자 사전류(辭典類)의 색자(索字) 방법을 가르치고, 그 활용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한다.
3. 재래(在來)의 맹목적(盲目的) 암송주의(暗誦主義)를 배제(排除)하고, 과학적인 지도 방법을 도입(導入) 실시(實施)한다.
4. 우리의 일상 생활에 가장 많이 활용(活用)되는 漢字語, 격언(格言), 고사(故事) 등을 반복 학습시킨다.
5. 현대적 견지에서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기타의 자료(資料)를 비판하는 힘을 기른다.
6. 속독(速讀)과 정독(精讀)에 대한 지도를 한다.
7. 다른 학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넓은 시야(視野)에서 학습을 전개시킨다.
8. 역대(歷代)의 철인(哲人), 명현(名賢)의 언행(言行)에 비추어 국민의 도의 정신(道義精神) 양양(昂揚)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三. 중학교 漢字 및 漢文 학습 내용

국민 학교에서 습득한 漢字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일상 생활에 활용되는 상용 한자(常用漢字) 범위 내의 漢字, 漢字語 및 간단한 漢文을 습득하게 한다.

제1학년

교재 내용

우리의 일상 생활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漢字를 주로 하여 간명(簡明) 적절(適切)한 漢字語를 배열하고, 반복 연습할 자료를 풍부하게 한다.

지도 요령

漢字의 구조(構造), 서획(書劃)의 순차(順次), 음의(音義), 서체(書體) 등을 지도하고, 漢字 사전류의 활용 방법을 숙달(熟達)하게 한다.

제2학년

교재 내용

전 학년의 내용과 유사(類似)한 교재로 하되, 그 양(量)을 증가하고, 후반부(後半部)에는 일상

27) 문교부령 제45호(1955.8.1 제정 공포)에 따른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 ‘중학교의 漢字 및 漢字語 학습’이 실려 있다. 어문 표기는 아래 책에 전재된 내용을 그대로 따랐다. 교육부(2000), 『초·중·고등학교 국어과·한문과 교육 과정 기준』, 선명인쇄주식회사. 191~193면. 참조.

생활에 많이 쓰이는 격언(格言) 고사(故事) 등을 지도한다.

지도 내용

전 학년에서 학습한 漢字 지식의 기초 위에 그 활용 범위를 넓히고, 무미 건조(無味乾燥)한 자구(字句) 연습을 피하여 흥미를 유발(誘發)하도록 한다.

제3학년

교재 내용

교재 선택에 유의하여 상용 한자(常用漢字) 범위 내의 漢字를 완전히 습득하게 하고, 아울러 간단한 단문(短文類)와 평이(平易)한 시가류(詩歌類)를 과(課)한다.

지도 내용

漢字語의 構造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복 연습으로써 그 이해를 철저히 한다.

[부록 2] 3차 중학교 한문과 교육과정²⁸⁾

가. 목표

(1) 일반 목표

- (가) 한문 해독에 필요한 한자, 어휘, 간단한 한문의 구조를 이해하게 한다.
- (나) 한문 해독의 초보적인 기능을 기르고 발전시켜, 한문으로 된 전적 이해의 바탕을 마련하게 한다.
- (다) 한문 학습을 통하여, 전통 문화의 바탕 위에 새로운 민족 문화를 창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2) 학년 목표

<제1학년>

- (가) 한자, 어휘 및 한문의 구조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게 한다.
- (나) 간단한 성어를 중심으로 한, 간이한 한문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다) 한문 학습에 흥미를 가지게 하고, 고전의 뜻을 이해해 보려는 태도를 기른다.

<제2학년>

- (가) 한자, 어휘 및 한문의 구조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넓히게 한다.
- (나) 간단한 성분의 간이한 한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한다.
- (다) 한문 학습에 의욕을 가지게 하고, 고전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제3학년>

- (가) 한자, 어휘 및 한문의 구조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더욱 넓히고, 이를 확실히 하게 한다.
- (나) 여러 가지 성분의 간이한 한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 (다) 한문을 학습하고 한문으로 된 고전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한다.

나. 내용

[지도 사항 및 형식]

<제1학년>

(1) 지도 사항

- (가) 한자의 음과 뜻 알기(약 350자)
- (나) 한자의 구조 알기
- (다) 한자의 획순 알기
- (라) 단어의 구조 알기
- (마) 사전 활용법 알기
- (바) 주어, 서술어를 중심으로 한 간단한 문형 알기

(2) 주요 형식

- (가) 한자 (나) 단어 (다) 속어 (라) 간이한 한문

<제2학년>

(1) 지도 사항

- (가) 한자의 수 늘리기(신출 약300자)
- (나) 어휘 늘리기
- (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중심으로 한 간단한 문형 알기
- (라) 글의 뜻과 줄거리 알기
- (마) 좋은 글귀를 암송하고 그 감명을 되살리기

(2) 주요 형식

- (가) 단어 (나) 속어 (다) 고사 (라) 속담 (마) 간이한 한문

<제3학년>

28) 문교부령 제325호(1973.8.31 개정 공포) 중학교 한문과 교육과정은 크게 3부분(가. 목표, 나. 내용, 다. 지도 사항의 유의점)으로 구성되었다. 교육부(2000), 234~235면. 참조.

- (1) 지도 사항
 - (가) 한자의 수 늘리기(신출 약 250자)
 - (나) 어휘 늘리기
 - (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및 수식어를 중심으로 한 간단한 문형 알기
 - (라) 쉬운 허사 용법 알기
 - (마) 글의 형식 알기
 - (바) 글의 줄거리와 주제 알기
 - (사) 우리말로 번역하기
 - (아) 좋은 글귀를 감상하고 그 감명을 되살리기
- (2) 주요 형식
 - (가) 단어 (나) 속어 (다) 고사 (라) 속담 (마) 격언 (바) 간이한 한문 (사) 시

[제재 선정의 기준]

한문 학습을 위한 제재는 다음에 따라서 선정한다.

- (1) 제재에 사용된 한자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중 중학교용 기초 한자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인명, 지명 등의 고유 명사와 학습 효과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자는 이를 약한 추가 지도할 수 있다.
- (2) 우리 문화와 동양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 (3) 건전한 사상, 아름다운 정서, 지혜로운 행동이 담긴 것.
- (4)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드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다. 지도상의 유의점

- (1) 한문의 구조를 지도하는 데 필요한 용어는 국문법의 용어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난해한 내용은 이를 피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흥미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 (3) 한문의 내용에 나타난 바, 건전한 사상, 아름다운 정서, 지혜로운 행동을 본받아,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 수양에 힘쓰도록 지도한다.

인문고전으로서의 한문교육 역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포용적 가치를 중심으로

김미선(청주대)

【목차】

<별지 참조>

<토론문>

「인문고전으로서의 한문교육 역할」의 토론문

신두환(안동대)

<별지 참조>

미래 교육과정과 한자 교육의 지향

양원석(고려대)¹⁾

【목차】

- I. 서론
- II. 미래 한자교육의 지향
- III. 미래 교육과정의 한자 교육
- IV. 결론

I. 서론

이번 학술대회의 기획 주제는 ‘미래 교육과정과 한문교육의 지향’이다. 앞으로의 한문교육은 어떠한 지향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에 개정할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그러한 지향점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동안 한문과 교육과정은 매번 개정된 이후에 이에 대해 학계에서 논의하고 평가되어졌다.²⁾ 즉 교육과정이 앞서고 학계의 논의와 평가가 그 뒤를 잇는 방식이었다. 이는 한문교육의 절실한 이슈나 새로운 연구방법과 교수학습방법 등을 교육과정에 담아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한문교육의 실체가 교육과정에 수동적으로 끌려간다는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학술대회는 현재 한문교육에 대한 학계의 반성과 논의를 정리하여 이를 앞으로의 교육과정에 담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가올 미래 사회를 전망하면서 미래의 한문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미래의 한문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이러한 의도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본 발표 논문은 한문교육의 여러 분야 중에서 한자 교육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기존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한자 관련 분야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했으며 그 특징과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한 기존 연구를 참고하면서,³⁾ 미래의 한자 교육은 어떠한 지향을 가져야 하는

1)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 yang1st@korea.ac.kr

2) 이는 그동안의 한국한문교육학회와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의 기획 주제 선정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3) 한은수(2007), 「언어 학습 이론을 통한 한자 교육 試考」, 『한자한문교육』 18, 서울(한국),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허철(2011), 「한국 한자교육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문교육연구』 37, 한국한문교육학회.

윤재민(2011), 「한국한문교육학, 되돌아보기와 내다보기-‘한문과 교육과정의 변천 양상’을 포함하여」, 『한문교육연구』 37, 한국한문교육학회.

김경익(2012),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한자’ 영역의 내용 분석과 향후 과제」, 『한문교육연구』 39, 한국한문교육학회.

김경익(2014), 「중·고 한문교과서 ‘漢字’ 영역 분석 및 구성 방향 모색」, 『한자한문교육』 35,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한은수(2014), 「초등학교 한자 교과서의 실태를 통해 본 한자 교육의 문제점」, 『한자한문교육』 35, 한국한자

지, 그리고 미래의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한자 교육 분야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래 시대의 한자 교육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면서 기존보다 더욱 발전적인 면모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점차 소외되어가고 있는 한문과의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미래 시대를 전망하면서 선도적으로 한문과의 변화를 추동하고자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된다.⁴⁾

II. 미래 한자교육의 지향

미래 한자교육의 지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앞에서는 과거와 현재 한문과 교육과정에서의 한자 교육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고찰과 반성을 토대로, 아래에서는 앞으로의 한자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먼저, 다가올 미래는 어떠한 시대이며 어떠한 언어·문자 사용 환경이 될 것인가에 대해 전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한자 교육은 어떠한 지향과 어떠한 교육 내용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한자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고 우리 국어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의 학생들과 민중들은 한자에 대한 호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교육 현장과 입시에서도 한자와 한문은 점차 변방으로 밀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 미래의 한자 교육이 어떻게 시대에 대응할 수 있게 변모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현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⁵⁾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한자 교육’과 ‘창의적 한자 교육’

2016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논의되면서 다수의 사람들은 가까운 미래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전망하고 있다.⁶⁾

한문교육학회.

김우정(2014), 「한자교육의 현안과 과제-성격·목표·이론의 검토를 겸해」, 『한자한문교육』 35,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김왕규(2015), 「한국의 한자 교육의 위상과 연구 동향」, 『한자한문교육』 36,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윤지훈(2018), 「한자, 한자 어휘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문교육연구』 50, 한국한문교육학회.

김우정(2018), 「한문과 교육의 성격과 목표」, 『한문교육연구』 50, 한국한문교육학회.

4) 본론에서 언급한 한문과 교육과정은 ‘중학교’에 해당하는 내용임을 밝혀둔다.

5)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한문교과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제시되었다. : 허철(2018), 「미래사회의 변화와 한문교과의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 『한문학논집』 49, 근역한문학회.

6) “2016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였으며, 여기에서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라고 정의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이 상호 연결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으로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진하(2016),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 『KISTEP InI』 1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7

널리 알려졌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키워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며, 로봇기술과 인공지능 등에 따른 직무 대체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⁷⁾

한자는 수천년 동안 한자문화권의 학술과 문화를 담아내는 문자였으며, 이에 따라 한·중·일 등의 한자문화권 국가는 한자로 기록된 방대한 문헌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디지털화를 진행함에 따라, 한자로 기록된 문헌은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빅데이터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중국과 대만 등의 연구는 이미 30여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CNCORPUS’⁸⁾, ‘中央研究院 古漢語語料庫’⁹⁾ 등의 대규모 코퍼스로 구축하면서 이를 다방면에 활용하고 있다.¹⁰⁾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기존의 일자리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창의성, 감성, 예술과 관련된 일자리는 더욱 중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자 교육은 어떻게 변모되어야 할 것인가? 우선 과학기술과 접목한 ‘디지털 한자 교육’, 그리고 인간의 감수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창의적 한자 교육’으로의 지향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디지털 한자 교육’이란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디지털인문학(Digital Humanities)’¹¹⁾의 연구방법론을 적극 수용하여, 이를 한자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다. 간단히 예를 들면, 대만 中央研究院에서 구축한 殷周金文暨青銅器資料庫,¹²⁾ 先秦甲骨金文簡牘詞彙資料庫,¹³⁾ 金文關係文獻資料庫,¹⁴⁾ 青銅器愛玩網¹⁵⁾ 등의 고한자 관련 자료나 小學堂文字學資料庫¹⁶⁾와 異體字字典¹⁷⁾ 등의 전산 공구서를 활용하는 한자 교육을 들 수 있다. 또는 앞서 언

면 참조. ; 정민(2016), 「2016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9면 참조.]

- 7)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올 초 다보스포럼에 나온 직업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화 직무 대체는 2020년 전후에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단순 반복적인 과업 중심으로 대체되는 것일 뿐 여전히 중요한 의사결정과 감성에 기초한 직무는 인간이 맡게 될 것이므로 막연히 일자리의 소멸을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다만 인공지능과 로봇을 중심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려면 창의성과 감성 및 사회적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살아남을 직업은?」, 『한겨레』, 검색일 2019년 7월 1일 22:1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6634.html#csidx1ca879c8b5d5d82889d00a6ca7fc94c

- 8) <http://www.cncorpus.org> ; <http://corpus.zhonghuayuwen.org>

- 9) 上古漢語標記語料庫 (<http://lingcorpus.iis.sinica.edu.tw/ancient>)

中古漢語標記語料庫 (<http://lingcorpus.iis.sinica.edu.tw/middle>)

近代漢語標記語料庫 (<http://lingcorpus.iis.sinica.edu.tw/early>)

- 10) 양원석(2019), 「中國과 臺灣의 한문원전 정보화와 코퍼스 구축 현황」, 『한문학논집』 53, 근역한문학회. 참조.
- 11) 김현(2016), 「디지털 인문학 - 아카이브와 인문학 연구의 통섭」(『기록인(IN)』 36, 국가기록원.) :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말이 학계와 교육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기 전에도 인문 분야의 연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학자들의 연구의 편의를 돕는다는지, 전자책을 만들어서 교육 교재로 활용하는 일이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다. ‘인문학 자료 전산화’라고 했던 이러한 유의 일들과 오늘날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부르는 것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누가 하느냐’이다. ‘인문학 자료 전산화’는 정보처리 기술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문학 연구자와 교육자, 피교육자들을 위해 인문학 자료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료 이용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반해,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 연구자와 교사,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연구와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예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새로운 연구·교육 성과를 도출하고 이로써 인문학의 사회적 기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12) <http://www.ihp.sinica.edu.tw/~bronze>

- 13) https://inscription.sinica.edu.tw/c_index.php

- 14) http://ndweb.iis.sinica.edu.tw/ancient_characters/index.htm

- 15) <http://www.ihp.sinica.edu.tw/~bronze/pv/>

급한 중국과 대만에서 구축한 한문 코퍼스의 품사 분석 내용, 통계 내용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이상은 대학 수준의 교육에서 가능한 내용이며, 중고등학교 한자 교육의 경우에는 부득이 기본적인 디지털 공구서를 활용하거나 한자 학습 게임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자료를 교육에 활용하게 되면, 학생들의 한자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또 스스로 한자 학습 방법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중국, 홍콩, 대만 등에서는 이와 같은 학생용 한자 학습 프로그램을 다수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다.¹⁸⁾

‘창의적 한자 교육’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도 다수 언급되었던 내용이다.¹⁹⁾ 이에 더하여, 미래 시대의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창의적 한자 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교육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 한자 위상 강화의 세계적 추세에 따른 ‘국제적 시야에서의 한자 교육’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먼저 선진국에 진입한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과 한국 등 한자문화권 국가들의 국가 경쟁력과 정치·경제적 영향력은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까운 미래 시대에는 지금보다 한자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는 한자를 사용하는 ‘한자문화권’과 알파벳을 문자로 사용하는 ‘알파벳 문화권’으로 양분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²⁰⁾²¹⁾

중국은 2010년에 명목 GDP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미국에 이어 2위가 되었으며, 2014년에는 구매력 평가기준 GDP에서 미국을 추월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에는 미국과 중국을 G2로 언급하고 있다. 일본은 이른 시기부터 세계 최선진국의 반열에 들고 있으며, 한국 또한 세계 경제 10대 국가로써 날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홍콩, 대만, 마카오, 싱가포르, 동남아 화교권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가까운 미래에는 한자문화권과 영미 유럽 문화권이 세계를 양분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면모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진 몇 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6) <http://xiaoxue.iis.sinica.edu.tw/>

17) <http://dict.variants.moe.edu.tw/variants/rbt/home.do>

18) 홍콩대학 敎育學院 中文敎育研究中心에서는 다수의 학생용 한자, 한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APP으로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香港學前非華語學生中文學習進程架構>, <解碼中文>, <mLang>, <教授說故事系列-聽故事愉快學語文> 등이 있다.

19) 한은수(2010), 「창의적 체험활동과 초등학교 한자 교육 운영 방안」, 『한자한문교육』 25,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한은수(2013), 「초등교육에서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한자·한자어 교육」, 『한문교육연구』 40, 한국한문교육학회. ; 강민구(2013), 「중등교육에서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한문교육」, 『한문교육연구』 40, 한국한문교육학회. 등

20) 이를 ‘붓 문화권’과 ‘펜 문화권’으로 칭하는 학자도 있다.

21) 아랍 문자는 알파벳 문자에 이어서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문자이다. 아랍 문자를 이용하는 지역은 이란, 파키스탄 등의 중동 지역, 중국의 서북 지역 일부,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의 일부 지역 등으로 대부분 이슬람 국가이다. 아랍 문자를 사용하는 지역은 매우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 문자를 사용하는 인구도 많다. 하지만 미래 시대의 국가 경쟁력과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한자문화권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상은 뉴질랜드 오클랜드 국제공항의 표지판이다. 표지판에 보이는 것은 한자라기보다는 중국어라고 봐야하지 않겠나, 중국 사람이 많으니까 저렇게 표기했겠지 등에 대한 논의는 지금 언급하지 않겠다. 어쨌든 이상 몇 장의 사진만 보아도 한자문화권의 위상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자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세계적 추세, 미래 시대에 전세계를 문자를 기준으로 양분하였을 때 한자가 그 한쪽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우리의 한자 교육 또한 ‘국제적 시야에서의 한자 교육’ 으로의 지향을 가져야할 것이다.

2015 한문과 교육과정 ‘1.성격’ 에서 “한편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등 한자가 통용되는 한자문화권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1/4이나 된다. 우리의 문화는 독창적인 민족 문화와는 별도로 이들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들과 일정 부분 공유하는 정신문화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한문 학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교과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한문교과서에서는 한중일 문화를 다루거나 한중일의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한문과의 외연을 넓히고 한자의 활용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의 있는 작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 시대에는 한자와 한자문화권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임을 언급하면서, 국제적 시야에서의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한자 학습과 한자에 대한 이해는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데 기여’ 할 뿐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한문교과서에서 한중일 문화를 다루거나 한중일의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

하지만, 이 외에도 한중일 언어와 어휘의 공통점과 특수성을 한자를 통해 설명하는 방법을 시도하거나 세계적인 추세에서의 한자의 위상 등을 강조하는 내용이 교육과정에 추가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다.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등 한자가 통용되는 한자문화권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1/4” 이 아니라, 1/3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며 그 영향력은 세계의 1/2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통일 시대를 대비한 ‘국어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위한 한자 교육’

가까운 미래가 될지 또는 먼 미래가 될지 알 수 없지만, 미래 한국 사회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통일 시대로의 진입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의 변화라고 전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다방면의 예측이 진행되고 있지만, 통일 시대로 진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건 중의 하나는 이질적인 남과 북의 언어·문자 사용 환경이 서로 만나게 된다는 점이다. 남과 북의 만남에 따라 형성되는 새로운 언어·문자 사용 환경은 그 이질성을 극복하는 노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어에 대한 연구가 더욱 절실해 질 것이며, 한국어에 60-70% 전후의 한자어가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울러 한자와 한자어에 대한 연구도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통일 시대 한국의 언어·문자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우리 국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언어·문자 생활을 보면, 국어 독해력 및 어휘구사력 약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어 단어의 정확한 뜻을 모르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즉 미래 통일 시대 그리고 현재의 국어 생활을 고려한 한자 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2015 한문과 교육과정 ‘1.성격’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상당 부분의 어휘가 한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특히 다른 교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학습 용어의 상당수가 한자 어휘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원활한 언어생활과 다른 교과에서 사용하는 학습 용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문 학습이 필요하다.” 라고 제시한 점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학습 용어’를 강조하면서 한자 학습이 국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특히 타 교과에서 사용하는 개념어와 용어를 이해하는 데에 요긴하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전부터 많이 언급되어 왔던 부분이지만, 국어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위한 한자 교육의 지향은 현재와 미래 통일 시대의 언어·문자 생활을 위해 계속 강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인성 한자 교육’

과학기술의 발달과 개인주의화의 추세에 따라 미래 사회는 아무래도 인간성 상실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요즘에 등장하는 흉악 범죄들이 이제는 크게 놀랄 일이 아니라고 느낄 정도로 현대 사회는 이미 인간성이 상실되고 인성이 무뎠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와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지만, 반면에 인간성 상실이라는 부정적인 효과도 아울러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5 한문과 교육과정 ‘1.성격’에서 “한문 기록 속에는 우리의

정신문화가 대부분 축적되어 있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의 문제 등을 치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으므로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한문 학습이 필요하다.” 라는 점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한문 자료에는 인성 교육의 요소와 내용을 다수 함유하고 있어 인성 교육을 위한 한문과의 위상에 적합하며 앞으로의 한문 교육의 지향에 이러한 점이 더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문장으로 이루어진 한문에 비해, 한자에는 인성 교육의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자의 자원을 고찰해 보면 인간의 보편적인 성품을 드러내는 문화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어른을 등에 업고 있는 모양을 나타낸 孝, 두 손을 나란히 하고 있는 모양을 나타낸 友, 두 사람이 의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仁, 사람의 말은 신실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信, 마음[心]이 들어간 글자인 愛와 慈 등, 이 외에도 인성과 관련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한자를 통해 ‘인성 한자 교육’을 지향하는 것 또한 미래 한자 교육의 한 지향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한자학의 학술적 이론에 근거한 한자 교육

이는 미래 시대와 크게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이든 미래이든 기본적으로 한자 교육은 한자학의 학술적 이론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은 한자 교육의 항구적인 지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한자학의 연구 성과를 적극 수용하여 한자 교육의 내용을 더욱 학술적으로 다듬는 작업도 아울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한자 교육의 경우, 한자학의 학술적 근거와 이론을 무시하고 학습의 용이성만을 강조하면서 비학술적이고 비논리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에서 이러한 점은 많이 사라졌지만, 시중의 한자 교재에는 여전히 이러한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

한자학의 학술적 이론에 근거해야 한다는 사례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의 문제를 들 수 있다. 2015 한문과 교육과정 ‘2.목표’에서도 “중학교 ‘한문’은 중학교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를 중심으로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며, 한문 자료를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라고 하여 한문교육용 기초한자를 한문과 학습의 기본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한문교육용 기초한자는 1970년대에 제정한 것으로 당시의 수업 시수와 학습량을 고려하여 1,800자를 선정했다고 알려져 있다. 2000년대에 일부 글자가 조정되기도 하였지만, 어쨌든 근 50년째 1,800자라는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50여년 동안 사용되어온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것이 현재의 한문교육에 효과적인지, 기초한자 선정의 학술적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의 재선정이 필요하다면 더욱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방법으로 선정하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²²⁾ 예를 들어 한자의 상용도, 활용도, 투명도에 대한 검토는 한문교육용 기초한자를 새로 선정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술적인 방법론이다.²³⁾

22) 허철(2008), 「한문교과 교육에서 한문교육용 한자 선정을 위한 기초연구」, 『동방한문학』 35, 동방한문학회.

23) 허철(2010), 「《현대국어사용빈도조사 1,2》를 통해 본 한자어의 비중 및 한자의 활용도 조사」, 『한문교육연구』 34, 한국한문교육학회. ; 허철(2012), 「중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900자의 상용도·활용도 연구」, 『동방한문학』 53, 동방한문학회. ; 허철(2015), 「고등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900자의 상용도, 활용도 연구」, 『한문교육연구』 44, 한국한문교육학회. ; 허철(2016), 「현대국어사용빈도 조사 선정 고빈도 이상 상용 한자어의

中國은 1988년에 「現代漢語常用字表」를 공표하였으며, 대만은 1982년에 「常用國字標準字體表」를 공표하였는데, 이러한 국가 차원의 字表 확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 기준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대만의 경우 標準字體 확정을 위해 40개 항목의 通則 및 120개 항목의 分則의 의거하여 세부적으로 字體의 표준안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을 참고하고, 기존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상용도, 활용도, 투명도 등을 활용하며, 그리고 현재의 한문과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의 字種, 量, 序 등을 과학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밖에도, 표음문자와 비교되는 한자의 성질을 고찰하는 문제, 字形學의 이론에 근거하여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의 표준 자형을 확정하는 문제,²⁴⁾ 會意兼形聲²⁵⁾이나 部件²⁶⁾ 등의 한자학 연구 성과를 수용하는 문제, 현대한자학의 주요 연구 내용인 形·音·義·量·序에 대한 성과를 수용하는 문제,²⁷⁾ 漢字文化學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는 문제,²⁸⁾ 部首의 개념 및 활용에 대한 문제 등 한자학의 이론을 한자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논의에는 반드시 한자학 이론에 따른 한자 교육이라는 지향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앞으로의 미래 시대에 한자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한자 교육’과 ‘창의적 한자 교육’, 둘째 한자 위상 강화의 세계적 추세에 따른 ‘국제적 시야에서의 한자 교육’, 셋째 통일 시대를 대비한 ‘국어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위한 한자 교육’, 넷째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인성 한자 교육’, 다섯째 한자학의 학술적 이론에 근거한 한자 교육을 제시해 보았다. 이상에서 제시한 미래 시대에 대한 전망은 필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 언급한 한자 교육의 지향점은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학계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많은 토론과 논의를 진행하여 향후 새로 개정될 한문과 교육과정 안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한자와 한문 교육이 홀시 받고 있는 한국의 현 상황에서 한자와 한문 교육을 융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혁신적이고 새로운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대와 사회와 민중의 요구를 수용한 한자 교육이 필요하며, 미래 시대를 대비하는 한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에서는 ‘미래 한자교육의 지향’이라는 제목 아래에, 미래 시대의 전망과 더불어 한자 교육의 지향에 대해서 언급해 보았다. 따라서 구체적인 방안 제시의 측면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을 논문으로 완성하여 투고할 때에는 ‘지향’에 대한 언급 뿐 아니라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투명도 조사 연구, 『한문교육연구』 46, 한국한문교육학회.

24) 김영옥(2011),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의 자형 표준화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5) 양원석(2016), 「『會意兼形聲』에 대한 고찰 및 漢字 教育에의 활용 방안 연구」, 『한문교육연구』 47, 한국한문교육학회.

26) 김영옥(2002), 「漢字 教育을 위한 漢字 字形 分析 研究 : 構形學의 適用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등

27) 허철(2004), 「現代漢字學의 개념과 연구 영역」, 『한문학보』 10, 우리한문학회. ; 양원석(2005), 「中國의 現代漢字學 研究와 漢字 教育」, 『한자한문연구』 1, 고려대 한자한문연구소. 등

28) 양원석(2014), 「한자문화학과 한자 교육」, 『한자한문교육』 35,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등

Ⅲ. 미래 교육과정의 한자 교육

이상에서 미래 시대에 대한 전망과 아울러 미래 시대 한자 교육의 지향에 대해 언급해 보았다. 이러한 지향에 따라 한자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한자 교육이나 대학에서의 한자 교육 등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경우에 가능하겠지만, 수업 시수 등의 제한이 있는 중고등학교 한문 과목에서 이를 모두 실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앞에서 제시한 미래 한자 교육의 지향 중에서 중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2015 한문과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아래에 서술하겠다.

1. 디지털 한자 교육과 창의적 한자 교육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성격’에는 정보처리 능력과 창의적 사고 능력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한문과는 미래 사회에서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창의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의사소통 능력, 정보처리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인성 역량, 심미적 감성 등을 교과목의 중요한 역량으로 삼고 있다.

.....

정보처리 능력은 한자와 한문 자료 및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한자 어휘 자료에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그 의미를 평가·선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활용하는 능력이다.

창의적 사고 능력은 한자와 한문 자료에 담겨 있는 다양한 영역의 폭넓은 지식과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곧 도래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한 ‘디지털 한자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인간의 감수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창의적 한자 교육’이 더욱 요구될 것이다.

중고등학교 한문 교과목에서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디지털 한자 교육과 창의적 한자 교육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한자로 기록된 문헌은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빅데이터 중의 하나라는 점, 이미 중국과 대만 등에서는 대규모 코퍼스에 기반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한 로봇과 인공지능 시대에는 오히려 인간의 감수성과 창의성이 더욱 가치를 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보처리 능력과 창의적 사고 능력의 배양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 한자와 어휘’의 ‘(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의 ‘①교수·학습 방법’에는 ‘한자의 모양·음·뜻’, ‘한자의 부수’, ‘한자의 필순’, ‘한자의 짜임’ 학습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며, 또 ‘② 유의 사항’에도 ‘자전(사전, 옥편) 활용하기’, ‘자원(字源) 활용하기’, ‘부수(部首) 활용하기’, ‘필순대로 따라 쓰기’, ‘한자 구조 분석하기’, ‘한자의 구성 성분 활용하기’ 등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현재 중국, 홍콩, 대만 등에서 개발된 한자 학습 프로그램이나 APP 등은 이상의 학습방법을 모두 구현하고 있다. 그러므

로 여기에 한자 학습 프로그램이나 APP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학생 스스로 한자 학습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직접 제작하는 활동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교수학습방법으로 ‘자전(사전, 옥편) 활용하기’에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인터넷이나 워드프로세서 또는 모바일 등의 필기 인식 기능을 이용해 전자사전에서 한자를 찾을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라는 내용이 처음 추가되었을 때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보편적인 교수학습방법이 되었고 교과서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이제 한문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방법에도 디지털 한자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디지털 한자 교육이나 창의적 한자 교육을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진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학생들의 한자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또 스스로 한자 학습 방법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2. 국제적 시야에서의 한자 교육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성격’에는 한자문화권 내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등 한자가 통용되는 한자문화권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1/4이나 된다. 우리의 문화는 독창적인 민족 문화와는 별도로 이들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들과 일정 부분 공유하는 정신문화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한문 학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한자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국제적 시야에서의 한자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위의 ‘성격’ 부분의 내용 수정을 제안한다. 즉 한자 학습은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자 학습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자를 익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한자와 한문 학습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한자와 한문 학습의 동기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도를 담아내기 위해 교육과정의 ‘성격’에 다음과 같은 추가 서술을 제안한다.

“특히 한자문화권 국가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세계적으로 한자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자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자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제화 시대에서 한자 학습은 더욱 필요하다.”

‘(5) 한문과 문화’의 ‘(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에 ‘한자문화권 언어·문화 사전 만들기’, ‘한자문화권의 상호 교류 사례 찾아보기’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한자문화권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이에 더해 전세계에서 한자문화권의 경쟁력과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 찾아보기와 같은 교수학습방법을 추가로 제시한다면 ‘국제적 시야에서의 한자 교육’이라는 지향을 달성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어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위한 한자 교육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성격’에는 원활한 언어생활과 학습 용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상당 부분의 어휘가 한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특히 다른 교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학습 용어의 상당수가 한자 어휘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원활한 언어생활과 다른 교과에서 사용하는 학습 용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문 학습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원활한 언어생활을 강조하고, 타 교과의 학습에 도움을 주는 학습 용어를 제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한자와 한문 학습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학습의 동기 부여의 측면에서, 그리고 실효성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3)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의 ‘(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에는 ‘학습 노트 만들기’, ‘짧은 글 짓기’, ‘의미망 만들기’, ‘신문이나 방송 영상 활용하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축자역’의 방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일상용어나 학습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용어를 이루고 있는 한자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또 축자역에 대한 이해가 진행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兩棲類’를 학습할 때에 兩, 棲, 類 각각 한자의 뜻을 이해하고, ‘兩棲類’를 ‘양쪽에 사는 무리’라고 축자역을 진행하면 兩棲類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미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이러한 방식의 교수학습방법을 교육과정에 추가한다면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성격에 더욱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남북에서 이질적으로 사용하는 어휘를 찾고 이를 한자를 통해 이해하는 예시를 제시한다면, 향후 통일시대 남북 언어의 이질성 극복에 한자와 한자어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인성 한자 교육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성격’에는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한문 기록 속에는 우리의 정신문화가 대부분 축적되어 있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의 문제 등을 치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으므로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한문 학습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개인주의화의 추세에 따라 미래 사회는 아무래도 인간성 상실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할 수 있으므로, 한문과에서 인성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인성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대부분 스토리가 담겨 있는 한문 문장에 담겨 있다.

‘(4) 한문과 인성’의 ‘(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 또한 명언과 명구를 비롯한 한문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한자의 자원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인성 교육의 요소를 담고 있는 한자를 찾아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예로 제시한 바와 같이, 孝, 友, 仁, 信,

愛, 慈 등은 충분히 ‘인성 한자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한자학의 학술적 이론에 근거한 한자 교육

이전의 한자 교육에서는 한자학의 학술적 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학습의 편리성만을 강조하면서 비학술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현재에도 학교 밖의 한자 교육에는 이러한 경향성을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특히 학교의 한자 교육에서는 더욱 더 한자학의 학술적 이론에 근거한 한자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자학의 연구 성과를 적극 수용하여 한자 교육의 내용을 풍부하고 학술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전의 한자 교육에서는 六書에서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를 모두 동일한 층위에서 교육했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清代 戴震의 四體二用說을 수용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조자원리에 해당하는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을 주로 교육하는 것, 학술적 근거가 없는 字源 해석이 교과서에서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 등이 있다. 이처럼 학술적 근거에 의한 한자 교육, 한자학의 연구 성과를 수용한 한자 교육은 앞으로의 교육과정에서 적극 수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 部首

2015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부수 활용하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부수(部首) 활용하기 : 학습자에게 부수에 대해 설명을 해 준 후 제시된 한자의 부수를 찾도록 하는 방법, 부수의 의미를 통해 그 한자의 뜻을 유추해 보도록 하는 방법, 해당 부수가 들어가는 여러 한자를 찾아보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한자의 부수를 기계적으로 암기하지 말고, 한자의 모양을 보고 부수를 유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는 ‘(1) 한자와 어휘’의 ‘(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에 제시된 내용이다. 後漢 許慎의 『說文解字』에서 한자를 분류하고 수록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 제시된 部首는 2,000여 년 이상 한자 사전에서 한자를 수록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허신은 『설문해자』에서 540부를 제시했으며, 이후 梁 顧野王之 『玉篇』에서는 542부, 唐 張參의 『五經文字』에서는 160부, 宋 司馬光의 『類篇』에서는 544부를 제시하는 등 부수의 변화가 있었으며, 明 梅膺祚의 『字彙』에서 214부를 제시하고, 淸의 『康熙字典』에서 214부를 제시하면서²⁹⁾ 이후 214부 또는 214개 전후의 부수가 제시되었다. 현재에도 중국의 사전에는 각 출판사마다 부수 체계를 달리 하고 부수의 숫자 또한 상이한 편이다. 이는 部首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한자를 사전에 수록하기 위한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부수의 의미를 통해 그 한자의 뜻을 유추해 보도록 하는 방법”은 혹 부수가 해당 한자의 의미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물론 같은 부수에 속한 한자들은 의미에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또 중고등학교 수준의 1,800자의 경우 대부분 그러한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부수는 허신 이래로 한자 수록을 위한 형태적 기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술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한가지만 예를 들면 萬의 부수는 艹이지만, 萬은 艹와 의미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부수의 의미를 통해 그 한자의 뜻을 유추해 보도록 하는 방법”이라

29) 한국의 경우,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康熙字典』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현재까지 214부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는 서술에서, ‘부수’를 ‘部件’으로 수정하면 그 의미가 더욱 정확하게 될 것이다. 部件이란 현대한자학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로, 한자에서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로 해당 한자의 뜻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³⁰⁾

2) 한자의 짜임

2015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한자의 짜임’은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한자의 짜임’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한자의 짜임’을 학습할 때에는 하나의 한자를 구성 성분에 따라 두 조각으로 나누어 만들어 사용한다. 즉 회의(會意)의 원리로 만들어진 한자는 두 개의 ‘뜻 부분’, 형성(形聲)의 원리로 만들어진 한자는 ‘음 부분’과 ‘뜻 부분’으로 나누어 조각을 만든 후 학습자가 조각을 맞추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한자의 짜임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일단 ‘한자의 짜임’이라는 용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한다. ‘짜임’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의 관계나 체계’이다. 즉 어떤 사물의 ‘부분’이 있어야 하며, 그 ‘부분’의 관계와 체계가 있어야 ‘짜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부분’의 관계와 체계가 있으려면 그 부분은 최소 2가지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 ‘짜임’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단어의 짜임’에 대해서 ‘단어를 형성하는 의미 요소들 사이의 결합 관계’라고 언급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짜임은 ‘요소들 사이의 결합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요소는 2개 이상의 경우임을 이해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상형과 지사는 獨體字에 해당하며, 회의와 형성은 合體字에 해당한다.³¹⁾ 따라서 상형과 지사를 한자의 짜임이라는 용어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을 아우르는 용어로,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造字原理’를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나.

교육과정에서는 “형성(形聲)의 원리로 만들어진 한자는 ‘음 부분’과 ‘뜻 부분’”이라고 하였는데, 매우 기초적인 한자에는 해당되지만 형성의 경우 음 부분이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즉 형성자의 聲符가 表音 기능 뿐 아니라 表意 기능도 아울러 가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³²⁾ 비교적 난이도가 쉬운 한자인 政, 志, 娶 등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형성자로 볼 수도 있고 회의자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許慎 때부터 있었으며, 허신은 이를 ‘亦聲’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고, 이후 宋 王聖美的 ‘友文說’, 宋 戴侗의 ‘因聲求義’, 清 段玉裁의 ‘會意兼形

30) 김영옥(2002), 「漢字 教育을 위한 漢字 字形 分析 研究 : 構形學의 適用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원석(2005), 「中國의 現代漢字學 研究와 漢字 教育」, 『한자한문연구』 1, 고려대 한자한문연구소, 등 다수

31) 許慎은 이를 「說文解字序」에서 文과 字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許慎, 「說文解字序」: 倉頡之初作書, 蓋依類象形, 故謂之文; 其後形聲相益, 卽謂之字. [文者, 物象之本;] 字者, 言孳乳而浸多也.)

32) 政은 正과 攴으로 구성된 것으로 ‘바르게 하다[正]’와 ‘치다[攴]’의 뜻이 합쳐진 회의자이다. 또한 여기서의 正은 ‘정’이라는 음을 나타내므로 政은 형성자이기도 하다. 즉 政의 구성 요소인 正은 뜻을 나타내는 形符(意符) 이면서 동시에 소리를 나타내는 聲符의 기능도 하고 있으므로, 政은 ‘회의겸형성자’라고 할 수 있다.

志는 ‘심장’의 상형으로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心과 ‘가다’는 뜻을 가진 之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한 『說文解字』의 풀이인 ‘從心, 之聲.’을 따르면 형성자이고, 心과 之를 모두 뜻의 요소로 보아 ‘마음이 가는 바’로 풀이하면 회의자이다. 즉 志의 구성 요소인 之는 聲符이면서 形符의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으므로, 志는 ‘회의겸형성자’라고 할 수 있다.

娶는 ‘취하다’라는 뜻을 가진 取와 ‘여자’의 뜻을 가진 女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取가 ‘취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경우 娶는 회의자가 되며, 取가 ‘취’라는 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경우 娶는 형성자가 된다. 그러므로 娶는 ‘회의겸형성자’라고 할 수 있다.

聲’ 등은 모두 형성자의 聲符가 表意의 기능을 한다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 현대한자학에서는 회의겸형성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³³⁾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가운데 회의겸형성에 해당하는 한자가 몇 개이며 그 구성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 성과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會意兼形聲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회의와 형성에 대한 이해를 학술적으로 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아직은 생소한 용어이며, 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논의는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3) 한자와 관련된 일반화된 지식과 내용 요소

2015 한문과 교육과정의 ‘나. 내용 체계’에서 한자와 관련된 일반화된 지식과 내용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모양·음·뜻을 지니고 있다.	한자의 모양·음·뜻
	한자의 부수
	한자의 필순
	한자의 짜임

기존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었던 甲骨文-金文-小篆 등 한자 字體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2015 교육과정에서 빠진 것은 수업 시수 등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한자 교육에 필요한 내용 요소라고 생각되므로 차후의 교육과정에 다시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한자의 성질, 특히 한글이라는 표음문자와 구분되는 표의문자로서의 한자의 성질이 추가되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표의문자로서의 한자의 성질에 대한 이해는 한자 자체에 대한 이해를 더할 수 있으며, 또한 표음문자인 한글과의 비교를 통해 그 성격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표의문자인 한자는 문자의 形과 義이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표음문자인 한글은 문자의 形과 音が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간단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4) 기타

교육과정의 구성은 수업 시수와 학습의 난이도와 위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필자가 앞에서 제시했던 지향이나 이와 관련한 내용을 모두 수록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자학의 학술적 이론과 연구 성과를 한자 교육에 담아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또 그것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에 수록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육과정에 수록하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작업은 한문교육 종사자들에게 요구되는 과제라고 하겠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에서 ‘필순대로 따라 쓰기’를 제시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아직 표준화된 필순 규범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중국·대만·일본 등의 필순 규범을 참고하고 우리 전통의 필순의 경향을 숙지하여 표준화된 필순 규범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의 자형이 교과서에 제시될 때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한국의 한자 자형 표준안을 마련하는 연구, 漢字文化學의 연구 성과를 교과서에 수록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 현대

33) 양원석(2016), 「『會意兼形聲』에 대한 고찰 및 漢字 教育에의 활용 방안 연구」, 『한문교육연구』 47, 한국한문교육학회.

한자학의 주요 연구 내용인 形·音·義·量·序에 대한 성과를 수용하는 연구 등 한자학의 학술적 이론과 근거에 기반한 한자 교육 방안에 대해서 향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그 논의의 성과물이 미래의 한문과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이전보다 더욱 학술적이고 효율적인 내용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IV. 결론

<토론문>

「미래 교육과정과 한자 교육의 지향」의 토론문

한은수(서울구암초)

<별지 참조>

2015 한문과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적 검토

김우정(단국대)

【목차】

<별지 참조>

<토론문>

「2015 한문과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적 검토」의 토론문

윤지훈(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별지 참조>

한문교과서 체제 연구

- 2015개정교육과정 한문I 교과서를 중심으로

남궁 원(강원과학고)

【목차】

- I. 서론
 - II. 교과서 집필의 환경
 - III. 한문과 교과서의 구성 방식과 구성 체제
 - 1. 단위 구성 방식
 - 2. 단위 구성 체제
 - VI. 결론
-

I. 서론

지금 이 시점에서 교과서의 구성 체제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까? 어떻게 보면 아주 적기라서 시의적절한 논의인 것 같고 어떤 면으로 보면 지나치게 빨라서 시기상조인 것 같기도 하다. 2015개정 교육과정이 발효된 지 여러 해가 지났고 고등학교에서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2018년이어서 2학년에서 한문 과목을 편성한 학교에서는 이미 새로운 한문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교과서의 구성 체제를 개괄하고 타 교과서와 사용 중인 교과서를 비교해 보는 것이 큰 유익을 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새 교과서로 수업을 시작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이제 겨우 교과서 선정 단계를 지났거나 교과서 선정이 진행 중이라서 채 교과서로 수업을 시작도 하지 않은 계제이다. 시작도 적용도 안된 것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무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형편이므로 새로운 교과서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 하지만 ‘소개’하는 것은 어떨까? 사실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였거나 교과서 관련 연구에 관심이 많은 일부 관계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교과서의 변화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교과서 선정 장면에서도 여러 출판사에서 발간한 교과서들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비교·검토하기가 쉽지 않다. 심한 경우에는 교과서 선정 작업이 교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한다. 따라서 본고는 이제 막 출발점에 서 있는 새로운 교과서들의 구성 방식과 체제를 객관적으로(비판적이 아님) 파악하여 안내함으로써 한문 교육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한문과 교과서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기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필자의 역량이 달리는 점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이지 한문과 교과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찰과 비판이 꼭 필요하다. 차츰 새 교과서 사용이 익숙해지고 다시 새로운 교과서의 개발이 임박하는 때가 오면 그때는 폭발적이고 집중적으로 교과서에 대한 비판과 대안 모색이 쏟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교과서에 관한 연구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교과서는 현재까지의 한문교육학 연구 역량의 총체적 결집 바로 그것’¹⁾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술한 비판과 눈 흘김 속에서도 한문 수업을 지탱하는 것은 여전히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검토 대상으로 삼은 교과서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문I』 교과서 13종이다.²⁾ 필자가 현 시점에서 확보 가능한 교과서는 모두 전시본이므로 교과서들이 교실에 당도했을 때에는 일부 수정이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초점은 교과서의 구성에 관한 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단원의 구성 방식과 소단원의 구성 체제에 대하여만 논의를 한정한다. 이번에는 교과서의 외적 체제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요인이 발생했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여러 교과서들을 단시간 내에 좋지 않은 안목으로 살펴 본 것이기에 논의들이 한없이 피상적이기만 한 점을 양해하기 바란다.

II. 교과서 개발 및 집필의 환경

1.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과서 개발

교육부는 2015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을 크게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한다. 둘째,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셋째,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넷째, 학습량을 적정화한다. 다섯째, 교육 내용, 교수·학습, 평가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여섯째,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한다.’³⁾등이 그것이다.

이 여섯 가지 기본 방향은 각 교과별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그에 수반하여 각 교과서의 교과서 개발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문과 교과서 역시 이 점을 의식하면서 개발 및 집필해야 하는 것이다. 위의 여섯 가지 기본 방향이 모두 다 중요하지만 교과서에 직접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래도 셋째부터 여섯째까지의 항목이 될 것이다. 지당하신 말씀처럼 보이는 이들 기본방향이 교과서 집필 현장에 이르면 엄혹한 현실이 되고 더 없는 어려움을 겪게 한다.

특히 이번 교과서 개발과 집필에 결정적인 곤란을 초래한 것은 ‘학습량의 적정화’일 것이라고 짐작한다. 교육부는 적정화에 대해서 ‘단순히 양적 감축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적정화의 일차적인 목적은 학습 부담을 줄이는 데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면서 ‘적정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유의미한 학습에 있는

1) 김왕규(2008) p.64

2) 13종 교과서 출판사명을 가나다순으로 해서 논의의 편의상 A,B,C.....와 같이 기호화했다. A (금성출판사), B (다락원), C(대명사), D(대학서림), E(동아출판), F(미래엔), G(비상교육), H(씨마스), I(와이비엠),J(이젠미디어), K(장원교육), L(지학사), M(천재교과서)

3) 교육부(2017), 『2015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고등학교』 22-25면 참조

것이므로 소수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고자 하였다.’고 하고 있다.⁴⁾ 듣기는 좋은 말이지만 실행하기는 지난한 것이다. 단순히 양적으로 감축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드는 것이다. 따로 또 집필 지침에도 명시되기도 했지만 한문과 교과서는 이 기본 방향 때문에 치명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했다.

나머지 기본 방향은 새로운 한문과 교과서 개발에 순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문과 교과서들은 핵심역량에 관심을 갖고 교수·학습과 평가의 일관성 확보에 주의를 기울이며 집필되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교과서 집필진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문 교육 연구자들의 관심 부족에서 기인한 문제이다. 교육과정이 바뀌면 당연히 새로운 교과서 개발이 있을 것이므로 사전에 교과서의 수요자인 교사나 학생들의 기존 교과서에 대한 인식과 개선 요구 사항들을 연구해서 공유했어야 하는 것이다.⁵⁾ 그래도 2015 교육과정 개정을 전후하여 교과서 개발 방향에 대한 연구가 있었던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다.⁶⁾

2. 한문과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과 교과서 개발

교육과정 총론이나 한문과 교육과정이 갖는 영향력이 크기는 하지만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인정 기준’만큼 직접적인 것은 아니다. 시간에 쫓기며 바쁜 와중에 교과서 집필에 투입된 집필진의 눈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편찬상의 유의점’과 ‘인정 기준’이다. ‘인정 기준’은 선언적이고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압박감이 덜하지만, ‘편찬상의 유의점’은 교과서 개발 및 집필을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통제하는 기제이다. 다음은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인정도서 개발 편찬상의 유의점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1. 교과서의 개발 방향

(1) (2) 생략

(3)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적합하며, 핵심역량 함양을 도모하는 실생활 중심의 교과서를 개발한다.

(4) 일상생활과 연계되어 이해하기 쉽고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를 개발한다.

(5) 학습자의 창의력과 사고력, 탐구력을 기를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교과서를 개발한다.

(6) 생략

2. 교과서의 구성 체제

(1) 학습자의 자기 주도 학습과 한문 능력의 효율적인 신장이 가능하도록 창의적으로 구성한다.

(2)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 ‘내용의 영역과 기준’, ‘교수·학습 방법’, ‘평가’를 유기적으로 관련지어 단원을 구성한다.

(3) 각 단원의 전개 및 구성 체제는 영역별, 제재별, 학습 목표별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한다.

4) 교육부(2017) 22-24면 참조

5) 국어과의 경우 김동욱(2015)의 「국어 교과서 단위 구성 방식과 체제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가 있다.

6) 윤재민(2016), 윤지훈(2016), 윤지훈(2014), 허철(2016) 등

7)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인정도서 개발을 위한 교과별 편찬상의 유의점 및 인정 기준(충청북도교육청 분

(4) 각 단원은 교수·학습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표 중심, 과정 중심, 활동 중심으로 구성한다.

3. 내용의 선정 및 조직

가. 내용의 선정 <생략>

나. 내용의 조직

(1), (2), (3) 생략

(4) 일상생활과 연계되어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고 교과 역량 함양 및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용을 조직한다.

(5) 학습자의 능동적인 자기 주도적 학습과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조직한다.

(6)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조직한다.

다. 내용의 수준과 범위 <생략>

4. 기타

(1), (2), (3), (4), (5), (6), (7) 생략

(8) 교과서 분량은 부록을 포함하여 180쪽이며, 1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⁷⁾

차차 후술하겠지만 이번 한문과 교과서들은 위의 사항들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있는 ‘4. 기타 -(8)’의 교과서 분량 부분이다. 교과서 분량을 부록을 포함하여 180쪽 내외 즉 적으면 162쪽에서 많으면 198쪽으로 교과서를 완성하라는 것이다. 웬만한 월간 저널 두께보다도 얇은 교과서 속에 위와 같이 훌륭한 내용과 요소를 다 구비하라는 것이니까 집필진의 노고가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2/3 분량에다가⁸⁾ 훨씬 더 좋은 내용과 학습 활동을 압축해서 포함시키는 요구이므로 교과서의 외적 체제와 내적 체제는 물론이고 활자의 크기나 삽화의 크기 등 모든 장치와 요소들마다에 집필진의 엄청난 고뇌의 땀들이 스며들게 되는 것이다.

III. 한문과 교과서의 구성 방식과 구성 체제

1. 단위 구성 방식

단위 구성 방식은 한 단원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떤 기제에 의해 묶여져 있는지, 또 각각의 단원이 어떤 관계로 배열되어 있는지와 관련된다. 하나의 단원을 하나의 통일된 단원으로 묶는 방식 그리고 이들 단원과 단원이 배열되는 방식이 바로 단위 구성 방식이다.⁹⁾ 김왕규의 연구에서는 단위 구성 방식을 두 가지 층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대단

답 인정도서)

8) 2009 개정 한문과 교과서들은 부록을 포함하면 300쪽을 넘기는 것들이 많다. 일례로 필자의 소속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천재교육)는 부록을 포함하면 그 분량이 무려 336쪽에 이른다.

9) 정혜승(2002), 78면 참조

원을 묶는 기제나 각 대단원 사이의 배열 관계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의 대단원 내에서 개별 소단원의 학습 내용이나 활동을 어떤 원리에 기초하여 조직, 전개할 것인가라고 하였다.¹⁰⁾ 그러면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한문 교과서들의 단원 구성이 주제·소재, 문종, 영역 그리고 목표 등의 기제가 혼합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또 대단원 내의 개별 소단원들은 개별적, 분절적 조직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파악했다.¹¹⁾

결과부터 말한다면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문I 교과서 대부분이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들과 단원 구성 방식에서 차이가 없다. 다만 일부 교과서에서 다소의 파격을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이 크게 달라진 면이라고 하겠다. 일단 각 교과서들의 대단원 구성 방식을 하나씩 나열하며 살펴본다.¹²⁾

교과서 A는 총 8개의 대단원과 2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하였다. 크게 보면 ① 대단원-②소단원-③소단원-④소단원-⑤대단원 마무리하기 방식으로 되어 있다. 대단원 도입부에는 대단원명, 소단원명, 도입 글, 삽화 등을 배치하였고 아울러 대단원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어 2-3개의 소단원이 이어지고 대단원 후반부에 대단원의 주요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부분을 두었다. 특이하게 I, IV, VI, VIII 등 4개의 대단원 말미에 ‘놀이 마당’이라 명칭하고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 활동들을 직접 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장치를 두었다.

교과서 B는 대단원 → 소단원 → 단원마무리(2개 대단원에 ‘생각 더하기’ 추가)로 편성하였다. 이 교과서는 단원의 마무리 부분이 독특하다. 대부분 교과서들의 단원 마무리는 ‘정리와 평가’의 방식이 주를 이루는데 이 교과서는 한 페이지에 ‘점검하기’ 활동을 담고 있다. 전체 8개 대단원 중에서 제4, 제8 대단원에서는 단원의 마무리 뒤에 다시 ‘생각 더하기’란을 두어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고전의 교훈에 대하여 생각하고 표현하는 학습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이 교과서의 특징은 대부분의 대단원에서 제재 중심의 방식을 택하였으면서도 일부 단원에서는 그와 방법을 달리하여 대단원 내 각 소단원들이 주제 중심(가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제2단원 내 소단원들이 각각 효도, 어리석음, 역사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성어와 단문들이 구성되었다.

C교과서는 대단원의 설정 없이 25개의 소단원을 가치 중심으로 배열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이는 여타 12종 교과서와 전혀 다른 가장 독특한 점이다. 소단원들의 배열은 ‘성어 → 단문 → 산문 → 한시 → 산문’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좀 더 자세히 나누면 ‘성어 → 단문 → 수신(의 기본) → 수신(의 실천) → 인간 생활의 기본 → 한시 → 현대 생활에 필요한 것 → 우리의 소중한 유산’ 등의 순서로 구성하였다. 즉 문종 중심과 주제 중심이 혼합된 구성을 하고 있다. 대단원 설정 없이 소단원만으로 교과서를 구성한 것은 13종 교과서 중 유일한 시도로서 매우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D 교과서는 총9개의 대단원(한문 학습의 주춧돌을 포함하면 10개임)과 23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단원의 구성 방식은 여느 교과서들과 대동소이하다. 즉 대단원 도입부와 대단원 마무리 그리고 대단원 마무리 평가로 구성하였다. 대단원 도입부에는 대단원의 제목과 성취기준들, 소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을 포괄적으로 요약·정리하였다. 이어서 대단

10) 김왕규(2008), 40면

11) 김왕규(2008), 43-45면 참조

12) 모든 교과서들이 예외 없이 교과서의 속표지와 목차 사이에 교과서의 ‘구성과 특징’란을 두고 대단원과 소단원의 구성 방식과 체제를 소개하고 있다. 교과서별 구성 방식과 단원 구성 체제에 관한 언급은 각 교과서에서 제시한 교과서들의 구성과 특징에 필자가 살펴본 바를 좀 더 엮은 것이다.

원별로 소단원 2-3개를 두고 대단원의 마무리와 마무리 평가로 진행하게 되어 있다. 대단원 마무리와 마무리 평가는 함께 한 면에 상하로 나뉘어 제시되고 있다. 대단원 마무리는 주로 본문 학습과 관련된 학습 요소나 한문 지식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교과서의 대단원 마무리 평가 문항은 모두가 서답형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교과서의 소단원 형성 평가 문항이 모두 5지 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집필진의 장치로 보인다.

E 교과서는 문중 중심으로 대단원을 구성하였다. 교과서 E는 8개의 대단원으로 나누고 대단원별로 2개씩의 소단원(제7 대단원은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하였다. 대단원은 도입부에서 단원 설정의 취지를 밝히고 단원의 주요 학습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대단원 말미에 단원 정리, 단원 평가 부분이 들어있는 것은 대다수 교과서들과 공통점이다. 그런데 E 교과서는 여기에 다시 단원 마무리 활동을 추가하여 대단원이 끝나는 시점에서 학습자들이 협동 학습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장치를 두었다. 독특한 점은 각각의 소단원들이 영역별로 구별하여 사실상 양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소단원 전반부는 교육과정의 ‘한문의 이해’ 영역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한문의 활용’ 영역을 다룬다.

교과서 F는 총 8개의 대단원, 23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졌다. 대단원은 문중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대단원 도입부에는 대단원의 학습 목표와 주요 학습 내용을 일람할 수 있는 글을 제시하고 대단원의 학습 목표들을 소단원 제목들 아래에 제시하였다. 대단원 마무리에는 소단원들의 본문을 재차 보이고 학습요소들을 다루었다. 또 대단원의 형성 평가를 간략하게 보인다. F 교과서의 특이한 점은 매 대단원 마무리 다음에 ‘한문을 즐겁게’란을 2페이지에 걸쳐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선인들의 삶과 가치가 담긴 문화를 학습자들의 흥미 있는 활동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끔 하고 있다.

교과서 G는 8개의 대단원, 23개의 소단원을 설정하였다. 대단원은 문중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대단원은 도입 → 소단원 → 대단원 마무리의 방식이다. 대단원 도입부에는 대단원 제목과 소단원들의 제목을 신고, 각 소단원에서 배울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짧막하게 언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대단원 도입부에서는 소단원들의 제목만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 소단원의 제목 바로 아래 해당 소단원에서 익히거나 느끼거나 깨달아야 할 점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이 교과서의 독특한 점이다. 대단원 마무리에서는 대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점검하도록 하였다. 점검하기 문항들이 모두 5지 선다형 문항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과 옆 날개에 자신의 성취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는 장치를 둔 점이 이색적이다. 각 문항들 옆에 각 문항을 풀이하면서 정답을 찾거나 확인하는데 필요한 페이지 수를 기재해 두기도 하였다. 또 단원의 마무리 다음에 각 대단원마다 ‘聞一知十 활동’란을 두어서 대단원에서 익힌 내용을 바탕으로 본문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탐구, 체험, 협력 학습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교과서 H는 대단원 8개(한자의 기초를 포함하면 9개), 소단원 24개(한자의 기초 부분을 포함하면 29개 단원)이다. 대단원은 문중 중심으로 구분하고 각 대단원마다 3개씩의 소단원을 균일하게 두었다. 대단원은 크게 도입-소단원들-마무리로 구분되며 도입부에서는 대단원에서 배울 주제 관련 내용들을 질문 형식으로 제시하여 학습 동기를 일으키도록 하였다. 세 개의 소단원 다음에 대단원을 정리하는 문항들을 보이고 이어서 그 하단에 대단원 학습을 마치면서 학습자 스스로가 한문과 핵심 역량에 대해 자신의 성취 정도가 어느 수준인가를 점검해 보는 표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의 풍습, 문화, 예술 등을 알아보고 자긍심을 갖게 하는 문화 학습의 장으로 온고지신 문화’란을 두고 있다. 이 교과서의 독

특한 점의 하나는 대단원이 끝나는 마지막 지점에 다음 대단원의 학습 내용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과서 I는 8개의 대단원, 24개의 소단원으로 구성하였다. 대단원과 소단원 모두 문종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대단원은 도입-소단원-대단원 마무리와 같이 삼분되어 있다. 도입 부분은 2면에 걸쳐 있으며 대단원 내의 소단원들의 내용은 소개하고 대단원 설정의 취지와 학습목표를 배치하였다. 소단원들이 끝난 후 대단원 마무리 부분에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 중 핵심을 정리하고 문항들을 통해 대단원 학습 전반을 점검한다. 대단원 마무리 다음에는 ‘활동’란에서 학습자들이 다양한 학습 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 활동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스스로가 활동을 마친 후에 활동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질문 형식으로 배치하였다.

교과서 J는 대단원 8개, 소단원 28개로 구성하여 다른 교과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단원을 많이 넣었다. 대단원은 대단원 도입 → 소단원 배치 → 대단원 마무리로 구성하였다. 대단원 도입부는 대단원을 소개하는 부분으로서 대단원 학습의 길잡이와 소단원 제목 그리고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대단원의 마무리 부분은 다른 교과서들과 유사하되 크게 셋으로 나누어 대단원 정리, 한문의 이해, 대단원 평가 등으로 하고 이들 중 ‘한문의 이해’는 한문 지식을 재점검하는 과정으로 두었다. 대단원 평가의 맨 아래에는 ‘창의·융합’이라 별도로 표하고 본문의 학습 내용과 관련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단원의 마무리 뒤에 ‘놀이 활동’을 한 면 전체에 그 절차와 방법과 함께 학생들이 흥미 중심의 놀이를 하도록 하였고, 또 그 다음 면인 ‘문화를 만나다’에서는 한자 문화권의 특징을 알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하였다.

교과서 K는 성어, 단문, 한시, 산문(인물, 역사, 철학, 문학 등으로 세분) 등의 방식으로 대단원을 구성하고 있다. 대단원이 모두 7개이고 소단원 28개이다. 하나의 대단원에 소단원을 4개씩 포함하고 있다. 대단원은 도입부에서 대단원의 제목과 소단원 제목들을 보이고 있다. 이어서 소단원 4개가 차례로 배열되고 마무리 부분인 단원 정리 부분에서는 한문 지식을 중심으로 단원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대단원 평가 문항을 제작하여 배치하였다. 특이한 점은 모든 대단원의 평가 문항들이 5지 선다형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단원마다 단원의 마무리 후에 ‘문화 人’ 코너를 두어서 한자문화권의 생활 지혜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 코너의 하단에 짚막하게 토의·토론 학습 및 서술·구두 평가 등을 통해 이해력 사고력 창의력 등을 기르도록 하는 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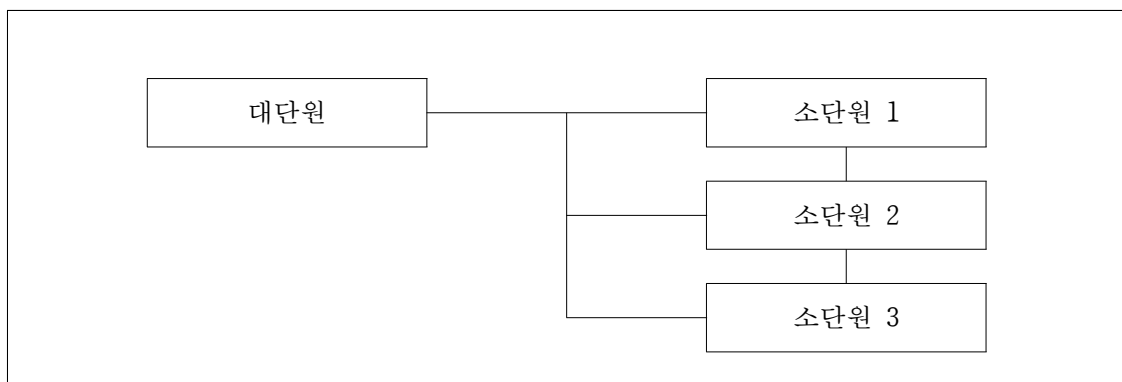
교과서 L은 대단원 수가 6개(한문과의 만남 부분은 대단원으로 보기에 분량이 적음)이고 소단원 수는 24개이다. 대단원은 도입부-소단원-단원의 마무리의 큰 틀을 유지한다. 대단원 도입부에는 대단원명과 소단원명을 제시하고 짧은 단원 설정의 취지 아래 대단원에서 배워야 할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두었다. 대단원 중 마지막 소단원의 형성평가와 대단원의 마무리 사이에 요약기가 있는 한자 성어나 함께하는 프로젝트 등을 배치하여 학습자의 학습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있다. 대단원의 마무리는 대개의 교과서가 ‘정리+평가’의 방식을 보이고 있는데 비하여 이 교과서는 ‘정리+점검+응용’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대단원에서 학습한 핵심 내용과 한문 지식, 일상의 어휘, 평가 등을 차례로 걸쳐 가며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또 대단원 평가 문항 아래에 색상을 달리하여 ‘마무리 자기 평가’란을 두고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성취 정도를 점검하도록 하였다.

교과서 M은 8개의 대단원과 2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하였다. 대단원의 구분은 성어-단문-한시-산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대단원은 도입, 소단원, 마무리의 틀이다. 대단원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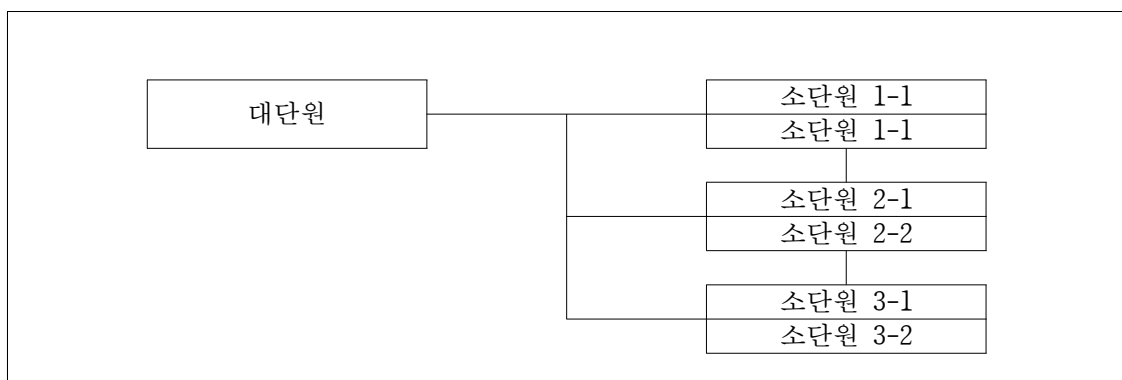
입부가 2면에 걸쳐 있다. 제1면에는 대단원명, 소단원명이 있고 대단원의 성취기준이 개조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제2면에는 한문과 핵심역량과 관련하여 대단원에서 학습과 일상생활을 연계하도록 ‘체험通, 진로通’ 활동란이 있다. 대단원마다 2-3개의 소단원이 있고 나서 대단원의 마무리 부분이 ‘무엇을 배웠을까’와 ‘문제를 풀어보자’ 두 가지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대단원 학습한 것 중 핵심 내용을 회상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단원의 형성평가이다. 이 교과서는 대단원의 평가 문항이 소단원별로 각 소단원의 단원 번호를 달고 뚜렷하게 구획되어 제시되었다. 그리고 학습자가 답을 찾기 어려울 경우에 해당 문항의 해결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서 스스로 풀 수 있도록 ‘되짚어 보기’란에 책의 페이지 수를 알려 주고 있다.

교과서마다 그 나름대로 여러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크게 묶어 보면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방식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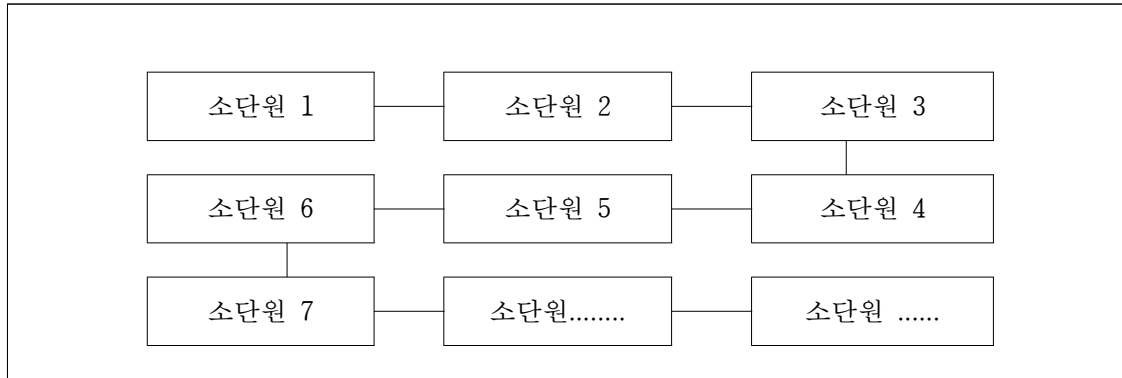
첫 번째는 가장 많은 교과서가 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대단원을 9개 이내로 정하고 각 대단원마다 2-5개의 소단원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13종의 교과서 중 11종이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로는 교과서 E가 시도한 방식으로 대단원 속에 소단원을 배치하되 각 소단원들이 각기 다른 학습활동을 하도록 구안되어 성격이 다른 것들끼리 세트로 묶여 제시된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C가 취한 방식이다. 즉 대단원을 설정하지 않고 소단원들만으로 교과서 전체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한편 대단원을 설정하고 있는 12종의 교과서들은 예외 없이 ‘대단원의 도입—소단원 배치—대단원 마무리’와 같은 3단 구성을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일부 교과서에서 대단원 마무리 다음에 프로젝트 학습이나 통합교과적 활동 등을 넣어 변화를 꾀하였다.

대단원의 구성이 ‘성어—단문—한시—산문’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대단원 안의 소단원들의 배치를 간혹 ‘주제 중심’으로 한 곳이 있다. ‘성어’나 ‘한시’ 대단원 내의 소단원 중에서 주제를 앞세우고 그 주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의 성어나 한시를 넣는 방식이 일부 있었다. 대단원 간의 배열 방식이나 대단원 내 소단원들의 배열 방식이 교과서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된 경우는 없었는데, 한문과의 경우 어느 한 방식으로 대단원을 구성하는 건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다.¹³⁾

2. 단원 구성 체제

교과서 단원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아무렇게나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교과서 단원은 일정한 원리에 의해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 원리는 대체로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다. 교과서가 교수와 학습의 자료인 만큼 교수·학습이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돕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원용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수업에서 특정한 교수·학습 모형이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교과서 순서를 따르기만 하여도 교수·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¹⁴⁾ 교과서들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기준(또는 학습 목표)들을 어떤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달성하려 하는가가 논의의 초점이 된다. 본고에서는 일단 13종의 교과서들이 각기 어떻게 소단원을 구성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교과서 A는 하나의 소단원을 모두 6면으로 편성하였다. 소단원원 ‘①열린 마당/본문(2면) → ② 익힘 마당 → ③ 생활 마당 → ④채움 마당 → ⑤문화/읽기 마당 → ⑥어울림 마당 → ⑦ 이름 마당 → ⑧ 쓰기 마당’ 등과 같이 여러 마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면에는 본문 위로 소단원명과 학습 목표가 있고 읽기 전 활동 부분으로 ‘열린 마당’을 두어 소단원의 학습 내용을 예측하게 한다. 제3면 ‘익힘 마당’에서는 본문을 읽고 풀이하면서 의미와 주제를 파악하고 날개 부분을 이용하여 한문의 기초 지식을 소개한다. 제4면의 ‘생활 마당’은 일상용어와 학습 용어를 익히는 곳이고 하단의 ‘채움 마당’은 보충 및 심화 학습 내용 부분

13) 국어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문중 중심으로 구성되고 간혹 목표 중심의 방식이 적용되기도 하였다. 최미숙(2014)

14) 최미숙 외, (2014), 69면 참조

이다. 제5면의 상단에 있는 ‘문화 마당’은 교육과정 중 ‘한문과 문화’에 해당하는 것을 익히는 곳이다. 일부 소단원에는 이곳에 ‘읽기 마당’을 두어 읽을 거리와 사진 및 삽화를 통해 사고력과 통합교과적 사고 능력을 기르고자 하였다. 그 아래의 ‘어울림 마당’은 체험 중심의 활동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 능력이나 인성 역량을 기르고자 하는 부분이다. 소단원 마지막 제6면에는 좌우로 구분하여 좌측에 ‘이름 마당’에서 형성 평가 문항을 보이고, 우측에 ‘쓰기 마당’에서 필순에 맞게 한자 쓰기를 연습하게 하고 있다. 대체로 읽기 전 활동 - 읽는 중 활동 - 읽기 후 활동으로 구분되는 구성 체제이며 교육 과정에서의 성취 기준과 학습 요소들을 빠짐없이 챙겨 신고자 하는 노력이 보인다. 신습 한자: 이 교과서는 균등한 신습 한자 배분에 역점을 두어서 각 소단원별로 42자씩 균일하게 신습 한자를 공부하도록 구상하고 소단원 도입과 제재 본문이 실려 있는 양 페이지 하단에 나누어 배치하였다.

교과서 A	1면	2면	3면	4면	5면	6면
	학습목표	본문	본문풀이	한자 어휘	문화/인성	형성평가
	핵심역량	신습한자	한문지식	어휘 활용		한자 쓰기
	본문					
	신습한자					

B교과서는 소단원들은 각각 6면으로 구성하였다. ①생각 짝 띄우기 → ② 지식 꽃 피우기 → ③ 본문 → ④ 본문 풀이 → ⑤햇살 한 줌 → ⑥ 실천 열매 맺기 → ⑦ 어휘력 가꾸기 → ⑧ 해결 씨앗 터뜨리기의 순서이다. 도입 (신습 한자) → 제재 본문 → 본문 풀이 → 읽기 자료/한문 지식 → 주제 관련 학습 활동 → 어휘(일상용어, 학습 용어) → 소단원 형성평가의 순서인 것이다. 소단원들은 본격적인 제재 글 학습을 앞두고 본문 내용을 연상할 수 있는 자료나 질문을 배치하여 학습자가 읽기 전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각 짝 띄우기’이다. 이 교과서가 다른 교과서와 구별되는 특징 중의 하나가 소단원 도입부 바로 이곳이다. 여기에는 소단원명과 학습 목표가 들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방식은 신습 한자들을 모두 이곳 하단에 집중 배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문의 것은 물론이고 소단원의 다른 면이나 활동 부분의 신습 한자도 모두 이곳에 소개되어 있는 것이다. 제2면에 본문 학습을 통해 알아야 할 것들을 주지시키는 ‘지식 꽃 피우기’가 있고 본문이 이어진다. 제3면에는 본문 풀이 부분으로 본문 내용의 뒤에 본문에서 학습할 문장과 풀이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쉽게 본문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독음은 제공하지 않았지만 거의 모든 글의 풀이와 설명이 들어 있다. 제4면에는 ‘햇살 한 줌’에서 본문 감상에 도움이 되는 읽기 자료나 한문 지식을 소개하고, 그 하단에 ‘실천 열매 맺기’를 마련하여 본문의 주제와 관련된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성어의 유래를 조사하여 쓰기, 모둠별 역할놀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5면에 ‘어휘력 가꾸기’에서는 본문의 한자를 중심으로 하여 일상용어와 학습용어를 익히게 하고, 제6면의 ‘해결 씨앗 터뜨리기’ 소단원 형성평가 부분이다.

교과서 B	1면	2면	3면	4면	5면	6면
	소단원도입	주안점	본문풀이	실천 활동	일상용어	형성평가
	학습목표	본문			학습용어	
	사고력활동					
	신습한자					

C교과서는 각각의 소단원이 6면씩으로 이루어졌다. ① 터 닦기 (동기유발) → ② 씨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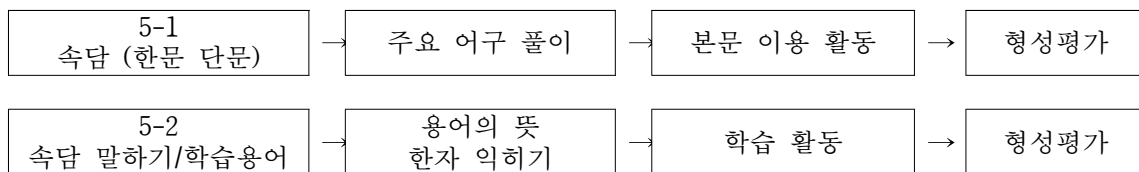
심기(학습목표) → ③ 짝 띄우기(본문 풀이, 학습 마당) → ④ 나무 키우기(인성마당, 문화 마당) → ⑤ 꽃 피우기(학습활동, 수업 활동) → ⑥ 열매 맺기(형성평가, 수행평가)의 순서를 취하고 있다. 제1면 ‘터 댈기’에서는 학습 내용의 이해를 돕고 학습자의 학습 동기 유발을 도모한다. 제2면 ‘씨앗 심기’에서는 학습 목표를 본문의 우상단에 제시한다. 제3면에서는 본문 풀이와 학습 마당을 한 페이지에 담고 있는 ‘짝 띄우기’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본문 해석 순서와 풀이를 제공하고 같은 면 아랫부분의 ‘학습마당’에서는 한자 한문 및 한시의 기초 지식을 싣고 있다. 제4면 ‘나무 키우기’는 ‘인성 마당’과 ‘문화 마당’을 통하여 교육과정의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한문과 인성’, ‘한문과 문화’의 3가지 핵심 개념을 나무 기둥으로 삼아 융합교육 단계로 설정하였다. 제5면의 ‘꽃 피우기’에는 본문 학습에서 조금 더 심화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함께 학습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6면의 ‘열매 맺기’에서는 소단원의 마무리로 형성평가와 수행평가의 기능을 담당하는 평가 문항이 실려 있는데 특기할 점은 열매 맺기와 같은 페이지의 상단 1/3면 정도에 ‘한문의 디딤돌’란을 통하여 부수가 같은 한자를 익히는 부분과 필순이 다소 어려운 한자를 쓰는 연습란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신습 한자는 본문의 하단(제1면)을 비롯하여 제3면과 제4면 그리고 제5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활동의 하단에 소개되어 있고 형성 평가가 들어 있는 마지막 제6면에만 신습 한자 소개가 없다.

교과서 C	1면	2면	3면	4면	5면	6면
	동기유발	학습목표	본문풀이	인성 활동	수업 활동	부수익히기 한자쓰기
	본문	본문	한자어휘 지식	문화 활동	신습한자	형성평가
	신습한자		신습한자	신습한자		

D 교과서의 소단원은 각각 6면씩으로 구성하였다. ①제목과 학습목표 → ②소단원도입부 → ③본문 → ④신습 한자 → ⑤내용 점검하기 → ⑥스스로 학습하기 → ⑦생각 넓히기 → ⑧한자 프리즘 → ⑨문화산책 → ⑩점검하기 등의 순으로 배열하였다. 소단원은 제1면과 제2면에 걸쳐 본문을 제시하면서 제1면의 상단에 제목을 배치하고 그 아래 짤막한 글을 통해 소단원 본문의 읽기 전 활동을 하게 하는 소단원도입부가 있고 제2면 우상단에 소단원의 학습목표를 제시하였다. 신습 한자는 900자를 소단원별로 40자 내외로 고르게 배치하되 본문의 것은 제1면 하단에 소개하고 나머지 교수·학습 활동 중 등장하는 것들은 소단원 맨 마지막인 ‘점검하기’와 같은 페이지의 하단에 나열하였다. ‘내용 점검하기’는 대부분 한 줄 정도로 짤막하게 본문의 사실적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다. ‘스스로 학습하기’는 학습자가 본문의 성어나 문장들을 다시 한번 자신의 힘으로 공부하는 장치이다. ‘생각 넓히기’에서는 본문 학습과 관련하여 토의 토론 모듈 학습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본문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를 확충하고 ‘문화’를 익히도록 하였다. ‘한자 프리즘’은 본문의 한자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를 설정하여 한자 어휘에 관한 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 산책’에서는 본문 내용과 관련된 한자 문화권의 문화를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로 정하여 학습자가 흥미 있게 공부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점검하기’는 소단원 형성평가 부분인데 특이한 것은 모든 문항을 5지 선다형으로 제작하여 학교 시험 장면에서의 활용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교과서 D	1면	2면	3면	4면	5면	6면
	주안점	학습목표	본문 풀이	본문/문화 학습활동	한자·어휘	형성평가
	본문	본문	한문 지식	핵심역량	한자문화권	신습한자
	신습한자	내용이해 점검				

교과서 E는 소단원은 각각 4면씩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교과서는 외형상 그리고 내용상 중층적인 구성을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소단원별로 단일 제목 하에 본문을 중심으로 하고 다양한 학습 활동들을 배치시키고 있는 것과 달리 E 교과서는 ‘차례’에 아예 하나의 소단원을 형식적으로도 2분화하였다. 일종의 한 지붕 두 가족의 형태라고 하겠다. 소단원의 배열이 ‘영역별’로 되어 있으며, ‘한문의 이해’ 영역과 ‘한문의 활용’ 영역이 각기 다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한문의 이해’ 영역 부분은 크게 읽기 전 활동 → 본문 학습 활동 → 읽기 후 활동의 단계를 큰 틀로 하여 ‘①배움 열기 → ②본문 → ③주요 어구 풀이 → ④역량이 크는 숲 → ⑤활동 → ⑥평가’의 순서대로 배열하였고, ‘한문의 활용’ 영역 부분은 ‘①생각 쌓기 → ②생각 다지기 → ③짚어 보기 → ④부수로 한자 익히기 → ⑤역량이 크는 숲 → ⑥ → 활동 → ⑦평가’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예컨대 제5단원은 5-1 생활 속의 경험과 5-2 속담과 과학이란 제목이고 둘 다 속담을 다루되 앞에서는 속담을 한문 단문으로 익히고 뒤에서는 속담의 활용을 익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으로 인해 이 교과서의 한문 제재 수가 다른 교과서에 비해 적는데 그 대신 주제와 관련한 학습 활동 부분이 늘어나게 되었다. 신습 한자는 본문의 경우에는 본문의 페이지 하단에 배치하고 그 밖에 각종 활동 부분은 우측 날개에 배치하였다. 이들 중 ‘역량이 크는 숲’은 본문과 관련된 문화 상식이나 보충 학습 자료를 제시하여 교육과정에서의 한문과 핵심 역량과 결부되도록 하면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교과서 E	한문의 독해				활동(한문의 활용)			
	1면	2면	3면	4면	1면	2면	3면	4면
	도입	목표	풀이	어휘 지식	생활 광고	일상용 어휘 학습용 어	주요 어휘 풀이	활동 (어휘, 사고력)
	본문	본문	한자 지식	평가		자료 (사고력)	한자 지식	평가
	신습 한자	신습 한자	핵심 역량	신습 한자			핵심 역량	

교과서 F의 소단원들은 각각 6면씩으로 되어 있다. ‘① 제목과 학습목표 → ②본문 학습 전 예비 단계 → ③읽고 풀이하기 → ④ 어휘 활용하기 → ⑤문화와 활동하기 → ⑥확인하기’의 순이다. 신습 한자는 본문에 들어 있는 것은 우측 날개에, 어휘 활용하기 부분의 것들은 해당 페이지 하단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였다. 제1면의 본문 학습 전 예비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본문 학습에서 주의를 기울여 파악해야 할 점이나 긴 이야기의 경우 본문 내용 전

부분의 줄거리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역시 본문이 실려 있는 제2면의 상단에 소단원 학습목표를 제시하였다. 제3면의 ‘읽고 풀이하기’는 본문의 문장 전체를 학습자 스스로 읽고 풀이할 수 있도록 독음과 풀이를 제공하고 있다. 제4면의 ‘어휘 활용하기’에서는 일상용어 및 학습 용어를 비롯하여 본격적인 한자 어휘 학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5면의 ‘문화와 활동하기’ 부분은 단원의 핵심 주제나 주요 학습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코너이다. 소단원의 마지막인 제6면엔 다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서술형과 선다형 문항의 형성평가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형성평가 문항 바로 왼쪽에 ‘창의 활동’란을 두어서 본문의 내용을 학습자 본인이나 현 상황에 비추어 적용하고 해석하는 활동을 하게 하였다.

교과서 F	1면	2면	3면	4면	5면	6면
	주안점	학습목표	본문풀이	한자·어휘	문화 활동	인성/창의 활동
	본문	본문	신습한자	어휘 활용		형성평가
		신습한자		신습한자		

교과서 G는 소단원을 각각 6면씩으로 편성하였으며, ‘①본문 → ②본문 익히기 → ③한자와 어휘/활용하기 → ④실력 다지기’의 순서로 구성하였다. 소단원의 본문 앞에 제목과 학습 목표를 이어서 제시하고 그 아래 본문을 읽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을 보이는 ‘생각 열기’를 두었다. 본문을 양면에 걸쳐 읽고 본문이 끝나는 우하단에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글을 더하여 심미적 감성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이해의 길잡이’를 두었다. 교과서 G는 해당 소단원에서 학습해야 할 신습 한자들을 본문이 실린 두 페이지의 하단에 모두 소개하였다. 페이지를 넘기면 ‘본문 익히기’가 있어 본문에 대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장치하였는데 일부 문장은 풀이를 전부 제시하고 일부 문장의 주요 부분을 빈칸을 완성하면서 학습하도록 하였다.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본문 탐구’란에서 본문의 내용을 탐구 및 정리하면서 정보처리 능력을 기르게 하였다. 다음 페이지에는 ‘마음 통 문화 통’ 코너를 통해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읽음으로써 인성 역량이나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하고, 페이지를 양분하여 아래에는 ‘창의융합발전소’란 명칭 하에 본문의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교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학습 활동을 제시하였다. ‘한자와 어휘/활용하기’ 부분은 한자와 어휘를 익히고 활용하는 학습의 장이고, 마지막으로 소단원 형성 평가 문항이 담긴 ‘실력 다지기’를 배치하였다. 특이한 점은, 소단원 학습 활동 부분 부분이 한문과 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표기하여 명시함으로써 교수·학습 장면에서 해당 부분이 어떤 핵심 역량을 기르는 활동 인지를 인지하고 활동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과서 G	1면	2면	3면	4면	5면	6면
	학습목표	본문	본문 풀이	활동 인성역량	한자어휘 활용하기	형성평가
	읽기전활동	핵심역량 (심미적감성)	정보처리 역량	창의적사고 역량		
	본문	신습한자				
	신습한자					

교과서 H의 소단원들은 6면씩으로 편성되어 있다. ‘①본문 → ② 독해 공감 → ③활동 공감 → ④ 한자 어휘 공감 → ⑤소단원 평가’의 순서로 전개된다. 본문의 제1면과 제2면에

걸쳐 실려 있고, 제1면에서 소단원 제목과 주요 학습 내용을 소개하고 본문이 실린 제2면의 상단에 본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약간의 자료와 청유형으로 구성된 질문을 배치하였다. ‘독해 공감’에서는 본문의 문장들을 독음과 풀이와 함께 실어서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본문과 관련된 한문 지식에 대한 설명이 있고 작가, 작품 등에 대해 이해하는 란을 두었다. ‘활동 공감’에서는 읽기 자료를 추가하여 심화 학습이 되도록 하고 그 아래 본격적으로 학습자들이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조건에 따라 스스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자 어휘 공감’에서는 한자, 일상용어와 학습 용어를 학습하게 하였다. 이 교과서는 일상용어와 학습 용어를 주로 삽화를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다. 소단원 마지막인 제6면을 세로로 양분하여 좌측에는 성어가 일상에서 적용되는 상황을 만화로 제작하였다. 이러한 만화를 통한 성어 학습은 소단원 제1과부터 제24과까지 시종일관하고 있다. 바로 앞 페이지의 삽화를 이용한 용어 학습과 만화를 활용한 성어 학습은 이 교과서의 큰 특이점이다. 끝으로 소단원 형성평가 부분을 두고 서술형과 선다형 문항을 섞어 제시하였다. 신습 한자는 해당 소단원에서 학습해야 할 것들을 모두 본문의 좌우 날개에 집중적으로 제시하였다.

교과서 H	1면	2면	3면	4면	5면	6면
	학습목표	사고력함양	본문 풀이	문화 학습	일상용어	성어 학습
	본문	본문	보조 자료	학습 활동	학습 용어	형성평가
	신습한자	신습한자				

교과서 I의 소단원은 각각 6면씩으로 짜여 있다. ‘①본문 → ②본문 익히기 → ③한걸음 더 → ④어휘력 키우기/학습용어 살펴보기 → ⑤ 읽을 거리 → ⑥ 실력 다지기’의 순서로 되어 있다. 좌우 양면으로 본문이 배치되어 있는데 제1면인 좌면 상단에 제목과 읽기 전 활동[생각 열기]를, 우면 상단에 소단원의 학습 목표를 제시하였다. 제2면의 ‘본문 익히기’에는 본문의 문장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고 뜻을 풀이하여 두었다. 그 아래에 ‘한 걸음 더’에는 한자 한문 지식을 정리하였다. 제4면의 ‘어휘력 키우기’에는 한자 어휘를 부수, 모양, 뜻을 중심으로 익히게 하고 있다. ‘어휘력 키우기’ 아래에는 학습 용어를 익히거나 성어의 유래 또는 본문과 관련한 용어 등을 소개하였다. 제5면 ‘읽을거리’ 부분에서는 본문 내용과 연계하여 한문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읽기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제6면에 소단원 형성 평가를 위해 ‘실력 다지기’란을 두었는데 특이한 점은 학습 용어를 학습한 단원에서는 별도로 ‘학습 용어 퀴즈’란을 통해 정리하게 함으로써 학습 용어를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하였다. 신습 한자는 본문의 것은 해당 페이지 하단에 소개하고 어휘력 키우기와 읽을거리에 들어있는 것들은 역시 해당 페이지 하단에 소개하였다. 제6면의 ‘실력 다지기’ 부분 외에는 모든 활동 부분 페이지들에 신습 한자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 I	1면	2면	3면	4면	5면	6면
	읽기전활동	학습목표	본문 풀이	한자 어휘	한문문화	형성평가
	본문	신습한자	심화 내용	어휘 활용	신습한자	
	신습한자		신습한자	신습한자		

교과서 J는 ‘①본문 및 풀이 → ②넓히고 키우기 → ③어휘 넓히기 → ④꼭지 읽기 → ⑤실력 다지기’와 같이 구성하였는데 비교적 단순하고 뚜렷한 구성이 특징이다. 또 J 교과서는 소단원별 페이지 수가 4면으로 다른 교과서들에 비해 적은 편이다. 본문과 함께 시작

되는 소단원 도입부에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소단원의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하여 학습할 방향을 설정하게 하였다. 본문을 먼저 앞에 두고 바로 다음에 본문 풀이 내용을 배치하는 대부분의 교과서들과 달리 이 교과서는 본문 바로 아래에 교사와 학생이 함께 탐구할 수 있도록 빈칸과 물음 풍선을 배치하고 있다. 한시와 한문 산문의 본문은 한 면에만 싣고 바로 이어 풀이와 물음 풍선을 배치하였는데 다른 교과서들이 대부분 본문을 두 페이지에 걸쳐 싣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이다. 제2면의 본문 끝 아래에 ‘넓히고 키우고’에서의 물음들은 학습자의 열린 사고와 창의적인 답별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을 두고 있다. 제3면의 ‘어휘 넓히기’는 본문에서 배운 한자나 어휘를 확장하여 타 교과 학습 영어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를 학습하도록 하되 ‘한자-어휘-문장’단위로 조직하였다. 소단원의 후반부에는 ‘꼭지 읽기’란을 두어 본문과 연계되는 타 교과의 학습 내용, 인성 함양 그리고 가치관 형성 등에 유익한 자료를 제시하여 참고하게 하였다. 끝으로 ‘실력 다지기’에서는 학습 목표 도달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 문항을 제시하였고 그 옆 날개 부분에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핵심 역량 소화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였다. 신습 한자는 본문의 것은 본문 하단에 어휘 넓히기에서 익히는 것은 해당 페이지 하단에 소개하고 있다.

교과서 J	1면	2면	3면	4면
	도입	학습목표	한자 어휘	읽기자료
	본문(풀이)	본문(풀이)	성어	(인성,문화)
			신출한자	형성평가

교과서 K는 소단원이 모두 28개로 13종 교과서 중에서 소단원이 가장 많은 교과서 중 하나이다. 소단원은 모두 4면씩으로 ‘① 본문 → ②풀이 쓱쓱 → ③본문 쓱쓱 → ④어휘 쓱쓱 ⑤이야기 술술 → ⑥ 평가 술술’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소단원의 제1면에는 소단원 제목, 학습 목표, 본문, 신습 한자 등이 들어 있다. 제2면에는 ‘풀이 쓱쓱’은 본문의 학습할 내용을 학습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곳이다. 특이한 것은 타교과서들에서 풀이를 보여준 것과 달리 성어나 문장의 독음만을 주고 풀이나 주요 내용 등은 학습자가 직접 손으로 써서 채우며 공부하도록 빈칸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본문의 풀이가 끝난 후 바로 아래 여백에 학습자가 본문의 내용을 참고해서 해야 할 성찰적 활동들을 짚막하게 제시하였다. 제3면에는 ‘본문 쓱쓱’과 ‘어휘 쓱쓱’이 들어 있다. ‘본문 쓱쓱’은 본문 관련 배경지식을 확인하거나 관련 내용을 보충할 수 있도록 구성한 부분이다. ‘어휘 쓱쓱’은 한자의 연원과 쓰임을 알려주고 한자 어휘력 향상을 도모하는 부분이다. 끝으로 제4면에는 ‘이야기 술술’과 ‘평가 술술’로 구성하였는데 ‘이야기 술술’은 선인의 전통과 문화 및 지혜를 알 수 있도록 읽을 자료를 제시한 것이고 이어서 형성 평가 문항을 담은 ‘평가 술술’이 있다.

교과서 K	1면	2면	3면	4면
	학습목표	본문풀이	한문 지식	읽기 자료
	본문	신습한자	한자 어휘	(인성,문화)
	신습한자		어휘 활용	형성평가

교과서 L은 하나의 소단원을 6면으로 엮었다. 소단원은 ①생각을 여는 활동 → ②스스로 다지는 본문 → ③ 한문으로 여는 세상 → ④ 실력을 키우는 평가 등으로 구성하였다. 다른 교과서와 달라 눈에 띄는 점은 소단원의 도입부이다.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소단원의 도입

을 본문 제목 아래에 짤막한 글을 이용하여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 교과서는 소단원의 제1면 전체를 도입 활동으로 채우고 있다. 즉 본문 학습 전에 배경지식을 활성화하여 학습 내용을 쉽고 흥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글을 제시하고 이어서 같은 면 하단에 ‘학습 계획 세우기’ 공간을 마련하였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신습 한자의 배치와 그것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구성 요소마다 빠짐없이 신습 한자를 넣었다. 도입부인 ‘생각을 여는 활동’부터 일상용어와 학습 용어를 익히는 ‘한문으로 여는 세상’까지 모두 신습 한자가 들어 있다. 그리고 한자 앞에 ‘□’를 두어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지 여부를 표시하면서 관심을 갖고 익힐 수 있도록 장치하였다. 제4면 ‘스스로 다지는 본문’에는 본문 문장의 풀이를 독음과 풀이 순서까지 상세하게 보여 주고 또 본문 풀이에 도움이 되는 보충·심화 설명을 더하여서 학습자 스스로 충분히 학습하게 하고 있다. 또 한문 지식을 제공하고 이해를 돕는 자료도 추가되어 있다. 제5면 ‘한문으로 여는 세상’에는 본문 주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글과 이미지 자료를 바탕으로 일상용어와 학습 용어를 익히게 하고 있다. 끝으로 제6면에서는 평가 문제를 통해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사고력, 응용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같은 면 아래에 ‘소단원 자기 점검’란을 두어 학습자가 스스로 소단원에 대한 학습 정도를 점검하도록 하였다. 소단원 전반에 ‘자기주도 학습’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교과서 K	1면	2면	3면	4면
	학습목표	본문풀이	한문 지식	읽기 자료
	본문	신습한자	한자 어휘	(인성,문화)
	신습한자		어휘 활용	형성평가

교과서 M은 각 소단원들이 6면씩으로 편성되어 있다. ①본문 → ②한자·어휘 → ③ 본문 풀이/역량 개발 활동 → ④ 문화와 인성 → ⑤ 스스로 평가 등의 순서이다. 소단원 제1면의 본문 제시 부분 상단에 소단원명과 학습목표가 있고 이어서 도입 질문이 담긴 ‘생각 톡톡’ 코너가 있다. 이 ‘생각 톡톡’에는 간단하지만 글의 주제를 잘 암시하는 작은 삽화가 들어 있고 학습자가 본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본문의 내용과 연관된 짧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역시 본문이 실려 있는 제2면 우측 상단에는 소단원의 핵심 질문을 하고 있다. 다른 교과서는 본문 풀이가 앞서고 한자·어휘가 뒤에 있는데 이 교과서는 제3면에 한자·어휘를 앞세웠다. 같은 면의 하단에는 학습 용어를 짧은 글 속에 포함하여 공부하도록 했다. 제4면에는 본문 풀이가 있다. 본문의 문장들을 칸막이 노트 형식에 담고 풀이를 실었다. 같은 면 하단에 본문과 관련하여 한문과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했는데 이는 아마도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한 장치로 보인다. 본문 풀이와 바탕 색상을 다르게 하여 돋보이게 하고 표지도 세우고 삽화와 함께 ‘의사소통 역량’을 비롯하여 ‘창의적 사고 역량’, ‘인성 역량’, 등 5가지 핵심 역량과 관련된 활동을 하도록 고안하였다. 제5면에는 ‘문화와 인성’으로 이름 붙여서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 중에서 ‘문화’와 ‘인성’ 등에 관한 학습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끝으로 제 6면에는 소단원 형성평가 문항이 있다. 독특한 것은 형성 평가 문항의 형식이 학교의 지필 평가 문항 형식과 같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제시문을 중심으로 3-4개의 문항을 묶어서 개발하였는데 선다형 문항이 많고 서술형 문항이 적은 비율로 되어 있다.

	1면	2면	3면	4면	5면	6면
교과 서 M	학습목표	핵심질문 (전개)	한자 어휘	본문 풀이	문화	형성평가
	핵심질문 (도입)	신습한자	학습 용어	한문 지식	인성	자기 점검
	본문			핵심 역량		
	신습한자			성어		

한문과 교과서의 소단원 구성 체제는 명칭이 다소 다르고 앞뒤 순서가 약간 바뀌었을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되는 원인이 한문과 교과서 집필자들의 성의 부족이나 창의력 빈곤 때문이 결코 아니다. 교과서 집필자의 면면이 오랫동안 한문 교육에 관해 연구하고 한문 교육을 직접 담당하면서 함께 고민을 나누던 이들이다. 근본적 원인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고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제약 아래에서 부득이하게 창출한 결과물이라서 유사한 것이다. 거기다가 교과서가 바뀔 때마다 다양성과 창의성의 발목을 잡았던 숙명적 요인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이다. 900자의 기초 한자를 교과서 전체에 두루 퍼서 소단원마다 가급적 균등한 숫자의 기초 한자를 익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야말로 교과서 체제 선정은 물론이고 단원 구성 체제의 다양성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소단원의 구성 체제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본문의 체재와 나머지 활동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제약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데에 힘쓰는 것만으로도 기진맥진하여 구성 체제의 효율이나 효과에 만전을 기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역량과 시간의 부족 때문에 13종 교과서들의 소단원 구성 체제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교과서들 간의 공통점을 찾아 묶고 차이점을 부각시키면서 분류하고 범주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연구를 시작했지만 연구의 출발점에 불과한 교과서 살펴보기 단계에서 허덕이다가 멈추고 말았다. 교과서 집필진이 심혈을 기울여 구성하였으므로 전보다 현저하게 개선된 구성 체제가 되었으리라고 기대한다. 앞으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상세한 분석의 결과가 우리 앞에 놓일 것이다.

이번 기획 발표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봄부터 백방으로 일본의 한문 교과서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구하지를 못했다. 일본어를 모르는 필자로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일본대사관까지 전화해 보고는 포기했다가 인터넷사이트에서 꽤 비싼 경비를 지불하고 중고(中古) 서적을 구입했다. 하지만 막상 교과서를 받아 펴 보고는 너무나 단순(單純) 무비(無比)한 구성을 보고는 허망하기까지 했다. 대단원의 구성 방식은 우리와 유사했지만 소단원의 구성 체제는 지극히 간단해서 소단원이 점유하는 교과서의 면수가 1-2면에 불과할 정도이다.¹⁵⁾

일본에 비하면 우리 한문과 교과서가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기도 하다. 다만 일본의 교과서를 보면서 인상적으로 떠오른 생각은 우리 교과서가 조금 복잡하다는 것이었다. 우리도 한문과 교과서를 조금 단순하게 구성하고 교사용지도서를 복잡(?)하게 구성하여 제작하고 보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차체에 교과서 자유 발행제의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문헌

<자료>

- 오형민 외, 『고등학교 한문I』, 금성출판사, 2017 전시본
 송재소 외, 『고등학교 한문I』 다락원, 2017 전시본
 이향배 외, 『고등학교 한문I』 대명사, 2017 전시본
 신표섭 외, 『고등학교 한문I』 대학서림, 2017 전시본
 박성규 외, 『고등학교 한문I』 동아출판, 2017 전시본
 심경호 외, 『고등학교 한문I』 미래엔, 2017 전시본
 이동재 외, 『고등학교 한문I』 비상교육, 2017 전시본
 김영진 외, 『고등학교 한문I』 씨마스, 2017 전시본
 김용재 외, 『고등학교 한문I』 와이비엠, 2017 전시본
 김성중 외, 『고등학교 한문I』 이젠미디어, 2017 전시본
 진재교 외, 『고등학교 한문I』 장원교육, 2017 전시본
 안재철 외, 『고등학교 한문I』 지학사, 2017 전시본
 안대회 외, 『고등학교 한문I』 천재교과서, 2017 전시본
 안대회 외, 『고등학교 한문I』 천재교육, 2014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인정도서 개발을 위한 교과별 편찬상의 유의점 및 인정 기준 (충청북도교육청 분담 인정도서)

<논문>

- 김동욱(2015) 「국어 교과서 단원 구성 방식과 체제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 『청람어문교육』 56, 청람어문교육학회, 7-33
 김왕규(2008), 「한문 교과서 단원 구성의 원리와 방안」, 『한문교육연구』 31, 한국한문교

15) 물론 하나의 소단원이 8면에 걸쳐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여러 장치를 배열하느라고 면수가 많아진 것이 아니고 원문을 8면에 걸쳐 싣느라고 길어졌을 뿐이다. 伊井春樹 外,(2014),36-43 참조

육학회, 35-68면

윤재민(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과 교과서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한문교육연구』 47, 한국한문교육학회, 5-20면

윤지훈(2016), 「사고력 신장을 위한 한문 교과서 개발 방안」, 『한문교육연구』 47, 99-123면

윤지훈(2014), 「교과서 관련 정책의 변화와 한문교과서 개발 방향」, 『한자한문교육』 35, 213-239면

허철(2016), 「실생활 연계형 한문 교과서 개발의 필요성과 방안 연구」, 『한자한문교육』 47, 69-98면

<단행본>

교육부(2017), 『2015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고등학교』

정혜승(2002), 『국어과 교육과정 실행 연구』 . 박이정

최미숙, 원진숙, 정혜승, 김봉순, 이경화, 전은주, 정현선, 주세형(2014), 『국어 교육의 이해』, (주)사회평론아카데미

伊井春樹 外,(2014), 『古典B-漢文編』, 第一學習社, 6-7면

井島正博 外(2014), 『古典B-漢文編』, 筑摩書房, 8-9면

<토론문>

「한문교과서 체제 연구」의 토론문

김병철(군포고)

이 글은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 교과서들의 구성 방식과 체제를 분석한 것으로 차후 개정될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집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하겠습니다. 연구자도 밝혔듯이 이 연구는 비판적인 내용이 아니라 교과서의 대단원과 소단원 구성 체제를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토론의 쟁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토론자의 소임을 감당하기 위해 억지추향으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단원 구성이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구성 방식과 큰 차이가 없이 주제, 소재, 문종, 목표 등이 혼합되어 있다고 분석하셨고, C교과서는 대단원의 설정 없이 25개의 소단원만으로 구성하여 파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한문교육의 지난한 과제인 한문교육용 1800자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5개정 교육과정은 학습량의 적정화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고, 이것을 반영하여 성취기준을 줄였습니다. 한문교과의 경우, 학습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문교육용 1800자를 줄여야 하는데, 이것이 계륜이라 안고 있자니 교과서 제작의 다양성과 창의성, 학습활동의 유기성을 저해하고, 버리자니 한문교육의 정체성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 본문에서 사용하지 않은 한문교육용 한자들을 교과서 뒷편에 부록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연구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교과서 편찬과 관련한 한문과의 성취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시다시피 2015개정 교육과정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추구하고 6개의 핵심역량을 선정하였고, 한문과에서도 핵심역량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문과의 성취기준은 한문교과의 내용 중심으로만 진술되어 있어서 핵심역량과의 직접적인 연결이 어렵습니다. 국어과의 경우,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특성을 이해한다. 화법과 작문 활동에서 자아 성장과 공동체 발전에~, ~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한다. 작품을 공감

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 등으로 성취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한문과의 특수성도 필요하지만, 2015개정 교육과정의 보편성을 감안하면 한문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의사소통 등과 관련한 성취기준의 설정이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과문하여 저의 궁금증을 토론의 기회를 빌려서 해결해 보려는 사심이 들어있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생님의 토론을 맡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이지만, 답변하시기 어려운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불편한 부분은 답변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제재에 따른 중학교와 고등학교 한문의 위계성 연구

김영주(성균관대)

【목차】

<별지 참조>

<토론문>

「제재에 따른 중학교와 고등학교 한문의 위계성 연구」의
토론문

이성형(공주대)

<별지 참조>

한문과 교과 독서 수업 사례

김은경(능곡고)

【목차】

1. 들어가며
 2. 고민 펼쳐놓기
 3. 수업 계획 세우기
 4. 수업 운영 사례
 5. 나오며
-

1. 들어가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면적 시행과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는 ‘독서’가 중요한 수업 활동으로 부각되고 있다. 시대를 막론하고 독서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어 왔고, 국어교과 중심의 교과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별 특색 사업으로서 비교과 영역에서도 ‘독서교육’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독서’는 ‘모든 교과에 적용된다는 것’과 ‘책 읽기의 과정이 수업 중에 이루어진다는 것’의 두 가지 측면¹⁾에서 이전의 내용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은 무엇일까?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가 있었겠지만, 특별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고 있는 교육적 비전과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 소양의 균형 있는 함양과 함께 행복한 학습의 구현을 위한 ‘학습 경험의 질 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학습 경험의 질을 중시하는 교육은 양과 결과보다 질과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 학습의 즐거움을 일깨워 주는 교육,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소양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길러주는 교육, 자기성장·자기발전의 경험에 기초한 행복감을 증진하는 교육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²⁾ 기초 소양 교육뿐만 아니라 자기생각 갖기와 표현하기를 통해 역량 함양 교육까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독서가,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효과적인 수업 방법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1) 2019년 1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연계 독서수업 사례집』을 발간, 다양한 교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주제별·활동별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교사 송승훈은 『나의 책읽기 수업』에서 중·고등학교 전 교과에서 적용 가능한 교과독서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두 저술 모두 ‘책 읽기’ 활동 자체가 수업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독서 활동’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2) 교육부(2017),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20면~21면 재인용.

연구자는 이러한 교과 독서 수업을 한문 수업에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문 교과의 교육목표와 정체성에 바탕을 두면서, 교과 역량 함양을 도모할 수 있는 교과 독서 수업이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의 과정을 나누고자 한다.

2. 고민 펼쳐놓기

1) 한문 교과 독서의 목표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한문 교과 독서의 목표는 마땅히 한문과 교육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 다음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한문과 목표이다.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며,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며,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³⁾

‘독서’는 ‘능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행위이다. 책을 읽는 과정부터 독후 활동까지의 전 과정을 ‘교과 독서’라고 본다면, 학생들은 교과 독서의 전체 과정에서 스스로 읽고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해야 한다. 이런 능동성이야말로 교과 독서의 가장 큰 장점이며, 개인의 역량 함양을 이끌어내는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문과 목표 중에도 ‘학습자의 능동성을 전제’로 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비판적 이해’와 ‘심미적 향유’이다. ‘비판적 이해’란 무엇인가? 제시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이 자기 생각을 갖고 표현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심미적 향유’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연수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하였다.

한문 텍스트를 한문 독해 연습을 위한 자료의 수준으로 보지 않고 완결된 문학 작품으로 인식하여 그 내용과 의미를 깊이 숙고할 수 있도록 ‘심미적 향유’라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즉 주어진 텍스트의 해석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심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누리고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미적 향유는 학습자의 능동성을 전제로 하는 활동이다.⁴⁾

결국 ‘비판적 이해와 심미적 향유’는 학습자의 능동성을 전제로 하는 활동이며, 교과 독서의 방법적 장점인 ‘능동성’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이 두 가지 능력의 함양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비판적 이해와 심미적 향유 능력의 신장’이 독서의

3) 교육부(2015), 한문과 교육과정, 24면 재인용.

4) 김연수(2016),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목표의 한문 교과서 적용 양상 연구」, 한문교육연구 46, 한국한문교육학회, 312면 재인용.

방법적 장점을 활용하여 성취 가능한 목표라면, 독서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통문화의 이해와 건전한 가치관의 함양을 기대할 수 있다. 선인들의 수많은 기록 유산 자체가 한문과 교과 독서의 내용이 될 수 있고, 그 속에서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발견하여 현재적 가치를 찾고 적용하는 것은 한문과 목표의 가장 포괄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고민은 자연스럽게 한문 교과의 내용과 방법으로 이어진다.

2) 한문 교과 독서의 내용과 방법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 한문 교과 독서의 내용

교과 독서의 목표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한문 교과 독서의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다. 우리에게선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수많은 기록 유산이 있다. 이러한 기록 유산 중 어떤 것을 교과 독서의 내용으로 선정할 것인가? 크게는 ‘한문으로 기록된 원전’과 ‘번역된 기록’으로 나눌 수 있다. 교과서에 실린 한문 원문은 대부분 부분을 발췌한 글이어서 작품 전체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주당 2-3시간의 수업 시수를 고려할 때 ‘해석’의 과정을 넘어서 ‘비판적 이해와 심미적 향유’까지 연결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에서 범교과 독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은 한문 교과 독서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한문은 고전에 해당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과목이다.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이 쌓아온 내용 중에서 세월을 거쳐서 검증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들을 가르친다. 한문 시간에 하는 책 읽기는 한자를 더 알게 하는 어휘력 향상 수준으로 한정하면 웅색해진다. 그러지 말고 한문 교과 내용 전반에 걸쳐서 넓게 책의 범위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한문으로 된 책을 권하면 그것을 읽을 학생이 거의 없기에, 당연히 현대 한글로 된 책을 권해야 한다. 한문 교과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책들이 읽힐 만하다. 첫째는 우리 옛 학자들이 쓴 글을 현대어로 옮긴 책, 둘째는 한시를 현대어로 옮긴 책, 셋째는 고전 역사서 중에서 인물 이야기가 나오는 열전 부분에 대한 책, 넷째는 『논어』 『맹자』 『도덕경』 『장자』 『묵자』 와 같은 사상서이다.⁵⁾

전체 내용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한문 교과 독서 내용 선정 측면에서 참고할만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출간된 번역서들은 고전을 기반으로 하면서 저자에 의해 재구성된 책과 한문 원전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고 한글로 번역한 책이 있다. 어느 쪽이든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연구자는 번역의 과정을 단편적으로나마 보여줄 수 있는 후자의 경우가 한문 교과 독서의 텍스트로 더 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교과 독서로 어떤 책을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해당 수업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목표와 직결되기 때문에 단위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학생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도 한문 교과의 정체성과 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교과 내용을 선정하려는 한문 교사의 노력과 안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송승훈, 나의 책읽기 수업, 나무연필, 2019. 165면~168면 재구성.

■ 한문 교과 독서의 방법

교과 독서의 방법은 주로 국어 교과에서 운영해 온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국어과 교육과정에 편성되면서 다양한 교과 독서 방법이 개발·보급되고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자는 전통 독서 문화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한문 교과 독서 방법의 구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는 기록 유산의 강국이다. 조선왕조실록을 포함하여 16종의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중 많은 수가 조선시대의 기록물들이며, 그 배경에는 조선이 학문을 숭상한 성리학 국가였다는 사실이 있다. 조선시대는 성리학에 사상적 근거를 둔 사대부들이 지배층이 되어 이끌어간 문치국가였다. 그들에게 학문이란 자기를 수양하여 성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그 방법은 성현의 경전과 정주학(程朱學)서적을 널리 읽되 자기의 체험과 결부시켜 해석함으로써 성현의 참된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었다.⁶⁾ 그러한 목적의 달성은 성현의 경전(經傳)을 떠나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독서(讀書)’는 그들 학문의 가장 기본적인 실천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선인들에게 독서는 공부였고 학문이었으며 나아가 수양과 구도(求道)를 위한 과정이요, 즐거움 혹은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위한 도구였다. 특히 16세기 이후 주자 성리학이 심화되면서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를 중심으로 독서의 과정, 내용 그리고 방법에 이르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이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이른바 ‘독서론(讀書論)’이다. 조선시대 많은 학자들이 저마다의 독서론을 정립하였으며, 그러한 독서론을 현대적으로 조명한 연구 및 저술도 적지 않다.

연구자는 선인들의 독서론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방법을 재구성하여 한문 교과 독서의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통 독서법을 활용한 4단계 독서 방법】

抄錄 → 疾書 → 讀其心 → 猛省(맹성)

▷ 抄錄

책 속의 인상적인 문장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문장을 그대로 뽑아 쓰는 방법

다산 정약용이 제시한 초록(抄錄)의 방법과 의미

“책을 가려 뽑는[鈔書] 방법은, 나의 학문이 먼저 주관이 있어 확립된 뒤에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저울[權衡]이 마음속에 있어서 취하고 버리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는 것이다. <중략> 언제나 책 한 권을 읽을 때에는 학문에 보탬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뽑아 모으고, 그렇지 않은 것은 눈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비록 백 권의 책이라도 열흘[旬日]의 공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중에서

▷ 疾書

본래적 의미는 ‘빨리 기록 한다’는 뜻. 책을 읽다가 의심나는 부분이나 깨달아지는 내용이 있으면 재빨리 기록하는 방법으로 자기 생각 쓰기에 해당됨.

6) 韓祐勲, “朝鮮時代 實學의 概念에 대하여,” 朝鮮時代 思想史研究論攷(서울: 일조각, 1996) 98 ~ 100면.

성호 이익이 제시한 질서(疾書)의 의미

나는 경(經)을 보다가 해득(온전히 이해함)된 바 있으면 곧 의문표를 붙여 기록하고 제목을 질서(疾書)라 했다. 『성호선생사설(星湖先生僿說)』 중에서

▷ 讀其心

그 마음은 ‘지은이의 마음’을 의미. 연암 박지원은 사마천이 쓴 『사기』를 읽을 때 내용 속 사건의 전개에만 매몰되지 말고, 사마천의 마음이 되어 읽도록 권장.

연암 박지원이 제시한 독기심(讀其心)의 의미

어린아이들이 나비 잡는 것을 보면 사마천(司馬遷)의 마음을 간파해 낼 수 있다. 앞다리를 반쯤 꿇고, 뒷다리는 비스듬히 발꿈치를 들고서 두 손가락을 집게 모양으로 만들어 다가가는데, 잡을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에 나비가 그만 날아가 버린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람이 없기에 어이없이 웃다가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성을 내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마천이 『사기』를 저술할 때의 마음이다. 『연암집(燕巖集)』 중에서

▷ 猛省

세차게 자신의 삶을 성찰함. 책 속에서 배운 것을 자신의 삶과 연결함.

홍길주가 제시한 맹성(猛省)의 방법

예를 들어 『논어』를 읽는다고 하자. 한 사람은 제 말처럼 줄줄 외워도 막상 어떤 일이 닥치면 생각이 책 속에 미치지 못하고 한 행동을 보면 한결같이 읽은 것과 반대로 한다. 한 사람은 한 두 장도 못 외우지만 화나는 일이 있으면 문득 매섭게 반성하여 ‘『논어』 속에 한 구절이 있긴 한데 내가 그 말이 잘 기억나진 않는다. 생각건대 분하다 하여 제멋대로 행동하면 뒤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같다’고 하며 마침내 참아 분을 가라앉힌다. 이 두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잘 읽은 사람인가. 『항해병함(沆漚丙函)』, 『수여방필(睡餘放筆)』 중에서

3) 교과 독서를 통해 어떤 교과 역량을 기를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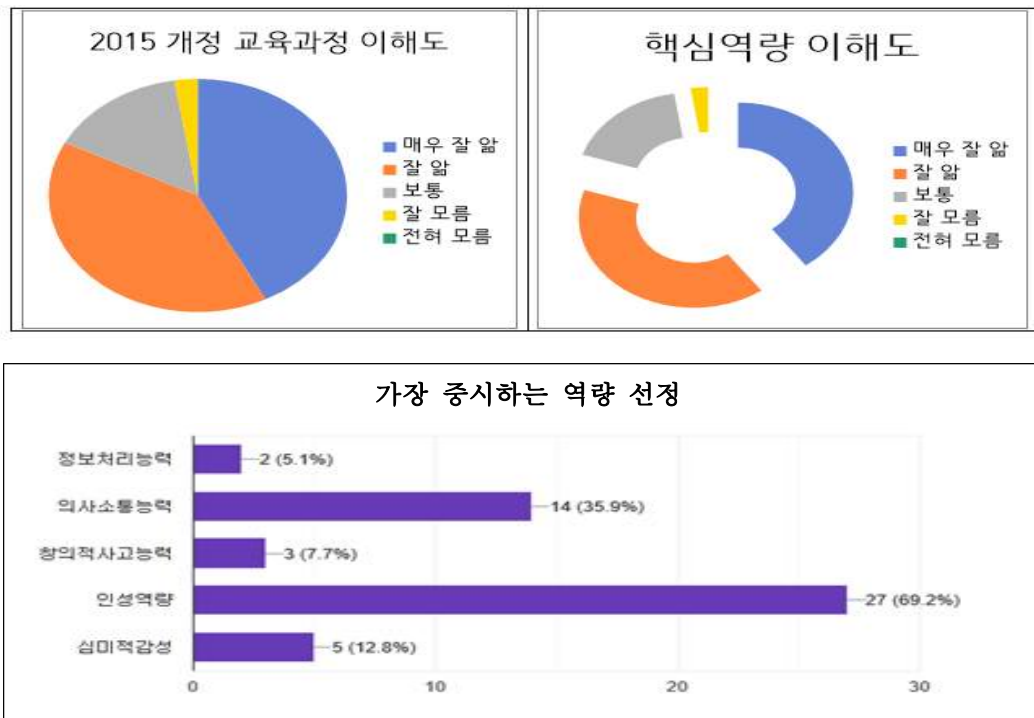
2015 교육과정을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지칭할 만큼 ‘역량의 함양’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총론 단위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한문과도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능력, 창의적 사고능력, 인성 역량, 심미적 감성의 다섯 가지 교과 역량을 제시하였다.

‘역량’의 특성상 한 가지만 독립적으로 다루거나 함양할 수 없지만, 교과 독서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어떤 역량을 중심으로 기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수업의 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져 한다. 그래야 역량 함양을 기반으로 목표와 성취기준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교과 역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문 교사가 생각하는 교과 역량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일까? 연구자는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경기도 중·고등학교 한문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한문과 교과 역량에 대한 교사 인식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교과 역량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항, 교과 역량의 적절성과 우선순위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 역량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 40%이상의 교사는 ‘매우 잘 알고 있다’에, 40%이상의 교사는 ‘잘 알고 있다’에 응답하여 80%이상의 교사가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 역량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학교단위, 교육지원청 단위, 도 단위로 다양한 교육과정 이해 연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점과 교-수-평-기 일체화의 관점이 현장으로 퍼지면서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 제고’의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교과 역량에 대한 질문은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내용이 적절한지 그리고 한문 교과 역량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교과 역량의 필요성에는 92.3%의 교사가 공감하였으며, 한문 교과 역량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89.5%가 동의하였다. 한문 교과 역량 다섯 가지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에 대한 질문은 다양한 반응이 도출되었다. 인성역량이 69.2%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의사소통능력(35.9%), 심미적 감성(12.8%), 창의적 사고능력(7.7%), 정보처리능력(5.1%)이 차례로 선정되었다.



설문을 통해, 한문 교사들이 교과 역량의 필요성에 및 적절성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며, 한문 교과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을 ‘인성 역량’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를 교과 독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개인의 참여 의지와 실천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책을 읽고, 책에서 느끼고 생각한 내용을 표현하며 공유하는 교과 독서의 과정을 통해 한문 교과 역량인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능력, 창의적 사고능력, 인성 역량, 심미적 감성을 모두 신장시킬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어떤 역량을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 교과 독서

의 내용과 방법이 다르게 구성될 수 있으므로 중심 역량을 선정하고 교과 독서 수업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자는 교과 독서의 중심 역량으로 ‘인성 역량’을 선정하고 수업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인성 역량’은 무엇인가? 핵심역량 세부내용 관련 보고서에서는 인성 역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성이란, 인간 성품 계발과 관련된 역량으로, 자기 존중과 수용, 잠재력 개발, 자기통제와 조절능력 등 개인 차원이나 개인 자격으로 타인을 만나 발생하는 관계 속에서 필요한 역량이다. 인성 역량에는 자기표현, 자기관리, 자아상, 자아정체성, 자아존중, 감수성, 타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타인 존중, 타인에 대한 배려, 다문화이해능력 등이 포함된다. 인성 역량은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아 정체성 발견을 토대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고 존중하는 사회공동체 차원의 배려 윤리를 포괄한다. 따라서 인성 역량은 인지, 정의, 행동적 영역이 조화롭게 통합되어야 하며, 알고 실천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3단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7)

‘인성 역량’이라는 범주 안에는 다양한 덕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성취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단위 학교·학생의 여건과 수준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성 역량을 선정하는 선행 작업이 필요하다. 개별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인성 역량’ 중 우리 학급·학생에게 의미 있는 덕목을 선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은 인성 역량의 함양을 구체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다.

3. 수업 계획 세우기

1) 도서 선정하기

■ 도서 선정 과정에서의 고민들

-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인성 역량은 무엇일까?
- 우리 학교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에 적절한가?
- 학생과 교사가 불편함 없이 교과독서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 도서 선정

- 형식이 자유로운 ‘일기’ 선택
- 자아존중감에 대한 화두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 선정
- 교과 독서를 위한 부교재 제작



7) 교육부(2013),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연구』, 80~81면.

2) 수업 설계하기

■ 교과 성취기준

교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한문	[12한 I 03-01]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12한 I 04-01]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 사상 등을 이해하고, 현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내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12한문 I 05-01]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 수업 설계의 방향과 흐름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인들의 독서 문화 이해하기 • 선인들의 독서법을 활용한 4단계 독서 방법 안내 초록(抄錄)-질서(疾書)-독기심(讀其心)-맹성(猛省) [문장 뽑기-자기생각 쓰기-지은이의 마음 읽기-내 삶과 연결하는 서평 쓰기]
↓	↓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도서 [흙영]에 대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고전종합DB’를 활용하여 원문과 번역문 비교하여 살펴보기 - 번역서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기 - ‘한국고전종합DB’에서 지정 도서의 원저자 검색하여 정보 얻기 - 원저자 ‘유만주’와 [흙영]에 대한 기본 정보 정리하기
↓	↓
3차시-4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활동 안내 • 개인별 독서활동 [흙영] 읽기 • 독서 과정에서 일상용어 탐구과제 찾기: 1인 3개 단어 고르기 • 차시별 초록(抄錄)과 질서(疾書) 해보기
↓	↓
5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용어에 사용된 한자 및 단어 의미 검색 방법 안내 • 모둠별 일상용어 공유 및 조사활동 • 모둠별 활용도 높은 대표 일상용어 선정하기 -모둠별 5개 단어 선정 • 모둠 발표를 통한 학급 전체 공유 • 교사평가
↓	↓

6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록(抄錄)과 질서(疾書) 심화 - 내가 뽑은 문장 카드 만들기 활동 안내 • 전 시간에 작성한 초록(抄錄)과 질서(疾書) 내용을 활용하여 카드 만들기 • 모둠별 발표 • 모둠 간 상호 피드백하기: 댓글쓰기 활동 • 교사평가
↓	↓
7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기심(讀其心) - 지은이의 마음 읽기 안내 • 모둠별 고민카드 공유하기 • 모둠 토의를 활용하여 '지은이의 마음 읽기' 활동 • 활동 소감 나눔을 통한 학생 상호 평가 및 교사평가
↓	↓
8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맹성(猛省) - 내 삶과 연결하는 서평 쓰기 안내 • 독서활동의 배움과 내 삶을 연결하는 서평 쓰기 • 모둠별 발표 • 수업 후기 쓰기 • 모둠별 수업 후기 나눔을 통한 실천 방안 모색하기 • 교사 피드백 제공

■ 차시별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계획

차시	주요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계획	
1	선인들의 독서 문화 이해하기	강의식 수업 토의·토론 활동		과정 중심 수행 평가
2	지정 도서 [흙] 미리 보기	강의식 수업 모둠 활동		
3-4	초록(抄錄)과 질서(疾書)	모둠 활동 읽기·쓰기 활동	자기 평가 교사 평가	
5	일상용어 익히기	모둠 활동 토의·토론 활동	교사 평가 동료 평가	
6	초록과 질서 심화 활동 [내가 뽑은 문장 카드 만들기]	모둠 활동 토의·토론 활동	자기 평가 동료 평가	
7	독기심(讀其心) [지은이의 마음 읽기]	모둠 활동 토의·토론 활동	교사 평가 동료 평가	
8	맹성(猛省) [내 삶과 연결하는 서평 쓰기]	모둠 활동 토의·토론 활동	자기 평가 동료 평가	

4. 수업 운영 사례

1) 교수·학습 과정

- 1차시: 선인들의 독서 문화 이해하기

책 읽기의 오랜 전통, 독서 문화와 독서론

■ 기록 유산의 강국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기록 유산 중 조선 시대까지의 유산(遺産) 이름과 세계적 가치

한국 세계기록유산의 세계적 가치 요약

유산명	등재연도	세계적 가치
『훈민정음訓民正音』 [해례본]	1997	독창적으로 새 문자를 만들고 한 국가의 공용문자로 사용하게 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 한글의 창제 원리를 담은 기록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1997	472년간의 역사를 수록한 것으로서 한 왕조의 역사적 기록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시기에 걸친 기록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권하권 下	2001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이용하여 인쇄된 기록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2001	중국의 『중국 25사』(3,386책, 약 4,000만 자) 및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888책, 5,400만 자)보다 더 방대한 세계 최대의 연대 기록물(총 3,243책, 글자 수 2억 4,250만 자)
고려대장경판 및 계경판 高麗大藏經版-誥經版	2007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정확하며 가장 완벽한 불교 대장경
조선왕조 『의궤』(儀軌)	2007	장기간에 걸쳐 조선왕조의 주요 의식을 방대한 양의 그림과 글로 체계적으로 담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은 동서양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음
『동의보감東醫寶鑑』	2009	일반 민중이 쉽게 사용 가능한 의학지식을 편집한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도서
『일성록日省錄』	2011	동서양의 정치 및 문화교류를 상세히 기록한 왕의 일기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https://www.unesco.or.kr/data/unesco_headquarters]

■ 독서 문화의 전통

- 조선 시대: 성리학에 사상적 근거를 둔 사대부들이 지배층이 되어 이끌어 간 사회
- 독서: 사대부들 학문의 가장 기본적인 실천 방법이면서 수양의 방법

옛 사람들에게 있어 독서란 곧 세상을 읽고 나 자신을 옳게 아는 안목을 기르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서책에서 얻는 정보는 물질의 이익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 삶의 내적 충실을 높이는데 쓰였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나 삶의 극적인 전환, 그리고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서 독서는 언제나 큰 힘을 발휘했다. 정민, 『책 읽는 소리』 재인용

■ 독서론

- 조선시대 많은 선비들이 독서에 대한 자신만의 이론을 세워 기록으로 남김.
- 독서의 태도, 독서의 목적, 독서의 단계, 책의 선택, 독서의 방법론을 제시

○ 전통 독서법을 활용한 4단계 독서 방법

4단계 독서 방법: 抄錄(초록) - 疾書(질서) - 讀其心(독기심) - 猛省(맹성)

■ 抄錄(초록) 뽑을(초) 기록할(록) “뽑아서 기록함.”

책 속의 인상적인 문장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문장을 그대로 뽑아 쓰는 방법

■ 疾書(질서) 빠를(질) 쓸(서) “빠르게 씀.”

본래적 의미는 ‘빨리 기록 한다’는 뜻. 책을 읽다가 의심나는 부분이나 깨달아지는 내용이 있으면 재빨리 기록하는 방법으로 자기 생각 쓰기에 해당됨.

■ 讀其心(독기심) 읽을(독) 그(기) 마음(심) “그 마음을 읽음.”

그 마음은 ‘지은이의 마음’을 의미. 연암 박지원은 사마천이 쓴 『사기』를 읽을 때 내용 속 사건의 전개에만 매몰되지 말고, 사마천의 마음이 되어 읽도록 권장.

■ 猛省(맹성) 세찰(맹) 살필(성) “세차게 살핌.”

세차게 자신의 삶을 성찰함. 책 속에서 배운 것을 자신의 삶과 연결함.

- 2차시: 지정도서 [흙영] 미리보기

흙영 유만주의 일기를 번역한 책, 『일기를 쓰다』

■ [한국고전종합DB]에서 유만주의 호 ‘欽英’으로 검색하여 정보 찾기

한국고전종합DB

통합검색

전체 (16)

고전번역서 (2)

연암집 (高麗集)

연암집 제5권

영대정영목(映帶亭臆藹)○척독(尺牘)

네 번째 편지

박지원(朴知源)

2004

정신성(鄭定星)의 죽음에 혹시 고할디까? | 자제 유한준의 아들 유만주(俞晩柱: 1755~1788)를 가리킨다. 유만주는 1775년부터 13년간 쓴 일기 《흙영(흙영)》 24권 6책 을 남겼는데, 연암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당시

- 연암 박지원과의 일화 찾아보기

고전번역서 > 연암집 > 연암집 제5권 > 영대정영목 > 최종정보

연암집 제5권 / 영대정영목(映帶亭臆藹)○척독(尺牘)

네 번째 편지

어제 자체가 찾아와서 글 짓는 법을 묻기에 내가 일러 주기를, “예(禮)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 했더니 자못 좋아하지 않는 기색을 하고 떠나더군요. 혼정신성(僉定神省)의 죽음에 혹시 고할디까?

答蒼厓[之四]

昨日。令胤來問爲文。告之曰。非禮勿視。非禮勿聽。非禮勿動。非禮勿言。頗不悅而去。不審定省之際。言告否。

- 아버지, 유한준의 이야기 찾아보기

해제 한국문집중간 (1)				
번호	서명	지/원/필자	해제필자	해제간행년
	자지(自著)	유한준(俞漢蓀)	김경희(金景希)	2001
1	이후 淸州 牧使가 되다. 정조 1790 경술 乾隆 59 아들 俞晚柱의 墓誌銘을 짓다. 정조 1791 신해 乾隆 60 아들 俞晚柱의 遺稿를 모아 「適園遺稿」를 만들고日記인 「欽菴日記」를 정리한 뒤, 각기 序文을 짓다. 정조 1792... 俞漢蓀, 金履弘 등의 묘지명, 任鼎元의 序, 俞彦鶴의 墓誌와 遺集 「燕石集」, 金相定의 「石堂集」, 아들 俞晚柱의 遺稿를 모은 「適園遺稿」와日記를 모은 「欽菴日記」, 吳震弼의 「醉庵集」, 洪元燾의 「太湖集」, 任聖周의 여동생... 詩 卷은 序 18편, 記 9편, 題 2편, 跋 6편의 순서로 편지되어 있다. 「欽菴日記」, 「石堂集」, 「止軒集(燕石集)」, 「適園稿」 등의 서문, 俞彦鶴의 墓誌 序文, 李如松 神主 記文, 成大中에게 지어준 送序 등 총 9편이 謄寫와			

－ 한국고전종합DB에서 얻은 함영 유만주에 대한 기본 정보 정리하기

■ 지정 도서 『일기를 쓰다』 소개

함영선집
선집이란?
選集 가릴(선) 모을(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작품 중 몇 가지를 추려 모은 책

추려 모은 사람은? 번역가

↓

[머리글] 함께 읽기

－ 3차시, 4차시 : 抄錄과 疾書 활동

■ 읽기 · 인상적인 문장 옮겨 쓰기 · 자기 생각 쓰기

[일기를 쓰다] 전체를 두 번으로 나누어 읽고 학습지 양식에 抄錄과 疾書 해보기

- ① 읽는 과정에서 만나게 된 모르는 용어(일상용어)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그 뜻을 검색하기
- ② 읽으면서 인상적인 문장이나 질문이 있는 문장에 밑줄을 치고 간단한 의견 쓰기
- ③ 오늘 읽은 내용과 분량 확인
- ④ 읽은 부분에서 발견한 한자 어휘(일상용어) 기록하기
- ⑤ 抄錄: 인상적인 문장, 공감되는 문장, 질문이 생기는 문장 옮겨 쓰기
- ⑥ 疾書: 떠오르는 자기 생각 쓰기(공감, 의문, 반박, 심화 등)

개인별 독서활동 - 초록(抄錄)과 결서(疾書) 활동지									
[]학년 []반 []번 설명: _____									
<p>■ 선인들의 독서 방법인 초록(抄錄)과 결서(疾書)를 활용하여 오늘 읽은 부분의 내용을 정리해보자.</p> <p>1. 오늘 읽은 부분 확인하기</p> <p>읽은 날짜와 분량 2019년 []월 []일 []면~[]면</p> <p>2. 오늘의 일상용어 탐색 과제</p> <table border="1"> <thead> <tr> <th>단어</th> <th>내가 생각한 의미</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r> <tr><td> </td><td> </td></tr> <tr><td> </td><td> </td></tr> </tbody> </table>		단어	내가 생각한 의미						
단어	내가 생각한 의미								

[동그라미+밑줄+메모하기] 예시

<p>3. 抄錄: 문장 뽑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40px; margin: 5px 0;"></div> <p>4. 疾書: 자기 생각 쓰기 [떠오르는 생각 빨리 쓰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60px; margin: 5px 0;"></div>	<p>역사책</p> <p>1776년 5월 13일 호리고 비가 약간 뿌렸다. 오후 무렵에는 날이 개 고 더웠다.</p> <p>역사책을 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상쾌하게 한다. 인류 가 치란(治亂)과 흥망을 이어가는 것을 보노라면, 내가 마치 오랜 세월을 보내며 존재한 금동선인⁴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천고의 역 사를 보며 누가 선하고 악했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터득하게 되 면, 내가 마치 송사를 맡은 관리가 되어 판결을 내리는 것 같은 기 분이 든다.</p> <p>나는 역사를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 았어도 좋아.</p>
--	--

[학생 기록 사례]

- 抄錄: 결국에는 삼나무와 측백나무로 에워싸인 무덤 속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것을 인간의 귀결점으로 삼는다면 세상에는 할 만한 일이 애초에 없을 터이니, 또한 허무하다 하겠다.
- 疾書: 최근 들어 어렸을 때는 생각해보지도 않은 죽음에 관해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 지금은 행복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행복이 모두 끝날 테고 느끼기 싫었던 우울함, 외로움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또한 모두, 모든 것과 이별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삶의 제약이 있기에 삶의 의미가 더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장을 읽으면서 공감도 많이 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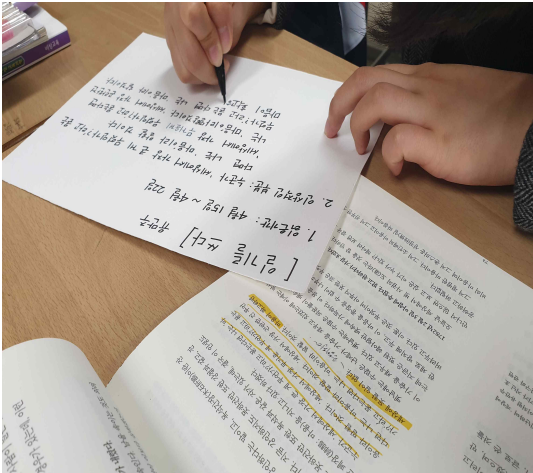
- 5차시 : 일상용어 익히기

- 읽기 과정에서 표시해 둔 ‘일상용어’를 모둠별로 모으고, 모은 어휘 중 활용 빈도가 높은 일상용어에 대해 조사하는 활동

[]학년 []반 []번 []모둠 모둠구성원: _____			
1. 우리 모둠 일상용어 탐색 과제 모으기			
시사(時祀), 편액(扁額), 망령(妄靈), 맹교(孟郊), 사특(邪慝), 치란(治亂), 문식(文飾), 심원(深遠), 선유(先儒), 은미(隱微)			
2. 우리 모둠이 선정한 5개 단어			
연번	축자적 해석 표준국어대사전 뜻	한자 쓰기	
1	어지러움을 다스림	治	亂
	- 잘 다스려진 세상과 어지러운 세상 - 혼란에 빠진 세상을 다스림	다스릴(치)	어지러울(란)
2	깊고 멀.	深	遠
	-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깊다.	깊을(심)	멀(원)
3	간사하고 사특함.	邪	慝
	- 요사스럽고 간특하다.	간사할(사)	사특할(특)
4	글을 꾸밈.	文	飾
	- 글을 아름답게 꾸밈. - 실속은 없이 겉만 그럴듯하게 꾸밈. - 실수나 잘못을 그럴듯하게 꾸밈.	글월(문)	꾸밈(식)
5	허망한 정신	妄	靈
	- 늑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남. 또는 그런 상태	허망할(망)	신령(령)

- 6차시 : 초록과 질서 심화 활동 - [내가 뽑은 문장 카드 만들기]

■ 초록과 질서의 심화 활동으로 가장 인상적인 문장과 그 문장에 대한 자기 생각을 카드로 제작하여 모둠 구성원들과 나누고 친구의 생각에 대해 댓글 달아주기



[일기를 쓰다.] (유만주)

1. 읽은 기간: 4/15 ~ 4/18

2. 인상적인 부분

남의 말로 내 마음이 규정을 바뀌지 않고, 여럿이 떠돌아다니는 <61>
 소리로 내 품격을 바꾸지 말자.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때에는 스스로를 믿고, 얻고 잃는 데 머무는 스스로 변별할 뿐이다.

3. 이유

인생을 살아가는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 부분
 을 읽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일기를 쓰다 / 유만주]

1. 읽은 기간: 4.15 ~ 4.18

2. 인상적인 부분

P.199 늘 해원 선의 시금과목을 폐하고 규정을
 제도를 수감할 일이다. 제마다 자기 재주를
 펼쳐 내는 것을 보고 봄이 동화하되 내이 재능도
 두어 얹고 정형에도 귀여워하지 않도록 하여,
 예뻐하고, 음미, 병화와 평화를 각각의 처지에
 맞게 기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듯 하면
 사람들 중 부름이 있고 한가지 기예에
 많은 자들은 올라가 각자 재능을
 열아하게 될 것이니, 권세를 위생해
 조금씩 궁지 앞으려서서 벼랑까지
 뛰어들어 임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유

또 많은 것과 중요시해서 공부하거나 바쁘게
 읽는 것이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합동에게
 '읽' 안을 강요한다. 물론 '읽'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일에 필요한 것만을
 읽도록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각자가
 좋아하는 일을 시키면 그 누가 싫어하겠
 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유만주와
 같은 생각으로 자기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또한 교육제도, 입시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새로운 과거제를 기대한다는 것이 너무
 공감되어서 인상 깊었다.

[일기를 쓰다 / 유만주]

1. 읽은 기간: 4/15 ~ 4/18

2. 인상적인 부분

→ 시금의 원로 후배에 관한 것으로, 공민회 그들
 들에게도 동일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읽은 문장은
 나 주위에 있는 것으로, 그 경험을 생각해
 기억하거나 생각해 두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 일들은 하루하루 사건과 대역기
 되고, 하루는 한두 가지씩 일어난다. 중요한
 한 해가 이거지 읽다. 역경에 일기부록으로
 개 해를 나세게 할 때 큰 목숨을 팔기까지
 있어 하도 피기까지 일어난다. <52쪽>

3. 이유

인생을 살아가는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 부분
 을 읽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면 좋겠다.

나눔

1. 남의 말에 설득력 있었던 원래 내 생각은 바뀌게 될 때 가 있는데
 바로 그 때 때때로 어떤 말이나 생각이나 정말 용감히 공감했다! (김...)

2. 나도 전에 남의 말에 휩쓸려 나의 생각을 바꾸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 문장을 보고 나 자신을 믿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3. 내가 그 문장과 남의 시금에 공감하고 읽는 문장이었는데
 이 문장이 너무나 느낌이 나서 마음에 드는 문장과 생각했다. (김...)

4. 늘 생각 해 왔던 것이지만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사람들 시선을 의식 하면서
 기록해 달고, 좀 당당하게 행동하면서 살아야겠다

4. 나눔

① 나와 같은 부분을 골랐지만, 나와 이 부분은 해석하는 시각이 달랐다. 동기가 생략한
 다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한 집단을 생각하느라 끝났다. 이 부분으로
 알고 이 다수의 의견으로 따라야 할지 아니면 내 의견대로 할지 고민하는 의견에
 설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

② 다른 친구들과 같은 질문이지만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 보니 참 재미있었다. 다들 같은
 질문이었는데, 앞으로는 내 의견도 내 의견을 표현해야겠다. (김...)

③ 문장이 지면 어떤 사람들은 읽는 것이 쉬운 것만 읽는 것만 읽는다. 하지만
 하나 하나씩 읽는 것은 어렵지만 읽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읽는 것이 어렵다. 읽는
 것도 읽는 것이 어렵다. 읽는 것이 어렵다. 읽는 것이 어렵다. 읽는 것이 어렵다.
 - 김... -

나의 의견 : 나도 조금하고 남도 조금 하자

■ 모둠 간 상호 피드백 [댓글 쓰기] 학생 활동 결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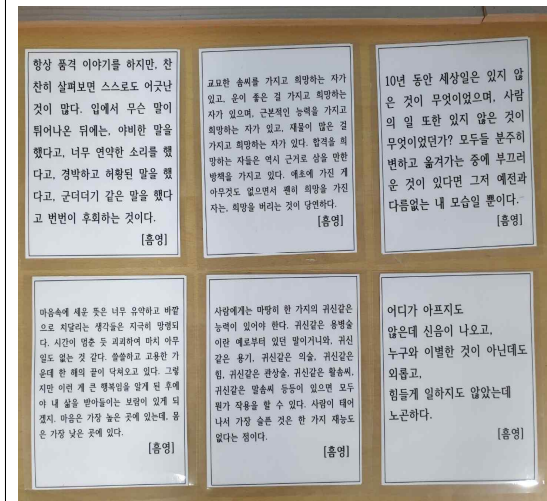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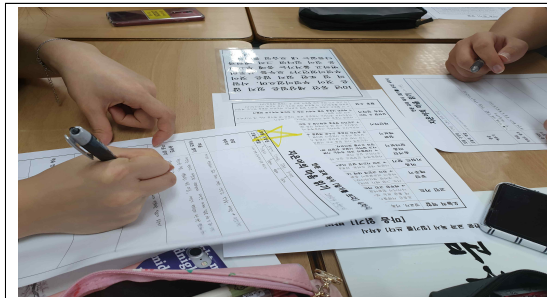
<p>① 이런 글이 나 자신을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글이라 이런 종류의 글을 읽을 때 항상 기분이 좋아진다. 진짜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내가 제일 소중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든다.</p> <p>② 나는 '여럿이 떠들어 대는 소리'에 초점을 두었는데, 너는 '내 나름의 규칙'에 초점을 두어 생각을 하였구나! 너 덕분에 초점에 따라 달라지는 구나 새삼 느꼈어.</p> <p>③ 나는 남의 말을 잘 듣는 팔랑귀이다. 내 의견보다 친구들의 의견에 중점을 맞춰었는데 이제부터 내 의견에 초점을 맞추고 남들 의견은 고려하면서 참된 말만 듣고 못된 말은 걸러야겠다.</p> <p>- 친구들도 나와 같이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즐기고 싶어하는 것 같아 역시 내 친구들은 나와 같은 생각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했다.</p>	<p>① 이런 글이 나 자신을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글이라 이런 종류의 글을 읽을 때 항상 기분이 좋아진다. 진짜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내가 제일 소중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든다.</p> <p>② 나는 '여럿이 떠들어 대는 소리'에 초점을 두었는데, 너는 '내 나름의 규칙'에 초점을 두어 생각을 하였구나! 너 덕분에 초점에 따라 달라지는 구나 새삼 느꼈어.</p> <p>③ 나는 남의 말을 잘 듣는 팔랑귀이다. 내 의견보다 친구들의 의견에 중점을 맞춰었는데 이제부터 내 의견에 초점을 맞추고 남들 의견은 고려하면서 참된 말만 듣고 못된 말은 걸러야겠다.</p> <p>- 친구들도 나와 같이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즐기고 싶어하는 것 같아 역시 내 친구들은 나와 같은 생각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했다.</p>
--	--

■ [내가 뽑은 문장 카드 만들기 및 댓글 쓰기] 활동 학생 후기

<p>- 과거와 현재의 나와 그 변화를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어떤 것에 몰입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과거의 나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거나 눈치 보지 않았는데 지금의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렵다.</p> <p>- 조원들이 썼던 내용이 모두 한 번쯤 줄였던 내용인 것 같아 공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해학적인 것을 찾아내는 친구도 있고, 현재와 관련 있는 것을 찾아내는 친구도 있어 각각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면을 볼 수 있었다.</p> <p>- 평범한 발상의 소중함과 자기 성찰적 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나의 생각을 모둠 구성원들에게 발표하면서 내가 인상적인 부분을 공유했다. 은*이는 작가의 삶의 태도를 통해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생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성*이는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꼈으며, 윤*은 지은이가 살았던 당대의 현실에 대해 생각하였다. 모두 나름의 안목을 가지고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번 모둠 토의의 발표와 피드백의 과정을 통해 각자의 생각을 키우면서도 다른 사람의 관점을 알 수 있었다.</p> <p>- 사실 모둠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이 활동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귀찮다는 생각을 했다. 하고 나니 남는 게 많았다. 특히, 내가 읽으면서 그냥 넘겼던 문장들을 친구들이 선택하니, 그 문장 또한 나에게 중요한 문장이 된 느낌이었다. 책 내용 자체도 좋았지만 친구들이 써준 댓글까지 읽으니 더 좋았다.</p>
--

- 7차시 : 讀其心 [지은이의 마음 읽기: 만주씨의 마음 들여다보기]

■ [일기를 쓰다]에 수록된 문장 중 지은이의 고민이 담긴 카드를 읽고 ‘공감해주기 - 마음 키워드 찾기 - 숨겨진 마음 찾기 - 질문 만들기 - 제안하기 - 약속 정하기’의 순서로 지은이의 마음 이해하기



[마음 읽기] 방법	
오늘의 역할	일지자, 기록자, 관찰자, 공감자(이해자)의 역할 수행하며 지켜보는 역할
고민 카드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상하게 사는 처지라고 제 손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모두들 커튼 쳐놓는 것처럼 생각되어 보게 나아가는 느낌이고, 제자리 낙관론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 하루일 고민 카드를 만주씨의 고민이라고 생각하며 해석해보기
공감 해주기	제대로 그럴 때가 있고, (인생이) 친구들이 가려져있는데 원리 내 손을 하는 것처럼 생각되니까요. 그 때 느꼈던 관망감은 사실로 생각되고, 일과나 마음이 피로해짐이 충분히 많았지 않아요. + 잊지 고민에 대해 나의 경험을 보이며 공감해주기
마음 키워드 찾기	사실상 대한 두려움, 외로움, 슬픔... + 고민 카드에 담긴 지은이의 마음 속 키워드 핵심 찾기
숨겨진 마음 찾아보기	사실상처럼 인연받고 싶은 마음, 실연받고 싶은 마음, 사실처럼 막을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 + 사람들이 고민 속에는 기쁨이므로 자신의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 행복 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이 필요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숨겨진 욕 망과 욕구를 찾아보기.
질문 해보기	• 당신에게 가장 힘들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그의 어떤 점이 당신을 기쁘게 하세요? • 당신을 비롯한 사람들이 인간인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 숨겨진 마음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질문을 만들어 보기.
제안하기	• 미쳤다고 생각되는 사실처럼 다가와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 외로움과 슬픔 더 심하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 고민자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기.
일관할 수 있는 약속 정하기	• 사실에 지출을 하며 자신에게 미안하고 실망해주기 • 미쳤다고 생각되는 사실처럼 보면 '저는 내 행동을 하는 게 미안'하고 소리 내어 말하기 + 제안한 내용을 관찰 속에서 지킬 수 있도록 약속을 만들기
활동 소감	수 이 행동은 조금씩 전부가 되어 보니까요. 외로움과 슬픔을 만드는 과정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이 행동에 대한 생각도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소감 쓰기 전에 모든 행동이 끝난 후 기록한 내용입니다.

■ 고민 카드 내용

○ 항상 품격 이야기를 하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스스로도 어긋난 것이 많다.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온 뒤에는, 야비한 말을 했다고, 너무 연약한 소리를 했다고, 경박하고 허황된 말을 했다고, 군더더기 같은 말을 했다고 번번이 후회하는 것이다.

○ 마음속에 세운 뜻은 너무 유약하고 바깥으로 치달리는 생각들은 지극히 망령되다. 시간이 멈춘 듯 괴괴하여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 같다. 쓸쓸하고 고요한 가운데 한 해의 끝이 닥쳐오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게 큰 행복임을 알게 된 후에야 내 삶을 받아들이는 보람이 있게 되겠지. 마음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데, 몸은 가장 낮은 곳에 있다.

○ 사람에게에는 마땅히 한 가지의 귀신같은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귀신같은 용병술이란 예로부터 있던 말이지니와, 귀신같은 용기, 귀신같은 의술, 귀신같은 힘, 귀신같은 관상술, 귀신같은 활숨씨, 귀신같은 말숨씨 등등이 있으면 모두 뭔가 작용을 할 수 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슬픈 것은 한 가지 재능도 없다는 점이다.

○ 10년 동안 세상일은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으며, 사람의 일 또한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던가? 모두들 분주히 변하고 옮겨가는 중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그저 예전과 다름없는 내 모습일 뿐이다.

■ [지은이의 마음 읽기] 학생 사례

- 공감: 충분히 공감되는 것 같아요. 아직 진로를 확실히 정하지 않아서 목표 의식이 확실한 친구들을 볼 때면 나 혼자 갈 길을 잃은 듯해서 공허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성공적인 기대를 줄였으면 해요.
- 마음 키워드: 자신이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 한심함, 허탈함 → 자신감 하락
- 숨겨진 마음 찾기: 자신만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 같아 느끼는 부끄러운 마음, 변화하고 싶은 마음, 세상이 변하는데 자신 또한 변화해야 할까 싶은 의문감
- 질문 만들기: 세상이 변화한다고 해서 내가 변할 필요가 있을까?
세상이 주는 압박감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떤 모습이 성공한 자신의 모습일까?
변화한 자신의 모습을 눈치 못 챌 것은 아닐까?
- 제안하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장점을 메모해보는 것은 어떨까?
성공, 변화에 대한 조급함과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 성취 목표를 낮게 잡아보면 어떨까?
- 약속 정하기: 하루에 자신의 장점 3가지 이상 적기, 성취 목표 낮게 잡기

■ [지은이의 마음 읽기] 활동 후기

- 이렇게 옛날사람이랑 나의 마음이랑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보니 사람 마음이 거기서 거기인가 보다. 그리고 혼자 생각할 때는 잘 나오지 않던 생각들이 여러 사람과 함께 하니 좋은 의견들이 나와서 신기했다.
- 내가 살아오면서 남을 공감해주고 피드백해주는 활동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하고 무엇인가 두려웠다. 하지만 이 활동을 통해 나 자신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보는 기회가 되어 새롭고 재미있었다.
- 오늘 마음 읽기 활동을 하면서 만주씨의 마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았다. 고민 카드를 보면서 자존감이 낮았던 내가 생각나기도 했다.
- 나 자신에게 상담해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모두 아이들이 내 준 방법들을 머리에 새기고 실천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있다. 처음에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나로서 이 활동이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듣고 거기에 공감하면 떠오르는 나의 의견을 추가하니 두 번 공감하는 기분이 들고 의외로 쉽고 재미있었다.
- 처음 고민을 접했을 때는 너무 어렵고 내가 공감해줄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친구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내가 공감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공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도 누군가에게 공감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우리 조의 고민카드를 받고 공감하면서 나도 무엇이든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해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 하나의 일기에서 속마음과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고 위로하는 법을 조금이라도 안 것 같다.
- 시험을 보기 전보다 시험을 본 후인 지금이 글쓴이의 심정이 더 이해가 된다. 정말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앞으로의 일이 더 많고 나도 나만의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 글쓴이와 같이 위로 받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
- 공감의 정의에 부합하는 말하기가 아니더라도 상대는 따뜻함과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공감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 상대는 그 마음만으로도 아픔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 솔직히 이런 활동이 굉장히 불편하고 오글거린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시된 고민이 요즘 나의 고민과 굉장히 일치해서 놀랐고 그렇기에 더 공감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논의 과정이나 발표가 꽤나 즐거웠다.

- 8차시 : 猛省 [내 삶과 연결하는 서평쓰기] / 수업 후기 나눔 및 평가

■ [일기를 쓰다]의 서평 쓰기와 수업 후기 쓰기를 통한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p>물줄 - 내 삶과 연결하는 서평 쓰기</p> <hr/> <p>[]학년 []반 []번 성명: _____</p> <hr/> <p>1. [홈영] 내용 요약하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100px; margin-top: 10px;"></div> <p>2. 유만주의 인생에서 독특한 지점 뽑아내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100px; margin-top: 10px;"></div>	<p>3. [홈영]이 내 삶에 주는 메시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100px; margin-top: 10px;"></div> <p>4. [1~3]의 내용을 바탕으로 [홈영]과 내 삶을 연결하는 서평 쓰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100px; margin-top: 10px;"></div>
---	---

1학기 교과독서 [일기를 쓰다] 활동 평가지									
■ 모둠 내 상호 평가									
모듬 구성원 []					내가 수행한 진도				
모듬 활동									
준거가 될 만한 순찰 또는 이유									
모듬 활동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이유									
모듬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잘까지 노력한 사람은? 이유									
모듬 모임에서 피드백을 주고받은 회원의 의견을 잘 듣고 비판의견도 수용하는 회원을 본인 사람은? 이유									
■ 자기평가									
영역	관할 항목				발달 정도	계			
성실	나를 교과독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1	2	3	4	5
배려	나를 활동의 과정에서 모듬 구성원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1	2	3	4	5
성실	나를 영단 일기를 나의 생활과 연관 지어 한지의 나날 받아쓰기 위해 노력하였다.				1	2	3	4	5
협업·탄원	나의 활동의 과정에서 모듬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였으며, 의견 청취를 통해 협력하였다.				1	2	3	4	5
합 계									
★ 수업 후기에 쓰기									
이번 수업을 통해 얻게 된 이점을, 생각의 변화, 고민 등을 적어주세요!									
수업 주제 : <u>교과독서 [일기를 쓰다]</u>									

※ '이유'란에는 수업 중 여파소드를 기록함 [구체적으로 쓸 것]

■ [내 삶과 연결하는 서평쓰기] 학생 활동 결과물

○ 위로가 필요했던 너에게: 일기를 읽어보고 감상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고민을 내 고민처럼 깊게 듣고 마음 아파 울지 않고 그 이상을 선을 긋기 마련이었다. 나의 감정 달래기도 벽찬데 남의 한탄과 고민을 읽고 그것 또한 공감해주어야 할까, 적어도 나는 이런 감상에서부터 시작했다. [흙영]은 저자 내면의 일을 꾸준히 털어놓는 외롭고 풍요로운 창구이다. 가공해낸 문학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사실적이고 적나라한 감정을 보여준다. 이 점은 신기하게도 반대로 공감을 해주게 된다. 어쩌서 우리가 공감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일까? 유만주가 했던 고민이 우리의 고민과 다르지 않으며, 그런 익숙한 고민을 다시 제3자의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만주는 유독 깊은 감수성을 보여준다. 작은 것 하나에도 쉽게 좋아하다 한순간 비관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감정은 우리의 마음속과 비슷하다. [흙영], 우리에게 위로와 공감, 안정감을 주는 이 새로운 글을 한번쯤 읽어도 좋겠다.

○ <전략> 나는 이 책이 가장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위인전이라고 생각한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시대의 이야기로 치부해 지나친 열등감이나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평범하고 초라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주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한 사람의 가치관과 진로를 위한 노력, 실패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이상한 위인전. <중략> 이 책을 지금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다. 다시 일어나고 노력하게 만들 수는 없더라도 자신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날리고 포기해버리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된다.

○ <전략> 꾸밈없는 말과 꾸밈없는 충고들이 가장 인상적이다. 시간이 오래된 책인데도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충고들이 가득하다.

○ <전략> 이 책은 마냥 영웅의 일대기 같은 글이 아닌, 약간은 우울함과 쓸쓸함을 담고 있는 책이다. 성공한 인물이 아닌 실패한 인물이 쓴 책이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다. 또 현대인의 고민과 비슷한 점이 많았고, 그래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책이다.< 후략>

○ 이 책은 내면의 갈등과 고민을 털어놓은 외롭고도 풍요로운 일기장이다. 일기를 통하여 현실의 불안과 결핍까지도 보상하려는 듯 유만주는 자신이 아는 모든 아름답고 이상적인 것들을 모두 불러낸다. 그래서 그의 일기장을 들여다보면 그의 슬픔이 깃든 기이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 [교과 독서 수업] 전체 후기 학생 사례

○ 처음에는 찌질해보였다. 한심해보였다. 하지만 한 장 한 장 넘겨 가며 글을 읽을수록 그 찌질이가 내 마음 속에도 있었다. 이 글을 읽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저런 모둠활동을 하면서 깨달았다. 내가 먼저 솔직해져야 한다, 찌질하고 한심한 내 모습을 감추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내가 부끄럽지 않게 여겨야 남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연다. 나는 생각지도 못하게 좀 더 스스로 솔직해지는 방법을 배웠다.

○ 책을 많이 읽지 못해서 쓸 말이 별로 없지만 확실한 건 나의 자존감은 조금 회복된 것 같다. 나도 자존감이 낮아서 휘둘리며 살지만 유만주도 나와 좀 비슷한 상황이어서 공감할 수 있었고 초등학교 다닐 때 일기를 형식적으로만 썼는데 이 일기를 보니 일기는 이런 것이구나 느끼게 되었다. 작년 이맘때 일기를 써서 내 일상을 기록하려고 몇 번 적다가 만 것이 있는데, 나도 다시 일기를 적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옛날 책은 전부 딱딱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 일기는 친숙한 우리 주변의 이웃을 보는 듯했다. 특히 구절 중에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는 부분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주체는 나 자신이며 나의 본 모습을 남의 시선 때문에 숨기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존감이 높아진 기분이다.

○ 처음 책을 보았을 때 글쓴이에 대해서 의문점과 짜증도 조금 났었다. 노력도 안 하면서 남을 깎아내리기만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갈수록 자신의 속마음과 그렇지 못한 현실에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 안타까웠고, 그 처지가 나와 비슷해 보이기 시작했다. 글쓴이가 나름대로 자신의 방식을 찾아나가는 모습도 좋았다. 이번 활동을 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공감과 이해였다. 이를 중점으로 두고 '내가 뽑은 문장 카드'를 만들고 친구들에게 댓글도 써주었는데, 내 카드의 댓글에서 이 부분을 알아봐준 친구가 있어서 솔직히 놀라고 고맙다. 고2 이과가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볼까? 틀에서 벗어난 수업이 우리들의 사고와 표현을 더욱 풍요롭게 해준 것 같다.

2) 수행 평가 기준안

■ 개인별 독서활동 - 초록(抄錄)과 질서(疾書)

평가 요소		상	중	하
정보처리능력 · 인성역량 (성찰태도)	일상용어 조사와 초록 및 질서의 정확한 작성	읽기 활동 중 일상용어 탐구과제 찾기, 인상적인 문장 뽑아 초록하기, 자기 생각 쓰기의 세 가지 항목을 정확하게 수행함.	읽기 활동 중 일상용어 탐구과제 찾기, 인상적인 문장 뽑아 초록하기, 자기 생각 쓰기의 세 가지 항목 중 두 가지를 정확하게 수행함.	읽기 활동 중 일상용어 탐구과제 찾기, 인상적인 문장 뽑아 초록하기, 자기 생각 쓰기의 세 가지 항목 중 한 가지만을 정확하게 수행함.

■ 일상용어 익히기

평가 요소		상	중	하
정보처리능력 · 의사소통능력	일상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모듬별 일상용어 개수 조건 충족(5개), 한자 표기의 정확성, 해석 및 의미 조사의 정확성 세 가지 항목을 정확하게 수행함.	모듬별 일상용어 개수 조건 충족(5개), 한자 표기의 정확성, 해석 및 의미 조사의 정확성 세 가지 항목 중 두 가지를 정확하게 수행함.	모듬별 일상용어 개수 조건 충족(5개), 한자 표기의 정확성, 해석 및 의미 조사의 정확성 세 가지 항목 중 한 가지를 정확하게 수행함.

■ 내가 뽑은 문장 카드 만들기

평가 요소		상	중	하
의사소통능력 · 창의적 사고능력 · 인성역량	인상적인 문장과 선정 이유 작성 및 자기 생각 정확하게 표현하기	인상적인 문장 고르기, 선정한 이유 쓰기, 자신의 생활과 연계하여 소감 말하기 세 가지 항목을 정확하게 수행함.	인상적인 문장 고르기, 선정한 이유 쓰기, 자신의 생활과 연계하여 소감 말하기 세 가지 항목 중 두 가지를 정확하게 수행함.	인상적인 문장 고르기, 선정한 이유 쓰기, 자신의 생활과 연계하여 소감 말하기 세 가지 항목 중 한 가지를 정확하게 수행함.
	타인의 생각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표현하기	실명으로 댓글 쓰기, 기록자의 의견에 대한 자기 생각 쓰기, 지지하는 표현하기 세 가지 항목을 정확하게 수행함.	실명으로 댓글 쓰기, 기록자의 의견에 대한 자기 생각 쓰기, 지지하는 표현하기 세 가지 항목 중 두 가지를 정확하게 수행함.	실명으로 댓글 쓰기, 기록자의 의견에 대한 자기 생각 쓰기, 지지하는 표현하기 세 가지 항목 중 한 가지를 정확하게 수행함.

■ 지은이의 마음 읽기

평가 요소		상	중	하
의사소통능력 · 창의적 사고 능력 · 인성역량	내용의 적절성	고민에 대한 이해, 공감의 적절성, 숨겨진 마음 찾기의 타당성 세 가지 항목이 모두 완성도 높음.	고민에 대한 이해, 공감의 적절성, 숨겨진 마음 찾기의 타당성 세 가지 항목 중 두 가지 항목만 설득력 있음.	고민에 대한 이해, 공감의 적절성, 숨겨진 마음 찾기의 타당성 세 가지 항목 중 한 가지 항목만 설득력 있음.
	내용의 창의성	질문의 창의성, 제안의 독창성, 약속 정하기의 타당성 세 가지 항목이 모두 완성도 높음.	질문의 창의성, 제안의 독창성, 약속 정하기의 타당성 세 가지 항목 중 두 가지만 설득력이 있음.	질문의 창의성, 제안의 독창성, 약속 정하기의 타당성 세 가지 항목 중 한 가지만 설득력이 있음.

■ 내 삶과 연결하는 서평 쓰기

평가 요소		상	중	하
의사소통능력 · 인성역량	내용의 적절성	흠영 일기 내용 요약하기, 유만주 인생의 특이점 적기, 흠영 일기에서 얻은 메시지 기록하기 세 가지 항목 모두 정확하게 수행함.	흠영 일기 내용 요약하기, 유만주 인생의 특이점 적기, 흠영 일기에서 얻은 메시지 기록하기 세 가지 항목 중 두 가지를 정확하게 수행함.	흠영 일기 내용 요약하기, 유만주 인생의 특이점 적기, 흠영 일기에서 얻은 메시지 기록하기 세 가지 항목 중 한 가지를 정확하게 수행함.
	성찰과 실천의 적절성	현재적 가치 찾기, 내면화하기(성찰하기), 삶과 연결하기 세 가지 항목을 정확하게 수행함.	현재적 가치 찾기, 내면화하기(성찰하기), 삶과 연결하기 세 가지 항목 중 두 가지를 정확하게 수행함.	현재적 가치 찾기, 내면화하기(성찰하기), 삶과 연결하기 세 가지 항목 중 한 가지만을 정확하게 수행함.

3) 교과능력세부특기사항 기록 예시

개인 독서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일상용어 탐구과제를 조건에 맞게 추출함. 읽은 부분에서 개인적 울림을 주는 문장을 뽑아 정확하게 초록하였으며, 문장에 대한 자기 생각과 고민을 진솔하게 기술한 부분은 매우 인상적임. 전통 독서 방법에 기초한 초록과 질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돋보이며,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표현함. 모듈 내 충분한 토의를 거쳐 일상용어를 조건에 맞게 정확하게 조사함. 일상용어에 사용된 한자를 바르게 표기하였으며, 한자의 음과 뜻을 기초로 용어를 의미에 맞게 해석함. 특히, 모듈 구성원들 간 의견을 조율하며 원만하게 토의 과정을 이끌어 나간 과정에서 보여준 의사소통능력은 칭찬할만함. 독후 활동으로 진행된 지은이의 마음 읽기에서 모듈별로 배부된 고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공감과 지은이의 숨겨진 마음 찾기를 정확하게 수행함. 고민 카드의 주인공이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과 제안의 독창성이 두드러짐. 지은이의 마음 읽기를 통해 모듈 구성원들 간에 격의 없는 토의가 이루어졌고 상호 경청하고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이 돋보임. 옛 사람의 삶과 기록에서 현재적 가치 찾아 자신의 삶에 내면화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태도는 앞으로의 더 큰 성장을 기대하게 함.

5. 나오며

이 연구는, 모든 교과에서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는 교과 독서를 한문과의 정체성과 교육목표에 맞게 구성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한문교과가 전통 문화의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문 기록 속에 담긴 선인들의 가치관을 통한 인성 역량 함양을 성취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 수업 구안의 중심을 두었다.

독서의 방법으로 조선 독서론에서 [抄錄-疾書-讀其心-猛省]의 4단계를 추출하여 활용하였고, 교과 독서의 내용으로는 학생들에게 친숙하면서도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옛 일기 중 『흙영(欽英)』의 번역서 『일기를 쓰다』를 선정하였다. 조선 시대 선비의 자기고백적 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모듬 단위의 다양한 독후 활동을 통해 생각의 범주를 확장해나갈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으며, 수업의 과정에서 얻게 된 깨달음과 성장을 학생들 스스로 점검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활동별 후기 쓰기’를 병행하였다. 또한, 수업의 전 과정을 수행평가 대상으로 함으로써 실질적인 과정중심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학교 현장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학생 중심, 배움 중심, 과정 중심의 수업 및 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선택교육과정의 확대에 의한 입지의 축소와 입시 중심 교육 구조 속에서 겪는 소외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문 교사들 역시 다양한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고 시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부디 이 연구가 한문 교사들의 노력과 도전에 어깨동무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 교육과정 및 연구보고서

- 경기도교육청(2019), 『교육과정연계 독서수업 사례』, 경기도교육청.
 교육부(2013),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연구』, 교육부.
 교육부(2015a),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교육부(2015b),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 연구보고 RRC 2012-4 「미래사회 대비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구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단행본

- 김하라(2015), 『일기를 쓰다』, 돌베개.
 송승훈(2019), 『나의 책읽기 수업』, 나무연필.
 정민(2002), 『책 읽는 소리』, 마음산책.

■ 학술지 논문

- 김연수(2016),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목표의 한문 교과서 적용 양상 연구」, 한문교육연구 46, 한국한문교육학회.

<토론문>

「한문과 교과 독서 수업 사례」의 토론문

정효영(등촌중)

‘한문과 교과 독서 수업 사례’는 독서 수업의 한문 교과적 적용을 위한 내용과 방법을 구안하고 실제 수업에서 수행한 사례를 제시한 것입니다. 과거 선조들의 독서법을 현재의 학교 수업에 적용한 사례 연구는 전통 문화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수업 방법 자체가 한문과 성취 기준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조들의 수업 방법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실시한 본 수업은 한문과에서 과거 선인들의 학습법을 창조적으로 계승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수업을 진행하며 겪었을 문제에 대한 질문으로 본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한문과의 독서 수업이 다른 교과의 독서 수업과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한문과의 독서 수업이 다른 교과의 독서 수업과 차별화할 수 있는 수업 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책을 읽고, 인상적인 문장을 작성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등의 활동은 다른 교과의 독서 수업과 차별화하기에는 부족한 듯 합니다. 抄錄과 疾書 등 과거의 독서 방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다는 점에서 한문과 독서 수업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으나, 과거의 용어를 사용했을 뿐, 수업 내용은 현대에 실시되는 다른 교과의 독서 수업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현재 한문 원전을 읽고 독서 활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교과 관련 내용의 책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하여 발표하고 생각해보고 내면화하는 것이 현재 독서 수업의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표문에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발표자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한문과의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한문과 독서 수업의 방향은 어떠한가요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 교과 독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발표자의 수업사례를 실제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수업사례의 적용은 잘된 부분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생각과 다르게 진행된 부분에 대한 조언 또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이나 시행 착오 등을 알려주시면 실제 수업 적용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교경전 교육의 미래 전략-『만화 논어』의 경우

함영대(성균관대)·장현곤(광명 광남중)

【목차】

1. 문제 제기
 2. 유교경전 교육의 미래 전략
 3. 콘텐츠로서의 『만화논어』
 4. 남는 문제
-

1. 문제 제기

이 글은 유교경전 교육의 미래전략에 대한 시론적 논고이다. 특히 그 방법론적 문제에 치력하여 유교 경전의 주요한 콘텐츠인 경전의 내용을 ‘만화’라고 하는 효과적인 전달법을 활용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가장 대표적인 유가 경전인 논어를 만화로 제작하여 전달하면서 그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하고자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고려하고 또 그 전달에 있어 어떠한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그런데 새삼스럽지만 유교경전 교육의 미래적 전략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교경전의 교육이 과연 미래에도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좀 더 정직하고 성찰적인 반성이 요청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존의 논의를 한 번 더 환기하고 쟁점을 토대로 경전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설정이 요청된다.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한 설정이 확고하다면 그 방법론의 하나로 콘텐츠의 개발과 활용을 응당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 방법론의 하나로 만화의 기법을 통해 논어에 담긴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며, 만화라는 기법이 고전에 입문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에게 충분히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논어』라는 고전을 전달함에 있어 그 방법론과 문제의식은 매우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방법론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모색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그 고민의 과정을 소개하고 문제의식을 드러내어 논의의 장에서 좀 더 시야를 확장하기를 기대한다.

2. 유교경전 교육의 미래 전략⁸⁾

근래 유교경전 교육에 대한 가장 본격적이 것은 이영호의 논의⁹⁾이다. ‘유교 경전 교육의 과거

8) 이 절의 논의는 함영대(2011), 「經典教育 研究의 성과와 전망」, 『한문교육연구』, 한문교육학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주가 보완한 것이다.

와 현재, 그리고 미래' 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이 논문은 궁극적으로 “오늘날 유교 경전의 무슨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면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내용을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 제기이다. 이영호는 이 글에서 시대별 경전교육의 변화를 지적하여 경전교육이 시대의 정신에 발맞추어 당대의 요청에 대응해 왔음을 논증했으며, 그러한 교육이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교수법 역시 따라서 변화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암송 위주의 교육에서 그림을 통해 유학의 주요 개념을 설명하는 圖說法, 배우는 학생의 학습능력보다 적게 가르치고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동기유발식인 更辛苦, 질문과 답변을 통해 유교경전의 본의를 깨우치는 講과 서신문답을 통해 정지한 독서와 사고를 요하는 問目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영호는 이 논의에 앞서 經傳工夫의 의미와 관련하여 논의를 전개한 적이 있다.¹⁰⁾ 과거 經을 공부한 학자는 傳을 통해 자신의 시대에 대응하는 학술정신을 드러냈는데 그 전제는 당대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문제제기를 통해 시대의 과제를 파악하고 그 다음 세대로 나아가기 위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이나 금전만능주의, 도덕의식의 저하 등은 그것을 진지하게 문제삼을 때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인권의 문제나 성과 관련한 담론 역시 그러하다. 전통적인 유교의 관념에만 그 경전교육의 문제의식을 머물러 둘 것이 아니라 항상 당대의 문제의식에서부터 경전교육의 구조는 항상 새롭게 재구되어야 한다는 무네인식이다.

김용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좀 더 구체적인 경전교육의 실체에 나아가 논의했다.¹¹⁾ 그는 사이버 세계와 현실을 혼동하거나 패륜적인 행위를 하고 역사문화에 대한 존귀함을 간과해 버리는 신세대들에게 전통의 유교사상을 교육하여 방향 감각을 갖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은 물론 자연과의 공존과 조화를 지향하는 유교문화는 인간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지배와 우열로 귀결되는 서양의 논리보다 유의미하며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의 경제적 성장 역시 유교 경전교육의 의의를 배가 시켜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신세대들은 영상매체에 친숙하므로 교수방법의 창신을 통해, 이를테면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영상교육이나 옴니버스식 이야기구성을 통한 교육방법의 전환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으며 그러한 교육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유교경전교육론은 ‘당위’가 아닌 ‘필요’를 자극하여 사회적 이슈로 인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옹당 경청할 만한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문화콘텐츠 개발론으로 이어졌다.¹²⁾ 공자의 ‘仁’ 사상은 미래 인류 사회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 채지충의 동양고전 만화나 우리 전래의 문화를 드러내는 영화들, 또는 역사적 소재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바람의 나라’와 같은 게임은 그 좋은 사례로 제시되었다.

그림1. <채지충의 고전만화>

9) 이영호(2002), 「유교경전교육론에 대한 서설적 고찰(I)-유교경전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동방한문학』 22집, 동방한문학회.

10) 이영호(1999), 「字義分析을 통해 본 經傳의 개념과 經傳工夫의 意味」, 『한문교육연구』 13집, 한국한문교육학회

11) 김용재(2005), 「유교 경전교육의 필요성과 새로운 교육방법론 모색」, 『유교사상연구』 22집, 한국유교학회

12) 김용재(2006), 「동아시아 고전교육과 문화 콘텐츠 개발」, 『한문교육연구』 28호, 한국한문교육학회 .



이러한 콘텐츠화 작업을 통해 한문고전은 생동감 있는 문화유산으로 인식될 것이며, 문명의 이기에 길들여진 신세대들에게도 효과적인 교육적 접근이 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기대 섞인 전망이다.

김용재의 연구는 유교경전 교육론이 유교 사상이라는 토대 위에서 생성되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유교경전이 가지는 현재적 의미를 검토했다. 아울러 교육대상의 특성에 주목하여 유교문화 콘텐츠 제작을 선구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유교 경전의 현재적 의미에 대한 그의 주장이 가지는 설득력과 공감에 대한 기대는 단언하기 어려운 것이다. 문화콘텐츠를 만들자는 주장 역시 수긍할만한 것이지만 제시된 사례는 제한된 주제에 한정된다.

다소 성급한 방법론적 경사가 아닌가 하는 우려는 김용재의 주장에 비판적으로 호응하여 유교경전교육과 그 콘텐츠 개발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진행한 사람은 진성수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는 우선 유교의 미래는 유교 지식인이기도 한 유교 연구자의 몫이므로 유교 본래의 정신과 자기 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¹³⁾ 그는 유교경전교육을 반성¹⁴⁾하는 한편 유교경전의 교육 콘텐츠 활용 방안¹⁵⁾을 제시했다.

진성수는 신세대들에게 전통의 유교사상이 필요하고 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수법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김용재의 주장은 그 진정성은 인정되지만 반드시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유교사상의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과연 현대인들에게 공감될 수 있을 지 미지수인 데다가

13) 진성수(2008). 「유교의 미래와 유교 지식인의 역할」, 『유교사상연구』 31집, 한국유교학회

14) 진성수(2009a). 「유교경전교육을 위한 반성적 시론」, 『한국철학논집』 25집, 한국철학사연구회.

15) 진성수(2009b). 「유교경전의 교육콘텐츠 활용방안 시론」, 『한문교육연구』 32집, 한국한문교육학회.

유교가 현대사회 인간존엄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줄지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유교 경전의 경전화 과정은 ‘서술적인 경험’이 ‘규범적인 경험’으로 전환되는 것이며 禮儀文化의 한 부분으로 당대 지식계층의 인용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경전은 ‘文明의 경전’이지 ‘宗教의 경전’이 아니므로 어떤 특수한 신앙과 만족의 사상체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가치관의 혼란 시대에 가족주의적 경향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유교경전의 교육이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과연 현대인들이 유교적 가치를 진정으로 요구하고 있는가는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재미있으면서 의미있는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요청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교 경전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와 무한한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므로 유교경전교육의 콘텐츠는 아래의 표¹⁶⁾처럼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역	기존의 접근 방법	새로운 적용방안	비 고
1. 남녀	-夫婦有別의 가치강조 -생물학적 男女차이 강조 -남자 위주의 상호윤리강조	-부부의 사회적 역할 변화 인식 -남녀의 사회법률적 평등 인정 -페미니즘과 人權에 관 이해	유교의 외연 확대 (양명학적 접근)
2. 리더십	-君爲臣綱·君臣有義 강조 -제왕적 군주 강조 -내선외왕·술선수범 강조	-전제주의·민주주의 구별 강조 -민주적 리더의 효용성 강조 -소통 공감의 리더십 강조	유교정치학과현대정치학 의 새로운 적용
3. 환경	-天地人合一의 가치 강조 -生生之德의 自然觀 강조 -陰陽二氣·五行論 강조	-자신과 공동체 간의 관계 강조 -인간과 자연의 조화 강조 -21C 지속가능한 환경윤리 강조	건전한 생태주의적 윤리의식 고취

이는 과거 유교의 전통으로 여겨지던 것을 일소하고 현대의 감수성으로 유교경전을 새롭게 이해하고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는 인식의 발로다. 이는 강조의 초점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당대의 문제 인식으로부터 경전교육론은 새롭게 조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영호의 입장과도 맥락이 닿는 것이다. 다만 이처럼 당대의 입장에서 유교경전의 의미맥락을 재구성 하려고 할 경우 매우 철저한 경전에 대한 이해와 사려깊은 교육적 전환이 요청된다는 것 외에도 유교경전의 본래적 구조나 그 의미가 훼손되거나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진성수는 이 외에도 다양한 주장을 제기하는데 ‘한자문화권내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동아시아 한자의 이체자 교육에 대한 지적은 경청할 만하고, 그의 제안은 부분적으로 시도될 수 있는 것이다.

한문과 교육에서 교육용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연구한 백광호의 논의¹⁷⁾ 역시 중요하다. 그는 한문 교육용 콘텐츠가 한시·산문·소설·경서 등 한문학의 장르별 콘텐츠를 만들어 이를 중등학교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국교육자료전에 출판된 한문교과 교육 자료를 제시했다. 아울러 甲骨文을 이용한 한자 학습이나 대중가요를 이용한 성어수업, 콩트 등 드라마 콘텐츠를 활용한 문장 수업을 활용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여기에서는 유교경전 『논어』로 논의대상을 한정하여 좀 더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3. 콘텐츠로서의 『만화논어』

16) 이 표는 진성수(2009a)와 진성수(2009b)에 모두 수록된 것인데 여기서는 좀 더 보완된 것으로 보이는 후자의 논문에서 발췌하였다. 이 외에도 그는 인간복제, 컴퓨터 및 약물 중독, 노사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17) 백광호(2009), 「한문과 수업에서 교육용 콘텐츠 활용 방안」, 『한문교육연구』 32집, 한국한문교육학회

최근 들어 콘텐츠로서의 『논어』를 가장 다각적인 방면에서 논의는 연구는 이하나에 의해 이루어졌다.¹⁸⁾ 그는 『논어』에 ‘孔子’라는 인물의 삶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과 방대한 서사가 존재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인물들의 등장인 문화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기에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논어』가 유교문화의 정신가치를 담고 있기에 유교문화권 국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콘텐츠화 되어야 하는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도 진단했다.

그는 현재 통행하고 있는 텍스트 가운데 영화 <공자>, 만화영화 <공자전>, 출판콘텐츠 『공자, 최후의 20년』, 웹툰 <죽음에 관하여> 중 20화 「논어」 등에서 추출하여 스토리텔링의 실재를 확인하고 각각의 매체가 가진 특성을 살펴 스토리텔링의 현황을 분석했다.

이중에서 웹툰 죽음에 대하여 중 20화 「논어」는 그 형식이 웹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다가 그 표현방식도 매우 참신한 점이 있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1. <웹툰<죽음에 관하여> 20화, 「논어」의 스토리텔링>¹⁹⁾

논어 원텍스트	논어의 1차 콘텐츠	웹툰 (제20화) <죽음에 관하여>
季路問事鬼神，子曰 “未能事人，焉能事鬼？” 曰。“敢問死。” 曰 “未知生，焉知死。” <先進12>	계로가 조상의 영혼을 달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여쭙었다. 선생께서 대답하셨다. 산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죽은 사람을 섬길 수 있겠느냐? 계로가 다시 여쭙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삶의 의미도 모르면서 어찌 죽음의 의미를 알겠느냐?	신: 병원에 오래 있었지? 망자: 네. 신: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어? 망자: 삶도 다 모르는데 죽음을 생각할 시간이 어딴어요? 신: 이야기 한 번 듣고 싶군. 병원에서 어떤 생각을 했어?
子曰，“德不孤，必有鄰。” <里仁25>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수양에 힘쓰면 숨어서 해도 반드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신: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지. 망자: ...하하
子曰，“學而時習之，不亦說乎?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人不知而不慍，亦君子乎?” <學而1>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예를) 배우고 때를 정하여 실습을 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다. 벗이 먼 곳에서 찾아와 주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울분을 품지 않는다.	신: 억울하진 않아? 망자: 남이 알아주지 않았다고 억울할 건 없죠. 나도 남을 알아주지 못할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미 동덕여중 한문교사인 정동운에 의해 만화를 활용한 경전교육의 콘텐츠로 활용된 바 있다. 이를테면 이른 식이다.

여기에 더하여 새롭게 해석된 그림에 대해 해석적 편향을 줄이고 이를 교정하려는 시도도 있다. 만화에서의 표현을 좀 더 원전에 가깝게 학습하려는 중등 한문교육 현장의 분위기이다. 그림체의 간결함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의미가 없지 않다.

18) 이하나(2015), 「『論語』의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양상과 가능성」, 『민족문화』 46, 한국고전번역원

19) 위의 글, 334~335면 인용. 특히 이 표의 내용에 있어서 이하나는 1차 콘텐츠에 대한 정리를 미야자키 이치사다의 『논어』를 활용했다.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

살도 다 모르는데 죽을 생각할 시간이 어딴어요.

未知生焉知死

미 지 생 언 지 사
아니다 알다 알다 어지 알다 죽다
살도 아직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남이 알아주지 않았다고 억울할 건 없죠.

나도 남을 알아주지 못했까 걱정하는데요.

不患人知不已知

아니다(불) 근심(환) 사람(인) 알다(지) 아니다(불) 몰(기) 알다(지)

患不知人也

근심(환) 아니다(부/불) 알다(지) 사람(인) 어조사(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할지니.”

나야 젊은 여분들에게 “나라면 안성이다.”

친구들에게 “나라면 믿을 수 있다.”

어린 친구들에게 “제 형이면 믿고 바를 수 있다.”

老者安之 朋友信之 少者懷之

노 자 안 지 붕 우 신 지 소 자 회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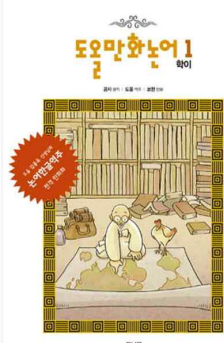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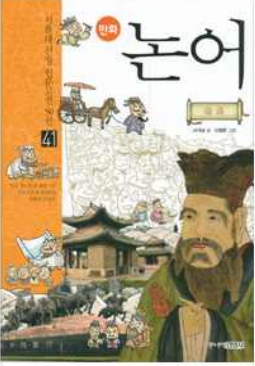
A해석 :

늙은이를 잘 봉양하여 편안케 해주고,
친구를 잘 사귀어 믿음을 주고,
젊은이를 잘 품어주어 은혜를 베푼다.

B해석 :

늙은이들이 나를 편안하게 느끼고,
친구들이 나를 믿음직스럽게 여기고,
젊은이들이 나를 그리워한다.

이 외에도 만화로 논어를 읽고자 하는 움직임이나 그러한 여망을 실현시킨 만화 논어는 꾸준히 출간되고 있다. 다음은 그 가운데 일부이다.

<p>만화로 읽는 교양 철학</p> <h1>논어</h1> <p>김부일 지음</p>  <p>"아직도 논어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책으로"</p>		
<p>김부일, 2019</p>	<p>도올 역주 / 보현 그림, 2013</p>	<p>서기남, 2009</p>

그 장면들을 다시 살펴보면 설명하고자 하는 논리는 만화라는 기법에 담아 제시한 것이다. 김부일의 교양철학 논어는 그러므로 긴 설명을 먼저 제시하고 그 내용과 논어를 연관시킨다. 이러한 서술은 자신의 논점에 대한 주장을 논어라는 고전으로 인증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므로 만화의 다음에 거의 강의에 가까운 다음과 같은 설명이 덧붙여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이러한 방식이라면 이것은 만화의 형식을 차용한 철학 강의서라고 해도 무방하다.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聖人, saint)이란?

첫째는 **예의 창작자**라는 의미이다. 성인이란 예를 만들어 인류에게 문명을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 해석한다. 예는 원래 고대 중국 사회에서 행해졌던 전통적인 모든 관행을 정리하고 제도화한 것으로 그 기원은 분명치 않다. 유교에서는 예(전통적 문명)는 전설상의 제왕인 요·순과 하왕조를 창시한 우·은의 탕왕, 주·의 문왕·무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전해졌으며, 주공에 의해 대성되었다. 그 후 공자와 맹자에 의해 후세에 전해져 오늘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사람을 작례성인(作禮聖人)이라 하여 우러러 보았다.

둘째는 **예의 체득자**라는 의미이다. 예는 사회의 여러 관행을 제도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람이 행해야 할 길(규범)이라는 성격이 있다. 그리고 성인들은 예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의 체득자였다는 것이며, 예의 체득을 목표로 하는 유교의 이상적 인격상이 되기에 이른다. 거기에서 성인은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생겨났다. 실제로 조선의 여성유학자인 임윤지당은 조카들에게 “학문을 하면 사람은 서늘한 기운이 나와 부채질을 하지 않아도 더위를 잊는다.”고 말하며 항상 공부에 힘쓰라고 격려했을 정도로 학문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사람은 학문과 학문의 실천을 통해 성인 곧 이상적 인격을 갖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도올의 만화 논어는 유튜브의 해설이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이 유명한 도올 김용옥의 만화 논어는 그 저자가 김용옥이 아니다. 교보문고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올 만화논어』는 도올 김용옥선생의 『논어한글역주』를 저본으로 하여 만화가작가 보현이 그린 고전 만화입니다. 『논어』 499장 전체를 한 구절도 빠짐없이 만화책 5권으로 쉽게 풀어내었습니다. 만화에 한문의 원문이 한글발음과 함께 모두 실려 있고, 낱말이 번역됩니다. 이 책의 탁월성은 『논어』에 대한 역대 중요한 주석을 모두 망라하여, 21세기 현대에 가장 알맞게 풀이한다는 것입니다. 난해한 구절에서는 중국 한나라 때의 고주(古注), 송나라 주자의 신주(新注),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의 『논어고금주』, 일본의 근대를 준비한 에도시대 고학파의 논어주석들이 서로 비교되면서, 항상 현재적 의미를 얻는 이해 가능한 해석을 이끌어냅니다.”

이 만화의 저자 보현은 철학과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서기남의 『만화 논어』는 “『서울대 선정 인문고전』 시리즈의 제41권으로. ‘어렵고 따분한 인문고전을 재미있는 만화로 각색하여 쉽고 재미나게 짚어주는 어린이용 인문 교양서’라고 소개되고 있다. 특히 판매처에 따르면 ”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서울대 출신의 학자, 연구자,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원서를 연구하여 밑글을 집필했고, 중견 만화가들이 만화로 재구성 “하여 ” 제목만 알고 있을 뿐 쉽사리 읽을 엄두가 나지 않는 인문교양서를 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 했다고 강조했다.²⁰⁾

그림체는 대개 두 패턴을 보이는데 하나는 현실을 빗대어 고전의 의미를 해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전의 내용을 만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20) 인터넷 교보문고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6176857

이러한 접근은 『논어』라는 텍스트의 성격상 불가피한 점이 있다. 그러나 만화적 장치를 사용했을 뿐 온전히 체화된 『논어』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민했는데 그것을 만화 논어의 프롤로그로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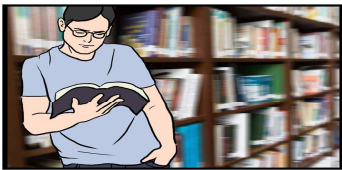
프롤로그



안타깝지. 논어만 해도 진정한 풀이가 없다면 일반 독자 중에 누가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 내가 고민했던 것도 바로 이거야. 고전을 만화로 만들어보자!



박동진(한문교육 95)
서울문영여중 교사.
이번 기획에 스토리 담당.



장현곤(한문교육 95)
교사, 한문학과 박사과정.
이번 기획에 작화 담당.



함영대(한문교육 95)
연구원/문학박사, 한국경학 연구.
이번 기획에 해설 담당.

논어를 세상에 전하다 장현곤, 함영대, 박동진 동문 | 인물포커스 / 성균웹진

2017. 12. 20. 11:20

<http://blog.naver.com/good7101910/221167256098> [복사](#)

[번역하기](#)

[전용뷰어 보기](#)

우리 셋이면 할 수 있어.
『논어』를 만화로
만들어보자!



박동진 (한문교육 95)
서울문영여중 한문교사
스토리 담당



장현곤 (한문교육 95)
한문학과 박사과정
광남중 국어교사
작화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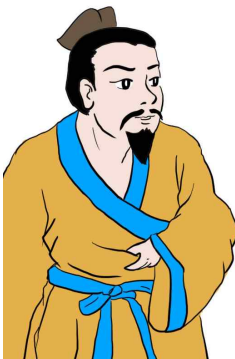




함영대 (한문교육 95)
대동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해설 담당

논어는 공자의 말씀이 담긴 책으로, 현대인들에게 의미있는 가르침을 준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성균논어> 수업을 듣느라 진땀을 뺀다. 어렵고, 따분하고, 어쩔 수 없이 듣는 필수교양 수업으로 여기는 사람도 보인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논어구절을 만화로 흥미롭게 풀어낸 '만화로 읽는 논어 이야기'를 연재 중인 세 사람이 있다. 장현곤, 함영대, 박동진 동문은 우리학교 한문교육과 95학번에 나란히 입학한 이후로 현재까지 서로 절친한 친구이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해오다 논어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보여주자는 마음으로 뭉쳤다. 장현곤 동문(한문교육 95)이 말하는 친구들과 논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만화 제작은 우선 만화 내용이 될 논어 구절 선정과 그 구절에 대한 이해와 토의에서 시작된다. 이를테면 초기에 진행되었던 가족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효'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만들었을 때에는 논어 구절이 결정되면 박동진과 장현곤이 그 내용에 알맞은 만화 콘티를 만들고, 함영대는 해설 작업을 하며 다시 최종 작화와 마지막 편집 작업을 하는 식이다. 21)

초기 작업시 인물설정

			
캐릭터 작업-공자	제자	할아버지	소진

초기 작업의 시안

21) [출처] 논어를 세상에 전하다 장현곤, 함영대, 박동진 동문 |인터뷰 기사
<http://blog.naver.com/good7101910/221167256098>

孝 01 - 부모의 마음



선생님. 효란 무엇입니까?



만화논어 주제별 갈래 (상10편) 2016. 8. 19 / 번역은 이을호 한글논어 참조

1. 공부의 즐거움, 진리를 찾아서

공선생 “배우는 족족 내 것을 만들면 기쁘지 않을까! 벗들이 먼데서 찾아와 주면 반갑지 않을까? 남들이 몰라주더라도 부루통하지 않는다면 참된 인간이 아닐까!” <학이 1>

선생 “젊은이들은 집에 들면 효도, 밖에서는 우애, 성실한 행동에 믿음직한 말씨, 범범하게 대중을 사랑하되 사람다운 이와는 더욱 가까이해야 한다. 그러고도 틈이 나거들랑 글을 배워야지.” <학이 6>

자하 “계집을 탐내듯 잘난 이를 존경하며, 부모를 위해서는 뼈가 닳도록 정성을 다하고, 임금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며, 벗들과 사귄 적에 빈말을 하지 않는다면, 비록 글을 안 배웠을망정 나는 그를 배운 데가 있다고 할 테야!” <학이 7>

1-2 교육

선생 “좋은 인물이 백성을 가르치되 친 년이 되면 전쟁에 내보낼지도 할 거야.” <자로 29>

선생 “교육 없는 백성을 끌고 전쟁한다면, 그것은 죽여 버리는 것이라고나 할 거야.” <자로 30>

선생 “교육에 차별은 없다.” <위령공 38>

2. 효제에 대한 생각

유선생 “효, 제의 도를 아는 사람은 윗사람에게 함부로 굴지 않을 거야! 윗사람에게 함부로 굴지 않는 사람이 난리를 꾸민 예는 절대로 없다. 참된 인물은 근본 문제를 다루거든, 근본이 서야 길이 트이기 때문이다. 효제의 도가 바로 사람 구실하는 길의 근본일 거야!” <학이 2>

선생 “아버지 살아 계실 적엔 그의 뜻 받들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의 하신 일을 본받되, 삼 년 동안 아버지의 법도를 뒤집지 않으면 효자라 해도 좋을 거야!” <학이 11>

2-1 상례와 제례

증 선생 “상례나 제례를 극진히 모시게 하면 민심은 순후하게 될 거야!” <학이 9>

선생 “제 조상도 아닌데 제사를 모신다면 아첨하는 거다. 정의를 보고도 주춤하는 것은 용기가 없는 탓이야.” <위정 23>

자유 “상례는 슬퍼만 하면 그만이야.” <자장 14>

2-2 예절에 대하여

유 선생 “예법을 차리는 데도 부드러운 게 좋지. 옛 어른들의 예법은 그렇기에 아름다웠고, 아래를 통틀어 그렇게 했느니라. 그러나 하지 않는 대목이 있었으니, 부드럽게 할 줄만 알았지 예법으로 매듭을 못 맺는 따위의 것은 하지 않았거든.” <학이 12>

선생 “사람이 사람답지 않으면 예법을 무엇하며, 사람이 사람답지 않으면 음악은 무엇하노? <팔일 3>

임방이 예법의 근본정신을 물은즉, 선생 “옳지, 좋은 질문이다. 예식은 사치스런 것보다 검소한 것이 좋고, 장례식은 번지르르한 것보다 슬픔이 넘쳐야 한다.” <팔일 4>

선생 “윗사람이 예법을 좋아하면 백성들도 부리기 쉽다.” <헌문 43>

3. 행동거지, 마음자세에 대하여

선생 “말을 꾸며대며 얕전한 체하는 것은 아마 사람다운 사람은 하지 않을 거야!” <학이 3>

선생 “말을 꾸며대며 얕전한 체하는 것을 아마도 사람다운 사람은 하지 않을 거야!” <양화 11>

선생 “옛사람들은 좀처럼 말문을 열지 않았다. 실행이 못 미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인 22>

3-1 부끄러움 : 원현이 부끄러움에 대하여 물은즉, 선생 “나라의 질서가 섰을 때도 국록을 먹고, 나라의 질서가 문란할 께에도 국록을 먹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걸.” <헌문 1>

용기 : 선생 “올바른 사람은 반드시 바른 말을 하지만 말을 잘한다고 반드시 올바른 사람은 아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반드시 용기가 있지만, 용기가 있다고 반드시 사람다운 사람인 것은 아니다.” <헌문 5>

3-1 쓸모있는 인간, 사람구실

선생 “말씀씨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진실한 인물이라고 할까! 불품만 좋은 사람이라고 할까!” <선진 20>

선생 “쓸모 있는 인간은 외통수는 아니다.” <위정 11>

만화 주제별 갈래 정리 : 논어 2장. 공자가 말하는 友道와 親交에 대하여 (2017. 8. 9)

1. 누구를 사귄 것인가?

“여러 사람들과 격의없이 친근하게 지내되 특히 인격이 높은 사람과는 각별하게 사귀어야 한다.” <학이 6>

“중용의 덕을 구비한 인물을 벗으로 삼을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열정적인 사람이나 결백한 사람을 벗으로 삼아라. 열정적인 사람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결백한 사람은 함부로 타협하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14헌문21>

“유익한 벗이 셋이요, 손해 보는 벗이 셋이다. 곧은 이와 벗하고, 믿음직한 이와 벗하고, 박학한 이와 벗하면 유익하다. 편벽스런 이와 벗하고, 능글능글한 이와 벗하고, 재잘거리는 이와 벗하면 손해 본다.” <16 계씨 4>

* 인격자와 사귀고 중용의 덕을 가진 사람을 사귀고, 열정적이거나 도덕적으로 결백한 사람을 사귄다. 정직하고, 신의가 있으며, 박식한 사람을 사귄다. 편벽하고 능글스럽고, 말 많은 이와는 사귀지 않는다.

2.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사귄 것인가?

“안평중(晏嬰)은 누구와도 잘 사귀었다. 오래되도록 공경하였으니 <공야장-17>

“원망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과 사귀는 것을 좌구명은 부끄럽게 여겼는데 나도 또한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공야장 25>

“세 사람이 걸어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거기에 있기 마련이다. 그 잘하는 사람을 가려 따르고, 그 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는 반면교사로 삼아 내 행실을 고친다.” <술이21>

친구가 죽고 의지할 데가 없으면 “내 집에서 얹하라”고 하셨다. 친구의 선물은 비록 수레나 말같이 어마어마한 것이라도 제사에 놓였던 고기가 아니면 절하지 않았다. <향당23>

자공이 벗에 대하여 물으니 공자 말했다.

“진심으로 타일러서 잘 인도하도록 하되 듣지 않거든 그만두어라. 모욕을 당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안연 23>

* 오랜 벗과도 공경하며 진심으로 사귀며 누구나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사귀다. 친구의 경제사정을 돌보되 예법을 지킨다. 그리고 충고는 정도껏 한다. 그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다!

3.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공이 물었다. “한마디 말로 종신토록 실천해야 할 것이 있는지요?”

공자가 답했다. “충일 것이다. 자기가 하지 않으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려해서는 안된다.” <15위령공24>

중궁이 인에 대해 묻자 공자가 말했다.

“대문 밖을 나가 남과 만났을 때에는 언제나 國實을 맞이한 듯이 대하며 ... 자기가 남에게 당하지 않은 일은 남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면 나라를 섬겨도 원망이 없고, 가정에서도 원망을 사는 일이 없을 것이다.” <12안연-2>

“스스로를 깊이 살피고, 다른 사람을 꾸짖는데 관대하면 원망을 멀리할 수 있다.” <15 위령공 15>

* 남의 원망을 사지 않는 법 -내가 싫어할 만한 것은 그에게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에게 엄할 뿐 남에게 선불리 충고하지 마라! 그 말을 받아들일지 모르지 않은가?

“남이 나를 몰라주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남을 모르는 것이 걱정이야.” <학이 16>

“군자는 자기 재주가 모자람을 걱정하지만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는 않는다.” <15위령공19>

* 지나치게 나를 의식하지 마라! 문제는 그들이 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모르는 것이다. 늘 문제는 남들을 잘 몰랐던 데서 시작된다!

“군자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주고, 남의 나쁜 점을 이루도록 하지는 않는다. 소인은 이와 반대로 한다.” <12안연-16>

“남과 조화는 하되 부화뇌동하지는 마라 소인은 부화뇌동하고 조화하지 못한다.” <14헌문-23>

* 남을 좋게 한다. 그러면 그들도 나를 좋게 여긴다. 다만 그것이 조화가 아닌 부화뇌동이어서는 안 된다. 진심이 아닌 것은 남들도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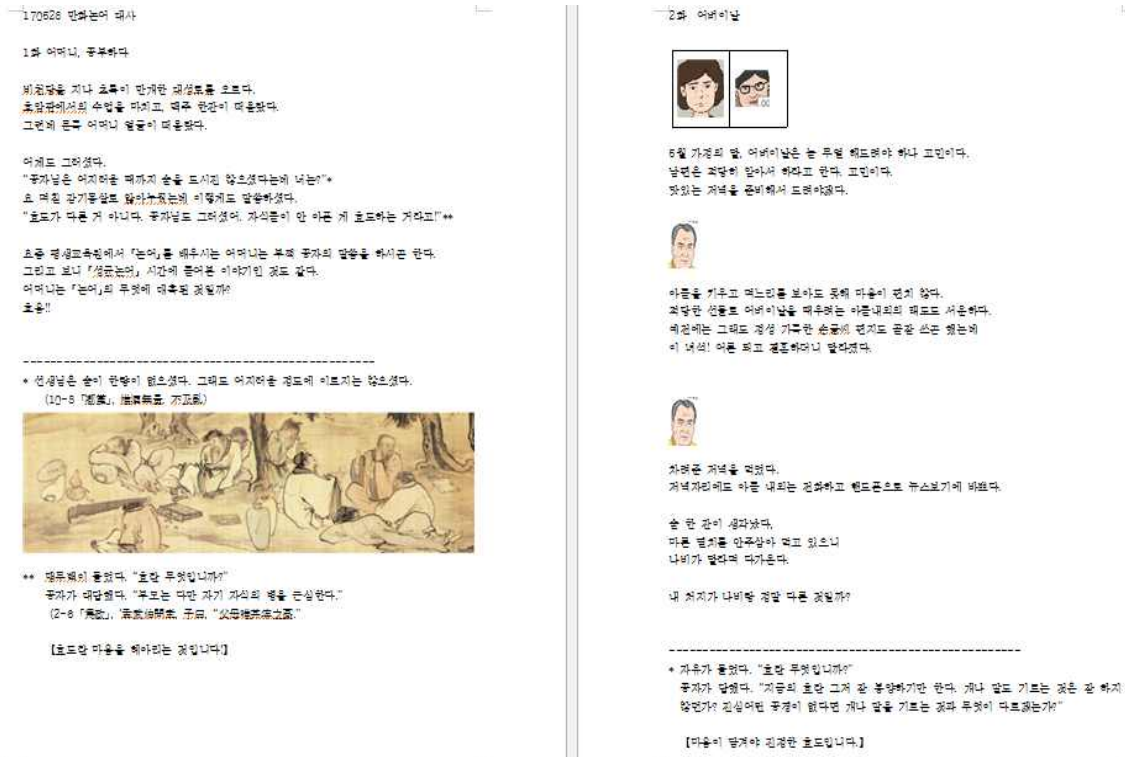
“함께 이야기 할 만 한 인물인데도 같이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잃는 것이다. 함께 이야기 할 만하지 못하는데도 같이 이야기 하는 것은 말을 잃는 것이다. 지혜있는 사람은 사람을 잃지도 말을 잃지도 않는다.” <15 위령공 8>

“함께 배울 수는 있어도 함께 길을 갈 수는 없는 경우가 있으며, 함께 길을 갈 수 있어도 같은 위치가 설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함께 같은 위치에 설 수 있어도 함께 걸맞는 융통성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다.” <자한 30>

“길이 다르면 서로 의논할 것도 없다.” <15위령공 39>

* 어디까지 말할 것인가? 저는 과연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상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은 여전히 중요하고도 어렵다.

초기작업의 단면



출판사 편집자의 의견

현상철 선생님 의견 (170803)

보내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점점 모양이 갖춰지고 있어서 좋습니다.

- 서체: 디자이너용 맥 컴퓨터엔 편집용 서체가 깔려 있을 듯한데, 접근이 여의치 않아서, 요새 웹 콘텐츠에서 범용되는 나눔 글꼴

(http://software.naver.com/software/summary.nhn?softwareId=GWS_000322) 가운데 나눔명조나 나눔고딕을 사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 해설: 이걸 만화의 내부의 '내레이션' 처럼 처리할까,

혹은 레이아웃 잡아서 '책의 한 판면을 디자인' 하듯 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 (1) 웹상의 만화로 보기엔, 해설의 양을 조절해(현재 텍스트 량보다 조금 줄여서 간결하고 담백한 느낌이 들도록) 내레이션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 듯하고,
- (2) 책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 다른 요소들(별도의 사진/그림 도판, 논어 해당 구절 원문, 한자어 병기...)까지 추가하여 제대로 디자인(물론 간결하고 담백한 느낌이 들도록)을 해봐도 좋을 듯싶고요...











- 프롤로그 부분은 하나의 에피소드(話)로 처리하기에 좀 짧은 듯해서, 세 분 모여서 토론하는 장면, (공자와 제자들 장면), 가족 구성원(등장인물들) 등을 추가하고 내레이션을 함께 어울려 배치해보면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만화 논어 1화 : 어머니 공부하다.

<p>만화로 읽는 『논어』 이야기</p> <p>001. 어머니 공부하다.</p>   	  	  	 <p>『논어』를 읽는 사람도 계속 고민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p> <p>『논어』를 읽는 사람도 계속 고민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p> <p>『논어』를 읽는 사람도 계속 고민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p>
--	---	--	---

생활 속의 논어로 기획했다. 가족 시트콤의 형식으로 논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작업의 컨셉을 독자에게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가족 시트콤’ 형식의 프롤로그 편이다. 이 당시 논어는 이 집안의 일상 속에서 설명할 것으로 기획했다.

2화 : 아버지 날

<p>제 2 화 아버지 날</p>   	  	  	 <p>효도하기 어렵고 효자가 되기는 더욱 어렵다. “우리 집 남편이 정말 효자입니다.”</p> <p>이런 말은 정당한가?</p> <p>공자의 시대도 효자는 적었나 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p> <p>“효를 효라는 것은 말 통하는 것만을 이르는 것이다. 하지만 개나 말도 모두 잘 기르고 길게 길러준다. 아버이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p> <p>효에 대해 묻는 제자는 자못 당혹스러웠다. 그는 문밖으로 이물났고 무심코 지나가는 것을 다스릴 때는 배워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공자에게 질문도 받았다.</p> <p>그런 자에게 공자가 한 말이다. 현제도 의미가 있는 말로 가깝지 않은 말이다.</p>
--	---	--	---

간결한 그림과 간결한 설명의 경우 : 위 예시는 ‘가족 시트콤’ 형식의 일례로 ‘효’의 진정한 의미가 그 주제다. 필자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쓸쓸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병치시켜 독자들에게 효의 의미를 상기시키고자 했다. 초기작에서는 간결한 내용과 인상 깊은 이미지로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는데, 콘티 작업 중 만화 본연의 재미가 적다는 의견이 있어 스토리 라인에 흥미요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아! 효는 우리 마음에서 멀리 있지 않다.
돌아가진 부모를 그리워하는 자식의 마음이다.

위 예시는 독자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 논어의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그 의미를 짚어보는 데는 적지 않은 연관이 있다. 비평적 논어읽기이다.

12화 오래된 친구를 대하는 법





 <p>여보, 다내올게.</p>  <p>많이 늦어요?</p>  <p>오랫만에 동창 모임이라 늦을 것 같아.</p>  <p>그래, 힘들었겠구나.</p>  <p>정직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완벽해.</p>  <p>야!</p>	 <p>민석이 녀석 또 저러네.</p>  <p>자식, 참난 좀 흰 것 가지고...</p>  <p>동작~ 오랜만이다.</p>  <p>야! 우리 사이가 옛날때 비지도 그러냐?</p>  <p>오랜만이야 그라지, 오랜만이야 저하원!</p>  <p>민석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무례하군.</p>  <p>원본크기 화면확대</p>	 <p>이제 말했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연락해.</p>  <p>고맙다. 조연 고마웠어.</p>  <p>정직이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제마 바른 친구야.</p>  <p>조만간 다시 한 번 만나야겠다.</p>  <p>그런데 민석이 녀석은 어떻게 만날 때 마다 변한 것이 없어.</p>  <p>너무 무례해서 만날 때 마다 불쾌해.</p>	<p>살아있는 친구들</p> <p>죽마고우라 하면 대개 동년배친구들이나 초등학교 친구들이 많다. 시비독살을 따지기 전에 알고 사귀었던 사이라 허물이 없고 굳이 예를 따지는 것도 어색하다. 짝어도 남들과는 다른 사이라고 편히 여긴다.</p> <p>그런데 가족들에게도 할부로 하면 상처가 된다. 친구일수록 각별히 살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p> <p>오래도록 친구를 잘 사귀는 것을 두고 공자가 한 말이 있다.</p> <p>“안행중은 사람과 잘 사귀는구나 오래도록 사귀면서도 공경하니!”</p> <p>안행중은 널리 알려진 제나라의 형제인 안행(安行)이다. 안행의 반대로 제나라 동용이 무산된 공자했지만 안행의 사람 사귀는 태도만큼은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p> <p>안행은 『사기』 「관안열전」에 수록되어 관중과 아케를 나란히 했다. 사마천은 기꺼이 그를 위해 수려의 재력을 잡겠다고 했다.</p> <p>안행은 영공·장공 경공을 섬기며 국정을 맡아 명장 사마염직을 추천하여 국력을 다지고 평범한 군주였던 제경공에게 건언하여 제나라의 두 번째 번영기를 이끌었다. 그가 죽자 제경공은 직접 말을 몰아 조문하며 애도해 했다.</p> <p>“오래도록 사귀면서도 공경한다.”</p> <p>안행은 벼들에게 하듯</p>
--	--	---	---

깊어지는 그림체, 해설의 만화적 요소가 좀 더 강화되었다. 그런데 스토리 라인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불기피한 전환이 요구되었다. 간결한 그림체와 설명으로 전환했다.

15화 누구에게 배울 것인가? 그림체의 변화

 <p>우리는 항상 같이 했다.</p>   <p>이 녀석에게 배울 것이 많다.</p>	 <p>저 녀석은 네번 문제를 일으켰다.</p> <p>이젠 뉘이다.</p>  <p>그 녀석은 이제 다른 일을 한다. 모두를 위해 달린 일이다. 그 녀석에게 배우게 되다니... 그 녀석처럼 되지 말아야지.</p>	 <p>그런데, 조금 껌뻑한 이 기분은 무엇일까?</p>	<p>주요내용 정리하기</p> <p>누구에게 배울 것인가?</p>  <p>의혹을 품어주는 사람은 스승이다. 가르침을 주는 사람은 모두가 스승이다.</p> <p>좋은 것을 일깨워 주는 사람은 교사이다. 좋은 것을 일깨워주는 사람은 반면교사이다.</p> <p>세 사람이 동행하면 스승이 그 가운데 있다. 좋은 것을 보고 배우고 나쁜 것을 보고 고친다. 두 사람도, 한 사람도 스승이 될 수 있다.</p> <p>그에게서 배우려고 한다면, 동행하는 누구라도 스승이 된다. 나를 돌아볼 준비가 되어 있다면.</p> <p>누구에게 배울 것인가? 누구에게나 배운다. 나를 배우어 볼 수 있다면.</p>
--	---	---	--

17화 남을 제대로 알지 못할까 염려해라

 <p>아무도 날 몰라준다. 그래서 경그림난다. 난 예쁜 나비인데...</p>  <p>그건 저런 녀석들 때문이다. 내가 봐도 경그림다.</p>	 <p>어!? 저 녀석이...</p>  <p>예쁘다.</p>	<p>주요내용 정리하기</p> <p>“남이 몰라주어도 화내지 않아야 군자가 아니겠는가?”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 하지 말고 남을 제대로 알지 못할까 염려해라”</p>  <p>공자의 말이다.</p> <p>공자의 제자들이 스승과 자신들을 몰라주는 세상에 대해 불평할 때 답한 말일 것이다.</p> <p>제주를 품고도 알아주는 이를 만나지 못하는 처지. 회재불우(懷才不遇)는 슬픈 위인들의 역사적 현실이다.</p> <p>그런데 그들은 왜 불우했을까? 혹시, 군주가 그를 몰랐고 사람들에게 추천받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p> <p>자부심과 울분으로 추천하는 자, 자신을 알아보는 자에 대해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자신들을 평가하는 그들에 대해, 세상에 대해 제자들이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일깨운 것이다.</p> <p>자신에게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남도 보라고, 그들의 생각도 한번 살펴보라고! 위로하고 권면하면서</p> 
---	---	---

해설이 그림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스토리를 콘티로 작성하기 어려운 내부적인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시트콤 형식의 스토리 전개에서 간결한 우화 형식의 미전달로 그림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20화 교육에서의 유대감 또는 거리감에 대하여

<p>제20화 선진 先進</p> <p>— 교육에서의 유대감, 또는 거리감에 대하여</p>  <p>낡았지만 편안한 신발</p>  <p>익숙해서 내 몸 같은 도구</p>	 <p>오래 시간 흐름을 맞춰 내 뜻이 되고.</p>  <p>오래 되어 깊은 맛을 지닌 잘 익은—</p> <p>사람이란?</p>	<p>사제지간에 수제자는 종종 손자뿐 제자일 때가 많다. 덜 엄격하고 사랑하기 좋은 거리 때문일까?</p> <p>장은 목어야 좋고 사람은 오래될수록 좋다.</p> <p>공자도 오랜 제자들을 챙겼다. 만일 누군가를 쓸 것이라면 문화에 한걸 익숙한 후배들보다 거칠고 야만스럽지만 그래도 선배들을 쓸 것이라고 했다.</p> <p>오랜 시간을 함께한 정은 문화적 문벌력을 넘어 이렇게 생리적으로 다가오는 것인가 보다.</p>
--	---	---

위의 경우는 그러한 방향이 더욱 추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한 경우이다. 곧 이미지의 결합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해설을 통해 보완하려 했다. 그림을 보고 해설하는 순서에서 해설을 통해 그림을 그리는 방법론상의 전개도 새롭게 시도되었다.

만화논어 작업을 진행하면서 논어 텍스트 자체를 몇 가지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어떤 구절은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스토리 라인이 필요했고, 어떤 구절은 내용 설명에 직관적인 삽화가 적절했다. 위 예시는 직관적인 삽화와 짧은 설명이 곁들여진 것으로 근래 작업한 내용들이다.

4. 남은 문제

『만화논어』를 통해 우리는 고전을 좀 더 비평적 안목으로 검토하려 했다. 그러나 고전의 교육적 측면에서 그러한 접근이 온전히 의미있고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적이다. 이 『만화논어』는 성균관대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 웹툰 형식으로 먼저 게시되고 이를 만화책의 형식으로 보일 예정이다. 그러한 작업 환경상의 이유로 만화논어의 독자는 우선 대학생과 교직원을 염두에 두었다.

소재에 대한 완벽한 장악이 여전히 아직 미진하고, 전개하고 있는 방법과 기대하는 교육적인 효과 사이의 유기성에 대한 확신은 아직 미흡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논어의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만 만화논어를 집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논어를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가가 우리 집필자의 숙제로 남아 있다.

<토론문>

「유교경전 교육의 미래 전략」의 토론문

임종수(감신대)

<별지 참조>

대학교 한문학 교육에서의 한시 강의 현황 및 개선 방안

이현일(성균관대)

【목차】

1. 현황과 문제
2. 문제에 대한 淺見
3. 전통적 관점에서 본 시와 시 교육의 효용성
4. 反知性主義를 넘어서

1. 현황과 문제

발표자는 이 글을 준비하면서 우선 한문교육과와 한문학과가 설치된 전국 대학의 한시 담당 교수님들께 한시 관련 강좌 현황과 그 개선 방향에 대한 高見을 알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¹⁾ 요청을 받은 교수님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인 강원대학교, 고려대학교, 경상대학교, 계명대학교, 경북대학교, 단국대학교, 부산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전주대학교, 조선대학교 등 12개 대학교에 재직 중이신 여러 교수님들께서 회신해 주셨다.²⁾ 여기에 성균관대 한문학과와 상황을 추가하고, 발표자 역시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과에서 전공과목으로 개설되는 한시 강의들인 <歷代漢詩選讀>, <韓國漢詩特講>, <漢詩論>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모두 13개 대학교의 14개 학과의 한시 관련 전공 강의를 중심으로 그 현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려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한시 관련 강의는 한시를 골라 읽는 작품 選讀, 이론을 강의하는 漢詩論, 한시와 관련 깊은 詩話 강독까지 포함된 것이다. 각 학과의 담당 교수님들이 보내 주신 설문지를 바탕으로 한시 관련 전공 강의 현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강원대학교 한문교육과

<中國詩歌選讀>(전공선택): 중간고사 이전에는 『詩經』, 『楚辭』, 漢魏古詩, 南北朝時代 시인 선독. 중간고사 이후에는 唐詩와 宋詩 선독.

<韓國漢詩講讀>(전공선택): 삼국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 한시 선독.

- 1) 문의한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개설된 한시 관련 강의의 명칭과 교수 내용, 둘째 대학교 전공 한시 교육의 문제점이었다.
- 2) 설문에 응해 주신 분들은 김봉남(영남대), 김승룡(부산대), 김여주(성신여대), 김형술(전주대), 박종훈(조선대), 윤호진(경상대), 이국진(강원대), 이의강(원광대), 이종문(계명대), 임준철(고려대), 정재철(단국대), 황위주(경북대) 교수님이시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漢詩論>(전공선택): 한시 작법과 형식 심화 강의, 한시 작법과 형식을 바탕으로 작품 감상.

<漢詩特講>(전공선택): 한시 비평론, 한국한시사 강의.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漢詩의 理解> : 한시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 종류, 운율, 대우, 표현 비유 등을 종합적으로 강의함.(황위주, 『한시란무엇인가』, 지성인, 2018.)

<漢詩講讀>: 韓國漢文學會編 『詩選』을 중심으로 한국 한시를 강독함.

* 경상대학교 한문학과

<漢詩選讀1> : 한문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접근을 위해 중국의 대표적인 한시를 강독하고 감상함으로써 한시를 분석하고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한다.

<漢詩選讀2> : 한시선독1에서 익힌 중국 한시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선인들이 쓴 한시를 강독하고 감상함으로써 한시를 분석하고 비평할 수 있는 시각을 넓힌다.

* 계명대학교 한문교육과

<漢詩選讀(중국한시)>: 개강 초에 고체시, 근체시 등 한시의 형식, 한시 이해를 위한 기본적 전제에 해당하는 사항 등을 설명한 뒤, 『詩經』부터 중국 역대의 중요 한시를 강독하고 분석함.(원래 과목명이, <中國漢詩>였으나 교육부에서 한문교육과에 요구하는 기본이수과목의 명칭에 맞추어 <漢詩選讀>으로 명칭 변경함.)

<韓國漢詩>: 한국 한시사 출발 초기부터 조선후기까지 한국한시사를 몇 개의 시대로 나누고 각 시대별 한시사의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한 뒤 해당시대의 중요 한시를 강독하고 분석함.

*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漢詩의 世界>: 한국 한시의 역사를 살펴보는 강좌.

<漢詩 名作 鑑賞>: 한국 역대 명시 작품 강독.

* 단국대학교 한문교육과

<漢詩選讀>: 한국 한시를 시기별(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으로 나누어 강독.

<漢詩特講>: 중국 唐詩를 시기별(초당, 성당, 중당, 만당)으로 나누어 강독.

<漢詩論>: 한시의 종류, 한시의 형식, 한시 작법, 한시 비평 등을 강의.

*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과

<歷代漢詩選讀>: 우리나라 역대 한시(상고시대~고려말에서 조선초) 작품 강독.

<韓國漢詩特講>: 조선전기(徐居正~李達) 한시사 위주로 진행.

<漢詩論>: <詩經>의 四言詩부터 五言古詩, 五言絶句, 七言絶句, 五言律詩 등 詩體에 따

라 강의하며, 중국과 우리나라 작품을 2대 1 정도로 배분.

*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歷代漢詩選讀1>: 한문학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시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접근을 위한 교과로, 중국의 『詩經』으로부터 각 시대별 중요 시인들의 시를 선별 강독한다.

<歷代漢詩選讀2>: 우리나라의 중요 시인들의 시를 선별 강독한다.

<漢詩와 傳統藝術>: 그림에 적은 題畫詩와 동양화의 관계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韓國漢詩美學>: 찬란히 꽃피었던 우리의 한시문학을 체계적으로 분석, 검토함으로 그 미학적 가치와 시대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던 시 이론을 찾아보고 비평 안목을 높인다.

* 성신여대 한문교육과

<漢詩教育論>: 중국 한시 중 유명 시인의 몇 작품을 다룬 다음 한국한시로 들어감. 우리나라 삼국 시대~고려말 대표작가 한시 작품 강독 및 감상. 작가 특징 및 시대적 배경 탐구함.

<漢詩特講>: 조선전반기 작가(鄭道傳)~三唐詩人까지 작가 특징 및 작품 감상. 한시사와의 연계성을 위주로 교수 학습함.

<詩話講讀>: 中國 詩話 發生 및 特徵 이해함. 한국 시화작품에 드러난 한국의 각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들의 시작품 감상, 비평 상황을 통해 한시사의 흐름을 파악함.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歷代漢詩名作選讀>: 우리나라 역대 주요 작가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 자료를 강독하고 분석하여, 사상 자료를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우리나라 사상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 유가를 중심으로 하되 불가도가의 자료를 아울러서 균형 잡힌 사상사적 인식을 기르도록 한다.

<漢詩美學의 探究>: 우리나라 한시의 다양한 주제와 그 표현양상 및 미학적 특질을 익히어 동아시아 한문문화권에 대한 문화사적 이해를 도모한다. 우리나라 한시와 관련이 깊은 唐·宋詩는 물론 『詩經』 및 漢의 樂府도 함께 다루면서 동아시아 한시 전통 속에서 한국 한시가 갖는 독자성을 탐색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 영남대학교 한문교육과

<漢詩選讀>: 중국의 명시 선독.

<漢詩論>: 우리나라 한시(고조선~조선)를 선별하여 강독하며 한시사와 한시론 강의.

* 원광대학교 한문교육과

<漢詩選讀>: 중국의 역대 명편 한시를 선진부터 양송시기까지 대략 100수 정도를 선독함.

<漢詩의 理解>: 우리나라의 한시를 최치원부터 조선후기 까지 대략 3년에 걸쳐 고려말까지, 조선 중기까지, 조선말기까지 구분하여 매학기 약 100수 정도의 명편을 선독함.

<漢詩論>과 <歷代詩話選讀>: 우리나라 역대 시화를 백운소설, 역옹패설, 동인시화, 성수시화 등을 1학기과 2학기과 구분하여 강독하면서 한시이론을 설명하고 있음.

*** 전주대학교 한문교육과**

<漢詩選讀>(전공필수): 한국 한시 명편 강독(고려~조선후기).

<中國漢詩選讀>(전공선택): 『唐詩三百首』 강독.

<韓國詩話>(전공선택): 학기별로 적절한 詩話 선택하여 강독.

***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漢詩論>: 한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실제 작품을 통해 이론적 측면에 대한 강화를 목표로 강의를 진행 중이다.

<漢詩選讀>: 중국과 조선의 한시를 선독하여, 그 형식이나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접근하는 강의이다.

전체 14개 학과 중에서 2강좌를 개설한 학과가 7곳, 3강좌를 개설한 학과가 4곳, 4강좌를 개설한 학과가 3곳으로 집계되었다. 학과마다 한시 관련 과목은 2강좌에서 3강좌를 개설한 경우가 많았다. 이 2~3 강좌 안에서 우리나라 대표적 한시는 물론 한국 한시에 많은 영향을 끼친 중국 고전시도 아울러 강의하고 있었으며, 한시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도 다루고 있었다. 다만, 2강좌만 개설된 한문학과와 경우에는 간혹 중국 고전 시가를 읽는 수업이 폐지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인접한 중문과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현황은 이러한데,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만 의견을 주시고, 절반 정도는 아무 말씀도 적지 않으셨다. 보내주신 의견을 읽어 보면, 완곡하게 표현한 분부터 직설적으로 표현한 분까지 말하는 다양하였지만, 대체로 일치된 의견을 볼 수 있었다.

- ▶ 한시는커녕 한문 자체에 대한 이해 수준이 너무 낮은 문제가 있음.

-A교수님

- ▶ 전공이수 학점의 축소에 따라 2014년부터 교과과정을 개편함. 개편과정에서 한시강좌도 축소됨. 이에 따라 한시 기초이론(<한시의 이론> 폐지)과 중국 한시(<당송시 읽기> 폐지)에 대한 기초 학습 없이 한국 한시를 다룰 수밖에 없어서 한시 학습에 한계가 있음.

-B교수님

- ▶ 시간의 제한.

시학 교육에 알맞은 교재 필요.(전국 한문학과 한시담당 교수진이 공동집필하는 것도 필요할 듯)

-C교수님

▶ 우선 학생들의 한문에 대한 소양이 갈수록 저하되고 흥미 또한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교수로서 흥미를 유발하는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D교수님

▶ 학생들의 한자 및 한문 실력이 매우 부족하여 수업 중 발표에 한계가 있으므로, 담당 교수가 한시를 강독하고 작품에 대해 설명해주기에 급급한 상황임. 그러다 보니 한시를 스스로 이해하고, 한시에서 스스로 느끼고, 이해하고 느낀 것을 서로 나누면서 토론하는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 임용고시 등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시 독해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독해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가급적 많은 작품을 읽어볼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현실이 이러한 형태의 수업을 부추기기도 함.

개설되어 있는 한시 과목이 두 과목에 불과하므로 학생들이 한시의 미학을 정감적으로 체득하기에는 절대 시간이 부족함.

-E교수님

내용을 읽어 보고 혹시 누가 될까 하여 익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지만, 발표자 역시 같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 침묵하신 분들도 아래 교수님들과 그렇게 다른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학생들의 한자·한문 실력이 갈수록 저하되어 기초 실력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둘째 時數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발표자의 개인 소견으로 문제를 하나 덧붙이자면, 중등학교의 국어와 역사(국사/세계사) 과목이 한문학 전공을 이수할 만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역시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2. 문제에 대한 淺見

1) 한자·한문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개별적인 한자를 모르고 한시를 읽을 수 없으며, 한시 역시 한문에서 나온 것이기에 한문 산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한시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힘들다.

이것은 최근 10년 동안 중고등학교의 한문 교육이 부실화된 것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국어국문학과 출신인 발표자가 한문학과에서 한국한문학 전공으로 미흡하나마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은 중고등학교 6년 내내 주당 한문을 2~3 시간씩 배웠고, 한국고전번역원의 전신인 민족문화추진회의 연수부 과정을 3년 동안 다니면서 한문을 익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또 1990년대는 물론 2000년대 초반까지도 국문과 학부 과정이라 개설 강좌수는 2~3개 정도에 불과했지만, 한문학 전공 수업은 原典으로 진행되는 곳이 적지 않았다.

그 시절 고등학교 <漢文 II>에 나오는 산문의 수준은 지금 대학교 전공 한문 강독 수업의 난이도 중간 정도 되는 글 정도는 되었다. 또 전공을 한국학이나 동양학으로 택하지 않았더라도 대체로 대학생이라면 1800자 정도는 읽고 쓸 줄 알았다.

10여년 전에 발표자가 교양 한문 수업을 할 때까지만 해도, 한문교육과나 한문학과 학생들을 제외하면, 당연히 문과대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했고, 법학과 학생들도 발군의 실력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문과대 학생들이야 본래 글 읽고 글 쓰는 훈련에 특화된 사람들이지만, 법학과 학생들의 경우에도 한자를 모르면 법전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평소부터 한자를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30대 중반 이하의 신문기자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경우에도 국한 혼용으로 쓰인 글을 읽을 때는 ‘아래아 한글’에서 <Shift+F9> 눌러서 간신히 보는 수준이다. 이것은 막대한 억측이 아니라 최근 2~3년 사이에 발표자가 직접 겪고 들은 일이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지금 한문교육과나 한문학과라고 해서 수시 모집에서도 한문 성적을 꼭 반영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수시 면접에서 한문을 배웠는지 묻는 것조차 지양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언제부터인가 중등교육에서는 사교육을 줄이고, 학생들을 행복하게 해 주고, 창의성을 높여 준다는 등을 명분으로, 무언가 배울 내용을 덜어내는 일만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항의하는 전문가들은 자기 밥그릇이나 지키려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 그러면 대학교육 차원에서는 기초 학력 미달을 채워 주기 위해서라도, 수업 시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데, 이것은 또 아래에서 살펴볼 여러 가지 이유로 꼭 막혀 있는 상태이다.

2) 다음은 수업 時數 부족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자.

발표자가 재직하는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사범대 소속의 한문교육과를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총 이수학점은 140학점이고, 문과대 소속 한문학과와 의 경우 120학점이다.

단일전공의 경우, 한문교육과는 전공 수업을 66학점 이수해야 하고, 한문학과는 63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복수전공의 경우, 한문교육과는 50학점, 한문학과는 4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하다.³⁾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복수전공을 선택하여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 수업을 듣고 있으며, 면학 의욕이 넘치는 학생의 경우 졸업 학기를 늦추어 가면서 3개까지 선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한 학생이 선택하는 전공 수업의 총량은 한문교육과 50학점, 한문학과 42학점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⁴⁾ 다른 대학교의 경우에도 총 이수학점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주로 교양에서 차이가 나고, 전공 이수 학점은 대체로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 생각된다.

문과대 소속의 한문학과는 전공이수학점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온전히 교과내용학에 해당하는 과목만 개설할 수 있고, 한문교육과 전공 수업은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을 모두 갖추

3) 한편, 복수전공을 선택할 경우 일반형과 심화형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학과들이 많고, 심화형으로 이수 시 졸업증명서에 심화이수 표기가 추가된다. 한문학과에서 심화형을 선택할 경우 51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4) 한문교육과에서 한문으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조차도 복수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문학과와 한문교육과나 실제 처한 조건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없다. 50학점이나 42학점 중에서 6학점에서 9학점, 많게는 12학점까지 한시 강좌가 개설되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전에 총 이수학점이 140학점이 넘고, 전공 수업만 거의 70학점 이상 듣던 시기와 비교해 보면, 학습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학부제나 복수전공을 활성화시키는 취지는 나쁘지 않은데, 총 이수학점을 묶어 놓거나 줄인 뒤에 ‘수요자 중심 교육’을 내걸고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또 제한된 시수라도 알차게 운용하면 어느 정도 만회할 수가 있는데,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명분으로 필수 과목을 줄이고 선택 과목을 늘리다 보니, 같은 분야에 속한 과목들이라도 그 位階를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세 과목이 개설된다고 해서 학생들이 세 과목을 다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세 과목의 난이도를 차례로 높여 나갈 수 있는 상황도 못 된다.

게다가 제일 근원적인 문제로는 ‘복수’ 전공을 선택한 학생이 지향하는 학과가 실질적으로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일 경우 마음 밖에 있는 전공 수업에 열과 성을 다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략 15년 전 발표자가 시간강사로 처음 강의를 시작하던 시점과 비교해 보면, 예전에는 교양 수업을 가르치는 시간강사라 하더라도 강의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학습량을 조절해 나갈 여지가 많았었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성의껏 가르치면 특별히 강의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은 기억도 거의 없다. 그러나 이제는 전임교원들조차도 학생들과 줄다리기를 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전임교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만, 시간강사 선생님들의 경우 다음 학기 강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강의평가’라는 험난한 관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심기’를 거스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결국 형식적으로만 걸쳐 있는 전공 수업의 질과 양은 도외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3) 다음은 국어 교육과 역사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려 한다.

인접한 교과 전공자가 다른 교과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내정 간섭’으로 비칠 수도 있겠지만, 중등 교육을 제대로 이수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받아서 가르치는 대학 교수의 입장에서라면,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시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한문으로 쓰인 시이다. 한자와 한문을 잘 모르더라도, 시 읽기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흥미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반적인 가정에서 중산층 이상이라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이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집안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학교 교육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하고, 학교 교육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감당할 과목은 현실적으로 국어가 유일하다.

예전 국어과에서는 학생들이 어렵지만 재미있고, 그래도 공부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낀 것은 고전문학이나 현대문학의 名篇들과 국어문법이었다. 그 밖의 영역은 그냥 점수를 저절로 얻었지 심각하게 공부해 본 기억이 전혀 없다.

그러나 예전에 제일 비중이 컸던 문학은 지금 지분이 예전에 비해 많이 위축되었다. 「님의 침묵」이나 「僧舞」를 암송하거나 『月印千江之曲』이나 『杜詩諺解』에 나오는 단어를 차근차근 분석해 보고, 「關東別曲」의 난해한 典故들을 하나하나 익혀가면서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 자체가 무엇보다 우리말을 넓고 깊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수업 시간이나 특강 시간에 요즘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태도를 관찰해 보면, 지금의 국어 교육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둘 뿐, 글 한편 한편, 단어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끔 가르치는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노래를 한곡 한곡 익혀가면서 노래 잘 부르는 법을 터득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작품은 자세히 몰라도 좋으니, 오로지 노래 부르는 법만 잘 배우면 된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힘들다.⁵⁾

만약 학생들이 예전처럼 어두운 시기에 현대 한국어의 주춧돌을 놓은, 문학사를 빛낸 시인들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시를 암송하고, 어려운 단어를 하나하나 익혀가면서 고전문학 작품을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다라면, 한자와 한문을 많이 모르고 입학했더라도, 학생들을 적응시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몇 년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국사가 기초과목으로 편입되고 수능에서도 필수가 되기 전까지 거의 10여년 동안 학생들이 국사를 거의 힘들여서 배우지 않았다. 발표자가 막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가르쳤던 학생들이 바로 국사와 동양사를 배우지 않는 학생들이었다. 그 아이들에게 국문학사나 한시를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매 시간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주느라 시간의 상당 부분을 소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최근에라도 바로잡혀서 다행이지만 그 세대는 일부 직종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면, 평생 역사책을 제대로 읽어 볼 기회가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 학생들 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도 나오고, 글을 쓰는 문인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올 것이다.

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느냐 검정으로 하느냐는 문제는 지식인들의 연대 서명으로써까지 번지면서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지만, 예전에 국사가 필수에서 선택으로 빠질 때는 그렇게까지 큰 반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지식인들조차도 그것이 정치적 영역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을 때는 단순히 교과 사이의 이해 다툼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다.⁶⁾ 정말 이해 못할 일이라 생각한다.

또 최근 한국사 교과서도 너무 근현대사에만 치중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의 어떤 교육부 장관은 어느 인터뷰에서 근현대사 위주로 교육하는 것이 최근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추세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서구 선진국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체로 근현대사는 15세기 이후를 가리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처럼 20세기 이후 역사만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두 정치 세력이 날을 시퍼렇게 세우고 자신들에

5) 그 동안 시행된 ‘문해력’을 위주로 하는 국어 교육이 정말 ‘문해력’을 높였는지 곰곰이 따져 보는 작업을 개인적으로 준비 중이다.

6) 요즘 대학생들에게 한문을 가르치고 가까워서 지켜보면서 영어 교육도 독해 쪽은 대단히 침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게 유리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쓰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뒤에서 이런 상황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보인다.⁷⁾

어떤 젊은 연예인이 존경하는 사람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를 꼽아서 사람들을 기막히게 했으며, 아직도 입학생이 많이 물리는 어느 대학교 미술사학과와 대학원 수업에서 교수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조선후기 사회의 변동 양상이 미술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한참 설명하고 질문을 받았더니, 대학원생이 ‘병자호란이 뭔가요?’라는 질문을 태연히 했다고 한다. 『만화 조선왕조실록』을 즐겨 보다가 역사가 좋아져서 사학과에 입학했는데, 사료는커녕 연구서나 논문도 읽기 힘들어서 몹시 고생한다는 제자의 이야기를 해주신 사학과 교수님도 있었다.

요컨대,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예전보다 덜 배우고 온 학생들을, 예전보다 덜 가르쳐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결국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3. 전통적 관점에서 본 시와 시 교육의 효용성

한시와 한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孔子의 말씀을 음미해 보는 것이 吾黨의 전통에 부합할 것이다. 전공자들에게는 이미 두루 알려져 있고, 심지어 서구 문학 전공자들도 심심치 않게 인용하는 대목이긴 하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일단 한번 읽어 보려 한다.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詩』를 배우지 않는나? 『詩』는 感發할 수 있게 해 주고, 得失을 살필 수 있게 해 주고, 남들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고, 모나지 않게 원망할 수 있게 해 준다. 가까이서는 아버지를 섬길 수 있고, 멀리는 임금을 섬길 수 있으며, 새와 짐승,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게 해 준다.

孔子께서 伯魚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周南’과 ‘召南’을 배웠느냐? 사람이 ‘周南’과 ‘召南’을 배우지 않는다면, 눈앞에 담장을 마주하고 서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니라!”⁸⁾

인용된 첫 章에서 공자가 『詩』를 배웠을 때의 효용으로 제시한 것은 가슴에 응어리진 감정

7) 신유아, 「지금 여기, 어떤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가」, 『교수신문』 2018년 5월 21일 기사.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1734>)

8) 『論語·陽貨』: “子曰: ‘小子何莫學夫詩? 詩, 可以興, 可以觀, 可以羣, 可以怨. 邇之事父, 遠之事君, 多識於鳥獸草木之名.’” “子謂伯魚曰: ‘女爲周南、召南矣乎? 人而不爲周南、召南, 其猶正牆面而立也與!’” 번역은 朱子の 『論語集註』의 해석을 따랐다.

을 景物에 기탁하여 발산하고, 사회를 관찰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 주고, 다른 사람과 사귄 때(또는 외교의 현장에서) 대화와 교제의 매개가 되며, 세련되고 완곡하게 비판할 수 있는 표현력을 길러 준다는 것이다. 시의 효용이 이렇진대, 당연히 가정생활이나 직장 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부수적으로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名物에 대한 지식 덕분에 해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인용된 둘째 章에서 공자가 말한 ‘눈앞에 담장을 마주하고 서 있는 사람’이란 시야가 협소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공자가 말한 『詩』는 『詩經』의 작품이고, 이때 노랫말인 시뿐만 아니라 음악 부문인 ‘곡조’ 까지도 포괄하는 것이었지만, 여기서 시를 ‘문학’으로 바꾸어도 여전히 통용될 수 있는 의견이다.

멀리는 중요한 자리에서 있는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 가까이는 전공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보여준 훌륭한 연구자들이 종종 ‘눈앞에 담장을 마주하고 선 사람들’ 처럼 납득할 수 없는 언행을 보일 때마다 발표자는 문학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한편, 『論語』의 다른 곳에는 孔子가 아들에게만은 뭔가 남다른 비법을 전수해 주지 않을까 물어 보는 陳亢에게 부친이 자신에게 詩와 禮를 공부하기를 권하였다는 孔鯉의 증언이 실려 있기도 하다.⁹⁾

동양에서 萬世의 師表로 우러러 보던 孔子가 아들과 제자들에게 시를 꼭 배우라고 권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宋代 이후로 科擧制를 전면 도입하면서 문학적 재능은 심지어 출세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光宗代에 科擧制가 시행된 이래로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대부들의 삶에서 한시를 배우지 못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시는 중요한 매체(媒體)가 되었다. 기뻐할 일이나 슬퍼할 일이나 시를 지어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 과거에 합격하여 입신양명하는 것은 둘째 치고, 한문과 한시를 짓는 능력 자체가 상류층임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 자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⁰⁾

이처럼 시가 우대받았던 조선 사회에서도 흥미로운 양상을 이야기한 기록이 남아 있다. 靈城府院君 朴文秀(1691~1756)의 高孫으로 紫霞 申緯(1769~1847)에게 시를 배웠던 錦齡 朴永輔(1808~1872)는 당시 지식인들이 科詩만 열심히 공부하고, 정작 ‘詩’는 그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풍토에 대해서 이렇게 개탄한 바 있다.¹¹⁾

詩라는 것은 『詩經』, 漢·魏·晉·六朝·唐·宋·金·元·明·淸의 古近體詩의 通名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俗名으로 ‘風月’이라 부르고, 조금 우아한 칭호로는 雅體詩를 正詩라 하면서, 詩를 낮추어 俗名으로 ‘風月’이라 부르고, 조금 우아한 칭호로는

9) 『論語·季氏』: “陳亢問於伯魚曰: ‘子亦有異聞乎?’ 對曰: ‘未也。嘗獨立, 鯉趨而過庭。曰: “學詩乎?” 對曰: “未也。” “不學詩, 無以言。” 鯉退而學詩。他日, 又獨立, 鯉趨而過庭。曰: “學禮乎?” 對曰: “未也。” “不學禮, 無以立。” 鯉退而學禮。聞斯二者。” 陳亢退而喜曰: ‘問一得三, 聞詩聞禮, 又聞君子之遠其子也。”

10) 이현일, 「한시」, 이민희 외 엮음(2017), 『깊고 넓게 읽는 고전문학 교육론』, 창비, 480~481면.

11) 錦齡 朴永輔에 대해서는 남영진(2009), 「19세기 시학상의 由陸入杜와 由蘇入杜論」, 『韓國漢文學研究』 43, 韓國漢文學會; 이현일(2017), 「錦齡 朴永輔의 初期詩에 대하여-『雅經堂詩初集』을 중심으로-」, 『韓國漢詩研究』 25, 韓國漢詩學會 참조.

‘詞律’이라 하며, 詩라고 일컫는 사람이 없다. 詩를 읊는 것을 ‘風月을 읊는다’라 하고, 어떤 사람이 시를 잘 짓는 것을 일컬어 ‘아무개는 풍월이 용[勇]하다’고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의 意致가 삭막해진다.¹²⁾

왕조 말기의 폐단인지, 아니면 조선 시대 내내 우리가 문학사에서 거론하는 일류 문인들보다 한참 못한, 그저 進士라도 합격해 보는 것이 평생 꿈인 사람들의 경향인지는 알 수 없으나, 관직을 얻거나 사회적 지위를 제고하는 데 직접적 도움이 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인심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음을 볼 수 있다.

공자님의 가르침으로 봐도 그렇고, 문화자본으로서도 그렇고, 무엇보다 신분상승을 위해서 한시는 꼭 필요한 존재였던 것이다.

4. 反知性主義를 넘어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조물주’ 바로 아래 ‘건물주’가 있다고 굳게 믿고, 내내 ‘소비자’와 ‘구직자’로 키워져서, 오로지 ‘미래’를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투자’할 것을 요구받고 자란 요즘 학생들에게 ‘미래’는커녕 ‘지금’보다도 훨씬 이전의 ‘옛날’에 지어진 시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시를 배우는 것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발표자는 다행히 착한 학생들만 만나서 아직까지 이런 과목을 배워서 어디에 쓰냐는 질문을 받지도 않았고, 당신 강의는 등록금이 아깝다는 말을 듣지도 않았다. 自嘲가 아니라, 실제로 어느 명문 대학 어문계 학과의 대학원에서 대학원생이 교수에게 당신의 강의를 이 사회에서 “등록금 값어치”를 하는지 아주 진지하게 물었다고 한다.

20세기 이후 서구 열강과 일본제국이 가한 충격 속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라졌고, 식민지 시대를 거친 뒤에도, 계속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새로운 사회가 출현하게 되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구귀족이 몰락한 자리를 상당 부분 차지한 것은 미국 유학과 중심의 엘리트 집단이다. 이 ‘지배받는 지배자’¹³⁾들은 실용 학문 분야 출신이 다수를 이루다 보니, 문화자본이 극히 빈약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동양적인 전통을 잘 모르고, 우리말로 학문적 글쓰기를 온전히 하는 데는 별반 노력을 기울인 적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 사회는 물론 대학에서도 개인이 먹고 사는 문제(취업/창업)나 나라가 먹고 사는 문제(기술 혁신/외화 획득)를 걱정하는 분들은 많다. 한국 대학생들에게서 지적 호기심이 증발해 버린 것은 이러한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너머 있는 문제는 누가 걱정하는가? 사람이 짐승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만 문제 삼을 수 있겠는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도 그렇고 대학 안에서도 反知性主義(Anti-intellectualism)가 너무 강하다.

12) 朴永輔, 『衍聰錄』 卷4, <詩>: “詩者, 三百篇漢魏晉六朝唐宋金元明清古近體之通名也. 東人忽以科體詩爲正詩, 降詩以俗名曰‘風月’, 稍雅者曰‘詞律’, 絕無以詩稱者. 賦詩曰‘賦風月’, 稱某人善詩曰‘某人風月勇’ 聞此, 令人意致索然.” 이 대목은 이현일(2017), 115~116면에서도 거론한 바 있다.

13) 미국 유학과 엘리트들 ‘지배받는 지배자’로 규정한 것은 김종영(2015), 『지배받는 지배자』, 돌베개 참조.

대학 교육에서는 아직도 간간이 교양 교육을 말하고, 글쓰기 교육을 말하지만, 교양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는 깊은 고민이 없는 경우가 많고, 어떤 글이 좋은 글인가에 대한 고민도 없다.

인문학 전공자들이나 교육자들은 적극적으로 응전해야 하며, 대학과 대학원의 위기를 말하기 전에 중등교육에서 인문학이 피폐해진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말로도 글 읽기와 글쓰기가 안 되고, 기초적인 역사에 대한 지식도 결핍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조금 더 얻어 준다고 좋은 학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중등학교 교과목에서 인문학적 사유를 가르칠 만한 영역은 갈수록 약세이다. 해방 이후 한국 교육에서 철학은 제대로 가르친 적이 거의 없었으며, 세계사, 한문은 형세가 미미하고, 그나마 국사와 국어가 제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데, 10년간 선택과목으로 유배되었다 돌아온 국사는 최근 몇 년 사이 20세기 이후 역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정치 투쟁’의 현장으로 변했다. 국어의 경우에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문학의 위상이 현격히 약화되었다.

민주주의가 발달해서 인권이 신장되고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일인데, 유권자와 소비자의 비위를 맞추려는 사람들만 많고, 거슬러서 직언하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큰 문제이다.

최근 ‘명징(明澄)하게 직조(織造)했다’는 표현을 썼다가 인터넷 공간에서 조리돌림을 당한 영화 평론가가 있다.¹⁴⁾ 발표자 주변에 있는 다른 전공의 연구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 주고 반응을 살폈더니, 어느 순간 발표자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언어 교육에 “정확하다”거나 ‘수준 높다’, ‘아름답다’, ‘고상하다’는 수식어가 붙지 않고, 단순히 대중의 의사소통 정도가 교육의 목적이 된다면, 앞으로 한 세대 안에 국어과나 영어과조차도 존속할 기반이 붕괴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어교육, 국사 및 세계사 교육, 나아가 도서관 운용까지 모두 개혁해야 하지만, 일단 한문을 중고등학교 기초과목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4) 장은수, 「제2차 문맹」, 『매일경제』, 2019년 6월15일.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6/420871?sc=30500259>)

<토론문>

「대학교 한문학 교육에서의 한시 강의 현황 및 개선 방안」의
토론문

김연수(고려대)

<별지 참조>

한문 임용시험의 실태 분석과 비판적 고찰

김성중(계명대)

【목차】

1. 서론
 2. 출제 범위(문헌, 작품)의 선정 관련
 3. 漢字 쓰기의 수준과 범위
 4. 교육과정-일반화된 지식의 범위
 5. 교과교육학 문항
 6. 여론
-

1. 서론

임용시험 관련한 논의는 여러 측면에서 진행될 수 있을 터인데, 이하의 형식과 내용으로 발표문을 작성함은 두 가지 고민을 해결하지 못한 소치이다. 첫 번째는 발표를 처음 의뢰받을 때부터 갖고 있던, 스스로의 역량 부족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10년 동안 ‘임용시험’ 관련한 논문¹⁵⁾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 공고된 사전 예고 인원이 59명이라는 데서 오는 ‘행복한’ 고민이다. 필자의 거칠고도 부족한 사적인 견해가 현재 시점에서 발표집에 실리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어떠한 논의도 제안하지 않는 것 또한 학술대회 발표와는 거리가 있어, 부득불 학계의 지혜를 모으는 방향으로 구도를 잡게 되었다¹⁶⁾.

한문과에서 임용시험은, 아마도 다른 과목도 비슷하겠지만 ‘중등학교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라는 원래 명칭에 담긴 의미처럼 ‘교사 선발’의 의미만 갖고 있지 않다. 한문교육의 성격과 목표, 한문교원양성기관의 정규, 비정규교육과정에 어느 정도의 관계성이 있느냐 혹은 있어야 하느냐는 또 다른 논의의 장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한문임용수험생의 공부 방향 설정에 주는 영향은 막대하다. 이들이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의 공부 방향 설정이 곧 한문교육의 방향일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본고에서 논의의 중심은 여기에 있지 않다. 그보다 한문교원양성기관에서 ‘제대로’ 공부한 수험생이 혼란스럽지 않게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소박한 심정으로 회원분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한다. 본 발표

15) 한문 임용 관련한 기존 논문은 대략 다음과 같다. 이희목(2002), 송영일(2002), 신용호·한연석·김석제(2002), 김여주(2007), 김윤조(2008)

16) 본고의 일부 내용은 연구자들과의 사적인 대화, 예비 교사들의 지도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물론 본고의 논지 및 서술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필자에게 있다.

에서 다루는 문항은 임용시험의 체제가 크게 바뀐 2014학년도 이후로 했다.¹⁷⁾

2. 출제 범위(문헌, 작품)의 선정 관련

이에 대해서는 김여주(2007), 김운조(2008)에서 이미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때의 논의들은 지금도 많은 부분 유효하다. 그러나 교육 여건, 상황(중고등학교, 대학교 모두)이 크게 달라진 현시점에서의¹⁸⁾ 논의는 다른 시각에서의 판단을 요구한다. 방대한 지식보다 일반화된 지식, 핵심 역량을 추구하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 의할 때 ‘선정’의 성격은 ‘제한’보다 ‘참고’일 가능성이 큰 듯하다.¹⁹⁾ 현재에 있어서 ‘선정’이 ‘진정한 방향성’이 되기 위해서는, 방대한 문헌, 작품의 제시와는 다른 각도에서의 후속 작업이 동반될 필요도 있을 듯하다. 필자의 견해는 지극히 현실적인데, 소견은 줄고(2017)의 연장선 상에 있다.

2016-B-3

3. 밑줄 친 ㉠, ㉡에 대한 정의를 (나)에서 찾아 각각 설명하고, 밑줄 친 ㉢의 사례를 (나)에서 찾아 서술하시오. [4점]

(가) 詩有六義焉 一曰風 二曰賦 三曰㉠比 四曰㉡興 五曰雅 六曰頌

- 『詩經集傳』

(나) 蓋始起以興 而終之以賦 始起以比 而終之以興者 有之 又其所解賦比興者 諸說錯陳 而賦則雖無異辭 ㉢至於興比 則往往相錯 以集傳觀之 則先言他物 引起所詠之謂興 以彼物比此物之謂比 然舊說則關雎之興 言后妃悅樂君子之德 若關雎之有別 則是興帶比義也 螽斯之比 言其生子衆多 后妃之德能如是則宜然 是比帶興義也 是故曰 三者畢舉而後 可以爲詩也

* 關雎, 螽斯: 『詩經』의 篇名

- 成海應, 『詩說』

17) 2020학년도부터는 논술형(10점)이 폐지되는 등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동일하다.

2018-A-5

5. ㉑, ㉒에 해당하는 漢字를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가)

○  →  →  →  → ㉑ 楷書

○ 𠂇 執政所持信也 從爪從日 - 『說文解字』

(나)

○  →  →  →  → ㉒ 楷書

○ 𠂇 同也 從廿升 - 『說文解字』

김여주(2007)에는 三經과 『설문해자』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상기 문항은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는가? 전자는 ‘부비홍’의 측면에서 한문학개론, 후자는 문자학개론으로 파악되어야 하지 않을까? 출제의 범위를 고려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3. 漢字 쓰기의 수준과 범위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2014학년도 이래로 漢字로 답안을 쓰는 문항의 경우, 그것이 찾아 쓰기가 아닌 이상, 전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내에 있었다. 그런데 다음 몇 가지 사항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

18)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들은 한문을 선택하지 않고, 한문교육과 재학생들은 극히 일부만 임용시험(≒한문)을 공부한다는 것이다. 두 상황 모두 가치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 학계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점일 뿐이다.

19) ‘읽었느냐’와 ‘읽어 낼 수 있느냐’가 ‘상충’이 아닌 ‘보완’의 각도에서 논의되어야 할 듯하다.

2015-전공A-기입형 10번

10. <보기>는 『金鰲新話』에 수록된 소설 작품의 일부분을 각각 (가)~(라)에 제시한 것이다. 『金鰲新話』의 소설 가운데 <보기>에 제시되지 않은 작품의 제목을 漢字로 쓰시오. [2점]

—<보 기>—

- (가) 松都有李生者 居駱駝橋之側 年十八 風韻清邁 天資英秀 常詣國學 讀詩路傍 善竹里有巨室處子崔氏 年可十五六 態度艷麗 工於刺繡 而長於詩賦
- (나) 南原有梁生者 早喪父母 未有妻室 獨居萬福寺之東房 外有梨花一株 方春盛開 如瓊樹銀堆 生每月夜 逡巡朗吟其下
- (다) 前朝有韓生者 少而能文 著於朝廷 以文士稱之 嘗於所居室 日晚宴坐 忽有青衫幘頭郎官二人 從空而下 俯伏於庭曰 飄淵神龍奉邀
- (라) 成化初 慶州有朴生者 以儒業自勉 常補大學館 不得登一試 常怏怏有憾 而意氣高邁 見勢不屈 人以爲驕俠 然對人接話 淳愿醇厚 一鄉稱之

『金鰲新話』에 수록된 작품들의 개략적인 줄거리만 알고 있다면 핵심 단어 ‘李生’ 등으로 어렵지 않게 「醉遊浮碧亭記」가 답이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관건은 이것을 漢字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金鰲新話』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문헌, 작품을 漢字로 기억하는 것이 일반화된 지식인지, 제시문이 아닌 사전 지식에 근거해서 漢字로 쓸 줄 아는 것이 현재 한문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수험생들은 문헌, 작품 그리고 인물에 대한 漢字 표기를 어느 정도의 수준과 범위까지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가 고민될 수 밖에 없다.

2016-A-1

1. 김 교사는 학생들이 한자 어휘의 뜻을 이해하고 이를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언어 활용법’을 이용한 수업을 계획하였다. 다음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어휘를 漢字로 쓰시오. [2점]

萬章曰 一鄉皆稱原人焉 無所往而不爲原人 孔子以爲德之賊何哉 曰 非之無舉也 刺之無刺也 同乎流俗 合乎汚世 居之似忠信 行之似廉潔 衆皆悅之 自以爲是 而不可與入堯舜之道 故曰 德之賊也 孔子曰 惡()者 惡莠 恐其亂苗也 惡佞 恐其亂義也 惡利口 恐其亂信也 惡鄭聲 恐其亂樂也 惡紫 恐其亂朱也 惡鄉原 恐其亂德也

- 『孟子』, 『盡心 下』

여러 가지 지식에서 추출된 진리에 대한 신념이 일상화되지 않고서는 지식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 지식이 인격과 단절될 때 그 지식인은 ()(이)요 위선자가 되고 만다.

- 법정, 『무소유』

‘언어 활용법’을 이용한 수업 계획이라고 했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 한글 지문은 ‘유추’가 아닌 ‘확인’의 자료라고 판단된다. 성어를 이해할 때 그 유래를 아는 것의 필요성과 교육적 효용은 교육과정에 기술된 사항이므로 임용 빈출 문헌인 『맹자』를 읽으면서 ‘似而非’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외위 쓰기’로 판단할 오해가 있다.

2014-A-가입7

7. (가)를 참고하여 (나)의 () 안에 들어갈 구절을 한자로 쓰시오.
[2점]

(가) 告子曰 性猶湍水也 決諸東方則東流 決諸西方則西流 人性之無分於善不善也 猶水之無分於東西也

- 『孟子』

(나) 公都子曰 告子曰 性()也 或曰 性可以爲善 可以爲不善 是故文武興則民好善 幽厲興則民好暴 或曰 有性善 有性不善 是故以堯爲君而有象 以瞽瞍爲父而有舜 以紂爲兄之子 且以爲君 而有微子啓王子比干 今曰性善 然則彼皆非與

- 『孟子』

상기 문항은 제시문 (가)에 근거하여 (나)의 괄호 안에 들어갈 구절을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점은 『맹자』 본문 그대로 쓰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無善無不善’은 한자 어휘도 아닌데, 본문과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²⁰⁾ 과연 오답 처리될 것인가? 수험생은 인정 답안을 상정하고 공부하기 어려울 것이고, 출제자의 의도는 아마도 외워 쓰기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을텐데, 다소 난해한 문항이 되었다.

20) 불필요한 작업이지만, 관련 주석서를 찾아보면 『맹자』본문을 다양하게 재서술하였다. ‘無本善不善’(『孟子章句』), ‘無有善無有不善’(『孟子注疏』) ‘無有善無有不善’(『四書補注備旨』)

최근 한자 어휘, 성어의 경우 이른바 ‘투명도’²¹⁾를 활용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한자, 한자 어휘 교육의 필요성과도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2018-A-3

3. 다음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과 연구수업 준비를 위한 대화이다. ㉠에 들어갈 성어를 漢字로 쓰고, ㉡에 들어갈 활동을 쓰시오. [2점]

교육실습생: 옛이야기에서 유래한 성어를 학습하는 연구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한문 교사: 네, 어떤 내용의 수업인가요?

교육실습생: ‘멀리 떠난 남편을 기다리다 죽어서 되었다는 돌’을 의미하는 (㉠)이라는 성어가 유래된 자료예요.

〈자 료〉

武昌陽新縣北山上 有(㉠)狀若人立者
傳云 昔有貞婦 其夫從役 遠赴國難 婦携弱子
餞送此山 立望而形化爲石

- 『列異傳』

한문 교사: 잘 골랐네요. 이 자료는 모둠별 발표수업에서 활용하면 좋겠어요.

교육실습생: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어’를 학습하며 어휘력도 신장시킬 수 있는 수업 활동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문 교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시된 성어와 관계있는 단어 및 유의어·반의어를 찾아 도식화하는 (㉡) 활동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실습생: 감사합니다.

21) 이에 대해서는 김왕규(2004) 참조.

4. 교육과정-일반화된 지식의 범위

2014-A-기입형 9

9. (가)는 (나) 글의 문체적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일치하는 (나) 글의 문체의 명칭을 한자로 쓰시오. [2점]

(가) 匠人之長 以麵拋樑 而誦此文以祝之 其文首尾 皆用麗語 而中陳六詩 詩各三句以按四方上下 蓋俗禮也

- 『文體明辯』

(나) 儒宗大振 可觀國家之興 龔宇重新 必卜山川之勝 惟在過江之始 未遑相地之宜 卽鄉學以經營 爲泮宮而講習 郊畿既定 連百堵以中施 形勢則然 介一區而外絕 幸茲多暇 爾乃度功 得秀壤於花山 移宏模於槐市 華楹肪砌 美哉輪奐於咄嗟 練水螺峰 莫是英才之醞釀 脩樑乃舉 嘉頌斯揚

兒郎偉拋樑東 甲乙芳枝長桂宮 此地的應鍾秀氣 青春袞袞拜三公
兒郎偉拋樑西 至魯行看一變齊 五學賈生言記取 尙賢貴德化群黎
兒郎偉拋樑南 眼底山底手可探 知有橫經相問道 誰將精義騁高談
兒郎偉拋樑北 玉振金聲夫子德 回也區區謾欲瞻 忽焉在後那容得
兒郎偉拋樑上 炮鳳方爲賢者養 濟濟青衿自琢磨 景行行止高山仰
兒郎偉拋樑下 儒術尊來差五霸 馳道當須築至斯 吾君嚮學嚴鸞駕

(후략)

* 龔宇: 學館 * 肪砌: 윤이 나는 섬돌

- 『東文選』

예비 한문 교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문체의 종류는 어디까지인가는 판단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문체를 중심으로 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이기 때문이다. 상기 문항의 답은 上梁文일텐데, 해당 문체는 2007 교육과정(해설서 포함), 2009, 2015까지 제시된 적이 없는 것 같다.²²⁾ 수험생은 상량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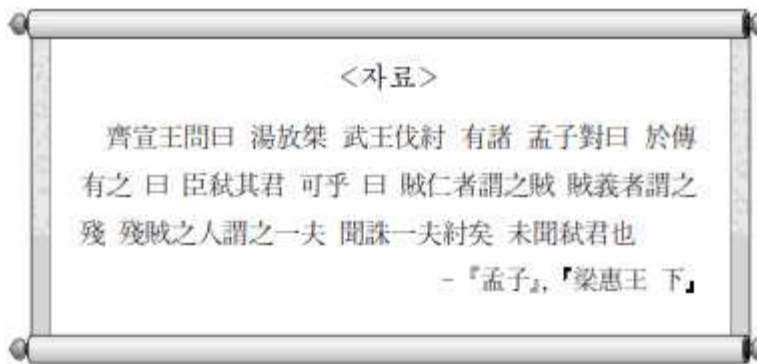
22) 7차 이전의 교육과정은 조사하지 않았다. 설령 7차 이전의 교육과정에 제시되었다 해도 그것이 교육과정에 근거한 출제라는 근거로 설명되기 어려울 듯하다.

을 읽었거나, 아니면 한문학개론 등의 수업에서 교육과정을 넘어서 문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상기 문항에 답을 할 수 있을 듯하다. 학계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이지 수험도서가 아니므로 이것을 임용시험의 기준으로 상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임용시험이 교육과정과 궤를 같이 해야 수험생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2016-A-9

9. 김 교사는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유의어'에 대한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있다. 다음 밑줄 친 ㉠, ㉡을 설명하시오. [4점]



김 교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과 교육과정에는 “유의어란 의미 자질의 차원이 대체로 같지만 정도, 상태, 기능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단어군을 말한다. 유의어 간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문장을 정확하게 독해하고 지은이의 표현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교사: 네, 그렇죠. 예를 들면 ‘伐’과 ‘襲’은 모두 ‘공격하다’라는 뜻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춘추좌씨전』을 보면, 전쟁을 할 때 종과 북을 치며 공격하는 것을 ‘伐’이라 하고,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襲’이라고 했습니다.

김 교사: <자료>의 ‘誅’와 ‘弑’도 유의어인가요?

이 교사: 그렇습니다. ㉠ ‘誅’과 ㉡ ‘弑’의 차이를 구별하여 지도해야 합니다.

김 교사: 네, 그렇군요. 그래야 ‘誅’과 ‘弑’를 구별해서 사용한 ㉠ 맹자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겠네요.

‘유의어’에 대한 개념은 교육과정에 따른 정의가 다르다. 2009는 기본적으로 한문의 유의어인데, 2015는 한자 어휘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따라서 문법적 측면이 아닌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유의어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간혹 개념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논의를 필요로 한다.

2018-B-1

1. 다음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과 교육과정의 ‘품사의 활용’에 대한 대화 내용이다. 밑줄 친 ㉠, ㉡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4점]

박 교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과 교육과정에는
“한문의 단어는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품사가 바뀌고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김 교사: 네. 그렇죠. ‘咨十有二牧’의 ‘牧’과 ‘俾之牧民’의 ‘牧’은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그 품사와 의미가 다르지요. ㉠ 그 차이를 각각 구별하여 지도하면 좋겠습니다.
박 교사: 그렇게 하면 ‘司牧’과 ‘牧民’의 뜻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김 교사: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 하나의 한자가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품사와 의미가 달라진 다른 사례 2가지를 <자료>에서 찾아보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료>—

昔舜紹堯 咨十有二牧 俾之牧民 文王立政 乃立司牧 以爲牧夫 孟子之平陸 以芻牧喻牧民 養民之謂牧者 聖賢之遺義也 聖賢之教 原有二途 司徒教萬民 使各修身 大學教國子 使各修身而治民 治民者牧民也 然則君子之學 修身爲半 其半牧民也

—『與猶堂全書』

상기 문항에서 사례 1가지는 ‘之’ 일텐데, 제시문에 ‘俾之牧民’이 있다고 해서 자료에서 동사, 어조사로 쓰인 것만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닐 듯하다. 만일 후자라면 교육과정에서 실사에 제한, 품사의 활용 범위는 확대된다. 부연하자면 교육과정에서의 품사의 활용에 대한 기술은 대단히 포괄적이다. 同形同音異詞, 한 단어의 다른 의미 항목, 개별 의미항목의 용법의(즉, 의미항목변체) 등과 혼재되어 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들에 대해 필자는 아직 학교문법 측면에서 명확한 구분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다.

5. 교과교육학 문항

교과교육학 문항이 임용시험에서 갖는 위상, 중요성은 비율의 측면에만 있지 않다. 한문교원양성기관의 필요성, 목적성과 궤를 같이한다. 2차 시험보다는 다소 약하지만 한문교사로의 텍스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업 설계, 실행 역량과도 관련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현재 한문임용시험에서 교과교육학 문항이 ‘교과교육학답다’고 할 수 있는가? 필자는 부끄럽게도 판단할 능력도 없고 또 기준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두 개 문항에 대해 교육 경력이 15년 넘고, 교과서 집필 경험도 있으신 교사 8분께 자문을 구했다.²³⁾ 8분 모두 고견을 주셨다.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 차후 논문에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겠지만 그중 하나의 문항 및 그에 대한 교사 1분의 자문 내용을 제시한다.

23) 자문을 구할 때 실명을 밝히지 않음을 전제로 했다. 자문을 구하려면 질문지가 훌륭해야 하는데 여러 측면에서 부족하다. 필자의 역량 때문이다.

2015학년도-전공A-서술형1번

1. 다음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중학교 교재를 구성한 것이다. 제시한 <조건>에 따라 서술하시오.

[5점]

[단원명]

삶의 태도

○ 학습 목표

1. 현토할 곳을 바르게 끊고 문장을 풀이할 수 있다.
2. 선인들의 삶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다.

[본 문]

薄施厚望者不受報貴而忘賤者不得久

새로 익힐 한자

㉠	㉡
施 베풀 시	*薄 얇을 박
報 갚을 보	*賤 천할 천
忘 잊을 망	
厚 두터울 후	
貴 귀할 귀	
久 오랠 구	

<조 건>

- (가) 각 학습 목표를 본문에 적용하여 구현할 것.
(나) 새로 익힐 한자를 ㉠과 ㉡으로 분류한 기준을 제시할 것.

1번 문항	학습목표 2의 본문 적용 구현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모범 답안 (1개만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적용 구현 1. 수업 방법: 4인 1조 모둠별 토의학습 2. 수업 내용: 나눔과 겸손에 관한 명언 찾고, 본문 문장과 연결 짓기 → 나눔과 겸손의 의미와 태도에 대해 생각 나누기 3. 평가: 자기평가 및 모둠 상호 평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정 답안 (즉 모범 답안은 아니지만 정답으로 인정해서 점수를 100% 받을 수 있는 답안. 인정 답안이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여러 개를 모두 적어 주셔도 좋습니다)	1. 수업 방법: 프로젝트 학습, 협동학습, 짝 단위 하루르타 수업 등 2. 수업 내용 1) 명언 검색을 통한 나눔과 겸손의 의미와 태도에 대한 생각 나누기 → 본문의 내용과 연결 짓기 2) 교사가 제시한 일화(이야기)를 읽고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나눔과 겸손 주제 찾기) 찾아 생각 나누기 → 본문의 내용과 연결 짓기 3) 모둠 단위로 자신의 경험 나누기: 자신이 나눔/겸손을 실천했던 경험 중 보람을 느꼈을 때와 오히려 실망하거나 후회하게 되었던 경험을 나누고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기 → 본문의 내용과 연결 짓기
오답으로 처리되는 답안 인정 답안으로 보기에선 좀 그렇지만 오답이라고 단정하기도 좀 그런, 다소 애매한 답. 가령 배점이 2,1,0점이면 1점을 주겠지만, 배점이 2,0점이면 0점을 주게 되는 답안	- 수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업 방법과 내용이 모두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안 중에는 내용과 방법이 함께 제시되지 못한 채 내용만 열거한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방법 영역에 대한 감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상기한 답은 모범 답안이 아닐 것이다. 총 5점 문항이니 학습목표 2의 본문 적용 구현이 상기처럼 서술될 것을 가정할 수 없다. 학교 현장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한문과 교과교육학 문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데, 학계의 연구 상황과 대학의 수업 모두 현장의 변화와는 괴리가 심한 듯하다.

6. 여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임용시험을 출제한 출제위원들의 고생과 노력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분들의 노력이 있기에 ‘한문에 대한 변치 않는 애정을 갖고 성실히 준비하는 실력 있는 수험생’이 합격하는 한문임용시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한문교사들이 현장에서 한문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본

발표의 목적은 앞으로 한문임용시험을 출제할 분들이 학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임을 재삼 강조한다.

참고문헌

- 김여주(2007), 「임용고사 출제 범위에 대한 개선안」, 『한문교육연구』 제29호.
- 김왕규(2004), 「한자 字訓 이해와 한자어 의미 이해의 상관도」, 『청람어문교육』30.
- 김윤조(2008), 「현행 임용고사의 경향과 중등학교 현장 교육과의 연관성-중등학교 한문과 교과서의 문제를 생 각하며」, 『한문교육연구』 제30호.
- 송영일(2002), 「한문과 임용고사 문제의 문항타당도 분석」, 『한자한문교육』 제9집.
- 신용호·한연석·김석제(2002), 「한문과 교사 임용고사문제 분석」, 『한문교육연구』 제19호.
- 이희목(2002), 「한문과 중등 임용고사의 현황과 과제」, 『한문교육연구』 제18호.
- 졸고(2017), 「표준화된 대학한문교육입문 교재 편찬의 방향과 구성에 대한 제언」, 『한문교육연구』 제48호.

<토론문>

「한문 임용시험의 실태 분석과 비판적 고찰」의 토론문

양원석(고려대)

<별지 참조>

名詞와 代名詞의 특수한 쓰임 一見

송병렬(영남대)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명사와 대명사의 경계
3. 결론-명사와 대명사의 개념에 대한 제언-

1. 문제의 제기

처음에 제출한 발표 제목은 ‘학교 한문 교육을 위한 한문 문법의 새로운 접근’ 이라고 했지만, 이는 지난번에 본 학회가 학술진흥재단에 학술대회개최 지원을 위한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한문 문법’을 가지고 새롭게 접근할 만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 연구자의 능력이 특출한 것도 아니어서 제목을 본 원고에 맞게 수정하였다. 이에 큰 양해를 부탁하는 바이다.

한문의 문법은 확정, 고정시키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은 한문 문법을 확정, 고정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한문 문법은 확정, 고정시킬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기도 하며, 연구자들 사이에 견해 차이로 합의를 도출하기도 어렵다는 뜻이다. 그 외에도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한문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한문 문법이 있다면, 바로 거기까지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계속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문 문법에서는 여러 논쟁이 있었다. 그 중에서 ‘명사, 대명사’는 크게 문제된 적이 없다. 명사와 대명사는 각기 그 ‘개념’과 ‘실제’가 큰 차이가 없다. 명사와 대명사에 대한 ‘학교 교육과정의’ 정의와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명사는 사물이나 개념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²⁴⁾

(나) 명사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이름지어 나타내는 품사를 말한다.²⁵⁾

(다)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및 상태나 동작 등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다.²⁶⁾

24) 장호성 외(2008), 182면.; 송인발 외(2008), 47면.; 교육과학기술부(2011), 14면.

25) 김윤세(1981), 60면.

26) 장호성 외(2008), 183면, 「2007개정 중학교 ‘한문’ 해설」,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및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V』, 교육과학기술부, 151~226면.; 송인발 외(2008), 48면,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2007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3-한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2011), 14면, 「공통 교육과정-중학교 한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17]』에 따른 ‘2009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3~18,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제공 <http://ncic.go.kr/mobile.dwn.ogf.inventoryList.do> 2019.06.25. 검색.; 교육부(2015), 27면, 「공통 교육

(라) 대명사는 크게 사람대명사와 가리킴대명사로 나눈다. 사람대명사란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말한다. 가리킴대명사는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²⁷⁾

(마) 대명사라는 것은 사물의 이름 대신에 쓰이는 말인데 그 효용은 문장, 어구의 반복에 따라서 생기는 번잡을 생략하는 데 있다.

(바) 대사는 명사·동사·형용사·수사를 대체한다.²⁸⁾

(가)와 (나)는 명사에 대한 개념 정의이다. (다)~(마)는 대명사에 대한 개념 정의이다. (바)는 내용상 대명사와 크게 차이가 없으나, ‘대명사’의 명칭이 명사만을 대신하는 뜻을 나타내므로, 대사로 호칭하며 ‘동사, 형용사, 수사’ 등을 대신한다고 정의했다. 약간의 표현이나 명칭에서 차이가 있을 뿐, 대체로 명사와 대명사의 기능이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명사와 대명사’ 교수-학습에 있어서는 현행 교육과정과 각종 한문 문법서 사이에는 큰 모순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실제 한문 문법의 운용을 잘 살펴보면, 일부 모순적인 상황이 나타난다. 명사로 호칭할 것인지, 대명사로 호칭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법적 분류를 해야 할지의 경우가 존재한다. 일부는 특수한 경우로 다루고 있지만,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그 개념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발표자는 명사와 대명사의 개념이 모호하게 쓰인 경우의 사례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분류하고 분석하여 현행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법의 일부 개념 정의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하고자 한다. 앞으로 한문과 교육과정의 개편이 곧 시작될 것이다. 한문 문법의 경우, 한문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또는 내용에서 정의되는 것이 학교 문법으로 정의될 것이다. 이에 보완이 2007년 이후 ‘한문 문법’은 문장성분에 있어서 ‘보어와 목적어’의 일부 개념만 정리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번에 명사, 대명사의 연구를 통해서 현재 성취기준으로 쓰이고 있는 한문 문법의 문제점을 밝혀서 보완하고자 하는 바이다.

2. 명사와 대명사의 경계

명사 가운데 일부는 특수하게 만들어져서 명사로 쓰인 것인지, 대명사로 쓰인 것인지 분명하게 품사를 나누기가 어려울 정도로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 있다.

다음 문장은 『진취속편』에 나오는 ‘남추’라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이다.

南趯①谷城人 號①西溪 ①中宗朝人 少而好學 不習而能文 勸讀則曰 ②兒未嘗不讀耳 一日雲霧閉塞 失其所在 家人尋之 見趯與長者數輩 坐巖石上講論 人皆異之 及登第 名譽藉甚 南袞欲引用 聞②君文章 願見之 指盆松 使賦之 趯應聲曰 一朵盆莖弱 千秋雪態豪 誰能伸此曲 直拂暮雲高 袞大怒絕之 … 이하 생략 …²⁹⁾

남추라는 인물을 소개한 것이다. 남추³⁰⁾라는 인물을 설명하거나 가리키는 것은 ‘谷城人, 西

과정-중학교 선택과목 -한문 I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17]에 따른 ‘2015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부, 23~41,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제공 <http://ncic.go.kr/mobile.dwn.ogf.inventoryList.do> 2019.06.25. 검색.

27) 김운세(1981), 73~75면, 『한문문법』, 한국문화사 영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발행.

28) 심경호(2007), 82면, 『한학입문』, 황소자리.

29) 『진취속편』 권3. 이런 류의 인물전을

30) 남추南趯(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고성(固城). 자는 계응(季應), 호는 서계(西溪)·선은(仙隱).

溪, 中宗朝人, 兒, 君’ 등이다. ‘南越①谷城人 號②西溪 ③中宗朝人 少而好學 不習而能文 (어려서 배우기를 좋아했으며, 익히지 않고도 글을 잘 지었다.)’ 은 글의 서두이다. ①谷城人 은 곡성의 다수 인물 중의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다. ‘남추’가 곡성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②西溪는 같은 호를 가진 사람이 여럿일 수 있으나³¹⁾, 여기서는 남추의 호로 남추를 대신할 수 있는 말이다. ③中宗朝人은 중종이 다스리던 시대에 벼슬했던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역시 다수 인물 중의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기는 하나, 남추가 그 때 사람이라는 뜻으로 남추를 가리킨다.

兒는 ‘어린아이’라는 뜻의 명사이다. 그러나, ‘勸讀則曰 ④兒未嘗不讀耳(다른 사람이 그에게 책읽기를 권하면 곧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아직 읽지 않은 책이 없습니다.’고 했다.)’의 문장에서 ④ ‘兒’는 南越 자신이 책읽기를 권했던 어른들에게 대답할 때의 말로, 남추 자신을 겸손하게 가리키는 말로 ‘兒(어린아이)’라고 한 것이다. 대명사로 쓰인 것이다.

君은 ‘임금’이라는 뜻의 명사이다. 그러나, ‘南袞欲引用 聞⑤君文章 願見之 指盆松 使賦之(남곤이 그를 데려다 쓰고 싶어했다. “그대가 문장 실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대를 만나 보고 싶었다.” 화분의 소나무를 가리키며 남추에게 시를 읊어 보라 하였다.)’의 문장에서 남곤은 ‘남추’를 가리켜 ⑤ ‘君(그대)’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君’은 남추를 가리킨 말이다. 남추를 가리키는 말로, 2인칭 대명사로 쓰였다.

앞의 ①谷城人, ②西溪, ③中宗朝人 등은 주어를 설명하는 말로 품사는 명사이다. 그러나 뒤의 ④兒와 ⑤君은 명사이기는 하나, 여기서는 ‘어린 아이’ 또는 ‘임금’이란 명사의 뜻이 아닌 인물인 남추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면 이들은 ‘남추’를 대신하는 말이므로 대명사 기능을 한 것이다.

그리고 보니 ①, ②, ③과 같은 경우도 사용 범주에 따라서는 대명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특히 ②의 경우가 흔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서계에 관한 말에 대해서 앞서의 편지에 말씀드린 것은³²⁾

이글은 농암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이 자신의 작자의 둘째 외삼촌인 나양좌(羅良佐)에게 보낸 글에서 ‘박세당’을 가리켜 서계라고 칭한 것이다. ‘서계’는 박세당의 호로서 박세당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명사는 아니지만, 박세당을 가리킨 것이 분명하다. 서계는 박세당을 가리키는 이칭별호이다. 앞서 남추도 서계라는 이칭 별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를 대신하는 호칭으로 쓰일 수 있다.

호나 자와 같은 이칭별호의 경우는 대명사로 취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칭별호는 한문학 문장가나 시인들의 애호이고 문화적 취향이며, 일종의 구별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칭별호는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³³⁾의 범주이기도 하고, 전문적인 지식의 범주이기도 하다. 그런데 수많은 이칭별호는 명사이지만 특수하게 쓰여, 마치 대명사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이다.

아버지는 남계신(南繼身)이다.

31) 西溪라는 호를 가진 사람은 윗글의 남추를 비롯하여, 鄭世虎(1486~1563), 梁弘澍(1550~1610), 金聘壽(1535~1603), 李得胤(1553년~1630), 鄭彦宏(1569~1640), 柳軾(미상), 朴世堂(1629~1703), 朴泰茂(1677~1756), 宋東胤(1729~1799) 등 다수가 있다.

32) 『농암집』 권 11 書, 「上仲舅」乙酉 “至於西溪之說 前書所云”

33) 교육부(2015), 3면, 4면, 23면.

다음 한시를 보자.

규장의 자태 지닌 우리 청음 학사 / (가)清陰學士珪璋姿
 명당 청묘가 그야말로 어울리네 / 明堂清廟乃其宜
 ... 중략 ...
 강희의 화풀이로 땅 기둥 무너지고 / (나)康回憑怒圯坤維
 넘실대는 큰 물결 하늘까지 잇닿을 듯 / 鴻流蕩潏漫赫曦
 힘도 없이 외로운 몸 어떻게 해볼거나 / 隻手緜力欲何爲
 ... 중략 ...
 가장사(賈長沙)도 굴원(屈原)의 억울한 죽음 슬퍼했고 / (다)長沙才子吊(라)湘纍
 한소이두 모두들 혈뜰음 면치 못해 / (마)韓蘇李杜足豐髻
 산으로 바다로 쫓겨나 죽을 고비 넘기면서 / 嶺海萬死命如絲
 굶주리고 추운 생활 감내했다오 / 往往不免寒且飢
 공이 비록 불우해도 그들에 비한다면 / (바)公雖不遇比於伊
 무슨 원망 하리요 조금 위안이 되리이다 / 差可自適那怨咨
 만사는 운명인걸 다시 또 무얼 의심하랴 / 萬事有命更何疑³⁴⁾

(가)청음학사는 김상헌을 가리킨다. (나)강희는 중국 고대 신화적인 인물 共工의 별칭으로 공공을 가리킨다. (다)장사재자는 한(漢) 나라 때 장사왕(長沙王)의 태부(太傅)였던 가의(賈誼)이다. (라)상루는 원나라 때 장명선(張鳴善)이 지은 「脫布衫過小梁州」曲에서 “후배가 선배를 애도하여 오월오일에 초혼가를 불러 굴원을 애도하네.(悼後世追前輩, 對五月五日, 歌楚些弔湘纍)”에서 유래한 것으로 굴원을 가리킨다. (마)한소이두는 ‘韓愈와 蘇軾과 李白과 杜甫’를 가리킨다. (바)공은 청음공에서 ‘公’만을 취한 것으로 김상헌을 가리킨다.

(가)~(바) 모두 인물의 본명이 아닌 별칭 또는 별칭을 축약한 말로 특수한 명사들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호칭은 고대 한문 문화의 ‘관계’에 따라 지어진 칭호에서 유래하거나 典故 등에서 유래한 것들이다. 이름조차도 전고가 되어 이칭별호처럼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이칭별호를 오해해서 간혹 번역의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雲崗李公 諱康季 字樂寅 以諸葛武侯六出祈山之忠義 竟成文(ㄱ)文山死於燕獄之名節 揆以時宜 其於春秋之懼亂賊 孟子之膺戎狄 尤有功焉 其宗人培仁 爲之作輓 其輓曰 ... 省略 ... 尊攘二字春秋大 閑放斯言(ㄴ)子輿雄 夷狄運降禽獸際 公之一死卓爲功

운강 이공의 이름은 계강이고 자는 樂寅이니 제갈무후의 여섯 번 祈山에 나아간 충의로 마침내 문천상의 燕獄에서 죽은 명예로 절의를 이루었고, 때는 춘추 시대의 난적을 두려워 하여 맹자의 오랑캐 응징함을 범하는데 더욱 공이 있었다. 종인인 배인이가 위하여 만사를 지었습니다. 그 만사에 말합니다. ... 생략 ... 尊攘이란 두 글자 春秋의 大義이고, 한가로이 편이 말씀 아들도 씩씩하게 실었네요. 오랑캐 짐승같이 운수가 나리는 때에 공의 한 죽음 공이 되어 높습니다.³⁵⁾

34) 『谿谷集』 권26 七言古詩, 「贈清陰公」.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2019.06.30. 검색. 번역 이상현(1996) 참조.

35) 성백효(2003. 12), 5~6면, 「출전을 모르는 창작 번역」, 『민족문화추진회보』 제72호(2003년 겨울호), 민족문

위의 밑줄친 오역 부분을 성백효 교수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위의 오역을 수정하면 ‘문천상이 연경의 옥에서 죽은 명예와 절개를 이루시니, 시의로 헤아려 보건데 『춘추』가 난신적자를 두렵게 한 것과 맹자가 오랑캐를 응징한 것에 비하여 더욱 공이 있었네. ... 閑放의 이 말씀, 子興의 웅변이네. 운수가 쇠하여 이적에서 금수로 내려오는데 공의 한 번 죽음 드높은 공이 되었네.’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閑放과 子興가 문제가 되었는데, 閑放은 閑先聖之道 放淫辭의 줄임말이다. 그리고 子興는 맹자의 자이다. 閑放斯言은 『孟子』 「滕文公」下의 ‘世道衰微 邪說暴行有作 臣弑其君者有之 子弑其父者有之 孔子懼 作春秋 … 吾爲此懼 閑先聖之道 距楊墨 放淫辭 邪說者不得作 … 孔子成春秋而亂臣賊子懼 詩云 戎狄是膺’에 인용한 것이다. 위의 오역은 孟子的 자를 모르고, 맹자의 이 내용을 알지 못해서 오역한 것이다.³⁶⁾

성백효 교수는 위 비문의 역자가 文山은 文天祥의 호인 것을 알면서, 『맹자』에서 나온 典故 閑放과 맹자의 字 子興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閑放斯言子興雄’의 구절을 오역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ㄱ) ‘文山’ 과 (ㄴ) ‘子興’ 이다. 문산과 자여 둘 다 字로 하나는 문천상을 가리키는 별칭으로, 다른 하나는 맹자를 가리키는 별칭으로 쓴 것이다. 따라서 별칭은 본디 고유명사를 대신하는 기능을 하면서도 대명사는 아닌 그런 특수한 성격의 이칭별호인 것이다.

秦之虐也 塗炭日甚 民見起兵而圖秦者 響應而雲合 惟恐拯之不亟也 顧將望拯之民 戕賊於百戰之場 (a)劉氏之爲 爲爲民乎 及其(b)羽欲烹(c)太公 則曰 幸分我一杯羹 所爲爭之者民也 今乃戕之 所以爲人者親也 今乃置之虎口 略無顧慮 惟以勝負爲計 設若(d)項伯膠口 而羽憤不勝 則安知俎上之肉 爲杯中之羹乎 縱不能竊負而逃 杯羹之言 不可出諸人子之口 劉氏猶假禮義 以羽殺(e)義帝爲賊 縞素而請諸侯 其視羹父 不有間邪 故曰 劉氏 非寬仁者也 或曰 (f)漢高 奮一布 提尺劍 五載而得天下 賢孰過焉 若爲親屈己 一失機會 其能化家 爲國乎 抑以高祖之大度 必料其不能害父也³⁷⁾

위의 글은 이곡의 「杯羹說」이다. (a)는 한고조 劉邦을, (b)는 項籍을, (c)는 유방의 부친(太公은 존칭대명사)을, (d)는 항우의 숙부인 項纒을, (e)는 진나라 말기 초왕 熊心을, (f)는 한고조의 줄임말로 유방을 각각 가리킨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두 본명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존칭대명사와 이칭별호인 字나 시호를 썼다. 게다가 (a)와 (e)는 동일한 한 인물을 다르게 부른 것이다.

(a)유씨라고 부른 것은 이곡이다. 그는 漢高祖 劉邦을 일개 凡夫처럼 취급해서 부르는 호칭이다. 그 이유는 子息된 자가 아버지를 구출할 생각은 안하고, 승리에 집착하여 孝를 어기고 막말인 ‘국한그릇’을 달라했으니, 인의를 실천하는 왕이 아니라, 일개 범부라는 뜻에

화추진회. 재인용.

36) 성백효(2003. 12), 5~6면 참조.

37) 李穀, 「杯羹說」, 『稼亭集』 권7.

서 ‘유씨’라고 부른 것이다. (e)漢高라고 시호를 칭한 것은 효자이다. 그는 유방을 위대한 군주로 여기고 부르는 호칭이다. 그 이유는 유방이 배 한 조각의 밭밭과 한 자 쯤 되는 칼로 5년 만에 천하를 차지하였으며, 아버지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를 굶히지 않고도 기회를 잡은 뛰어난 예지력이 있는 군주답다는 뜻에서 ‘漢高’라고 부른 것이다. ‘유씨’와 ‘한고’는 이름이 아니면서도 유방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 것이다.

이칭에 관한 것은 지명에서도 특히 많이 있다. 읍지, 지리지 등에 보면 北關, 東北面, 內浦, 嶠南, 上四道, 湖西 등이 그것이다.(매우 많지만, 지면상 생략한다. 권상로, 『韓國地名沿革考』참고) 北關은 함경도를 가리키는 말로, 철령관 이북을 지칭한다. 東北面은 東面·東路·東北路·東北界라고도 하며, 대체로 함경도 이남으로부터 강원도 삼척 이북의 지역이 해당한다. 內浦는 여러 지역이 있으나, 충청도 중 가야산 둘레의 11개읍이 이에 해당한다. 嶠南은 조령(鳥嶺) 남쪽의 경상도를 의미하는데, 즉 영남(嶺南)의 별칭이다. 上四道는 경기 이북의 강원도,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를 아우르는 말이다. 湖西는 충청도로 제천 의림지 이서를 가리킨다. 이러한 것들은 지명과 지명별칭이 섞여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칭별호와 지명별칭 등 존칭어, 겸칭 등은 대명사적인 쓰임이나 활요의 기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존칭과 겸칭 등의 어휘는 대명사로서 분명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이칭별호나 지명별칭 등 전고에서 유래한 별칭 등은 대명사로 취급하기에는 그 명사적 특징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들은 명사의 특수한 활용의 측면이 있다.

3. 결론-명사와 대명사의 개념에 대한 제언-

이상의 논의로 보아 한문과 교육과정에 정의된 명사와 대명사의 개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2015 한문과 교육과정의 명사와 대명사에 대한 개념은 각기 다음과 같다.

명사는 사물이나 개념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³⁸⁾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및 상태나 동작 등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다.³⁹⁾

앞서의 분석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 개념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사는 사물이나 개념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그리고 명사의 활용이 있다. 명사의 활용은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 사물 등의 이칭별호, 별칭으로 활용되어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 등을 대신해서 사용되는 특징이 있는 것이 있다. 예) 字, 號, 諡號, 別稱, 別稱地名 등이 그것이다.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및 상태나 동작 등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그리고 일부의 명사가 자신 또는 상대 또는 삼자에 대해 겸칭이나 존칭을 뜻을 나타낼 때에는 대명사로 활용되는 것이 있다. 예) 公, 兒, 小人, 上, 閣下, 陛下 등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지금의 교육과정에 ‘명사와 대명사’의 개념 정의에 부족함을 느껴 보완을 시도해 보았다.

38) 장호성 외(2008), 182면.; 송인발 외(2008), 47면.; 교육과학기술부(2011), 14면.

39) 장호성 외(2008), 183면.; 송인발 외(2008), 48면.; 교육과학기술부(2011), 14면.; 교육부(2015), 27면.

회원들의 논의를 기대한다.

앞서 글을 시작할 때에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계속 수정·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다. 이는 논의의 개방을 위해서 필요하며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한문 문법 문제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토론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참고 문헌>

金昌協, 『農巖集』 권11.

李穀, 『稼亭集』 권7.

張維, 『谿谷集』 권26.

『震集續編』 권3.

교육과학기술부(2011), 「공통 교육과정-중학교 한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 17]에 따른 ‘2009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3~18,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제공 <http://ncic.go.kr/mobile.dwn.ogf.inventoryList.do> 2019.06.25. 검색.

교육부(2015), 「공통 교육과정-중학교 선택과목 -한문 I-」,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17]에 따른 ‘2015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부, 23~41,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제공 <http://ncic.go.kr/mobile.dwn.ogf.inventoryList.do> 2019.06.25. 검색.

김윤세(1981), 『한문문법』, 한국문화사 영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발행.

성백효(2003. 12), 「출전을 모르는 창작 번역」, 『민족문화추진회보』 제72호(2003년 겨울호), 민족문화추진회. 재인용.

송인발 외(2008),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2007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3-한문-』, 교육과학기술부.

심경호(2007), 『한학입문』, 황소자리.

장호성 외(2008), 「2007개정 중학교 ‘한문’ 해설」,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및 제 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V』, 교육과학기술부, 151~22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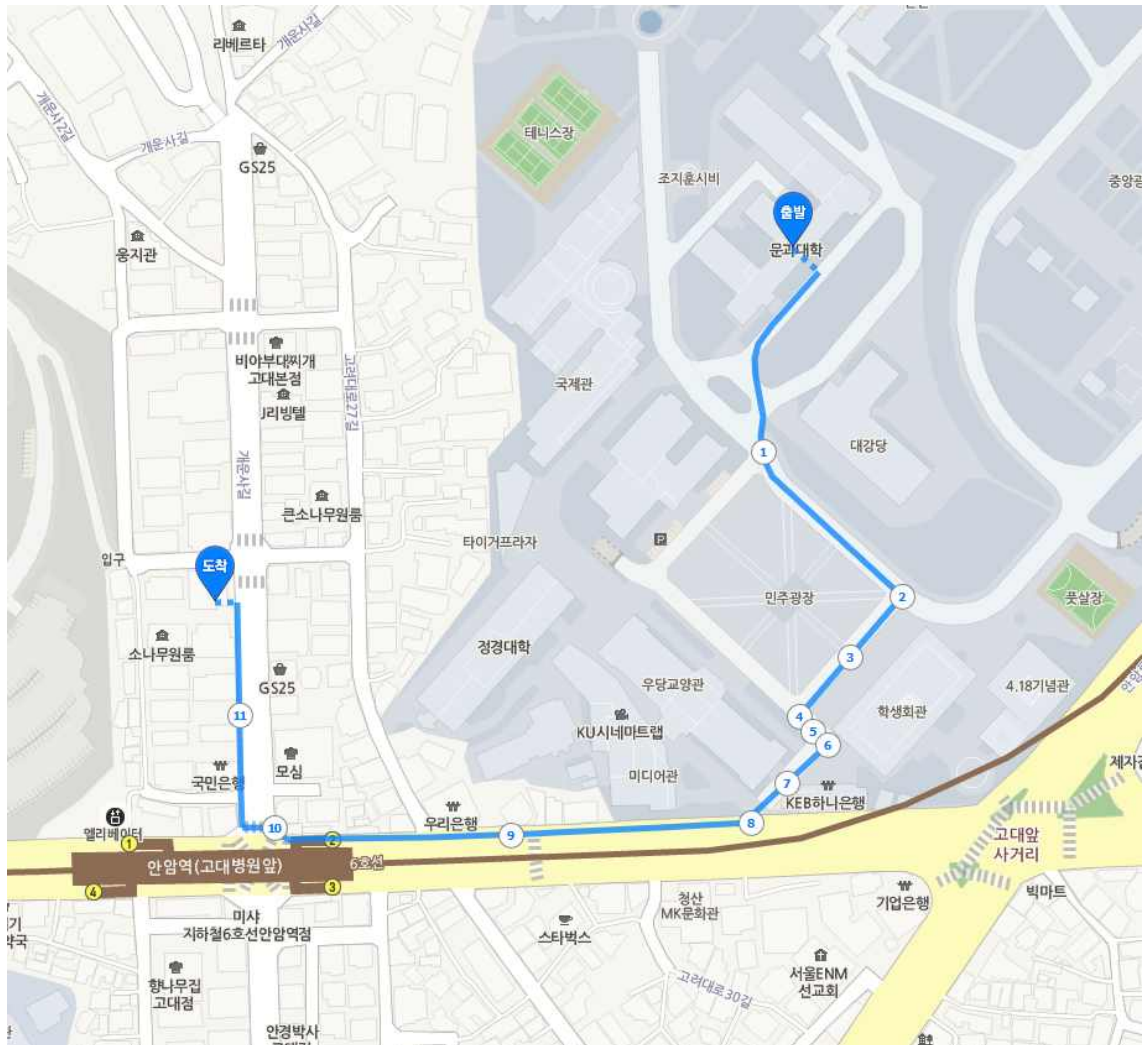
<토론문>

「名詞와 代名詞의 특수한 쓰임 一見」에 대한 토론문

윤재민(고려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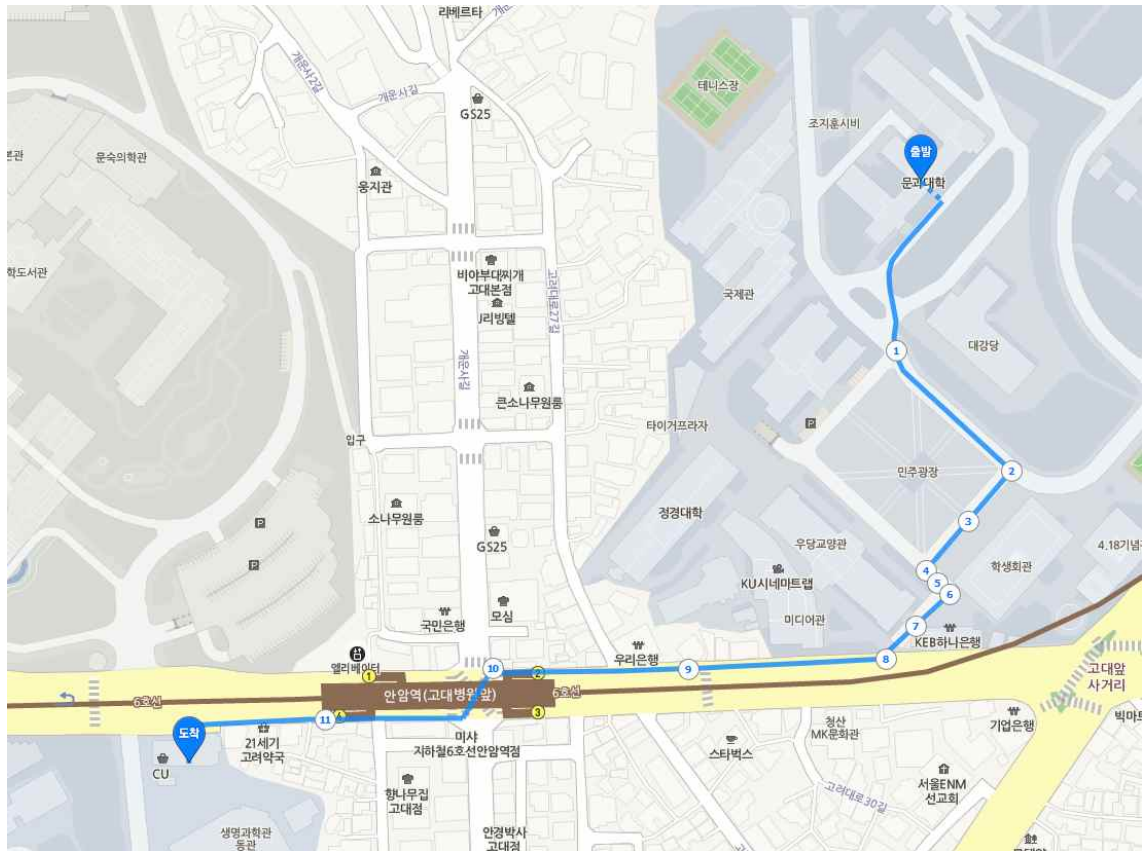
1. 이 논문은 “명사와 대명사의 개념이 모호하게 쓰인 경우의 사례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분류하고 분석하여 현행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법의 일부 개념 정의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하고자 한” 것인바, 所謂 “그 어려운 문법 연구”에 대한 과감한 시도에 敬意를 표한다.
2. 결론적으로, 발표자는 장호성 외(2008), 「2007개정 중학교 ‘한문’ 해설」 이래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명사는 사물이나 개념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라는 개념 규정을 보완하여, “명사는 사물이나 개념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그리고 명사의 활용이 있다. 명사의 활용은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 사물 등의 이칭별호, 별칭으로 활용되어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 등을 대신해서 사용되는 특징이 있는 것이 있다. 예) 字, 號, 諡號, 別稱, 別稱地名 등이 그것이다.”와 같이, 또한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및 상태나 동작 등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다.”라는 개념 규정을 보완하여,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및 상태나 동작 등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뜻을 나타낸다. 그리고 일부의 명사가 자신 또는 상대 또는 삼자에 대해 겸칭이나 존칭을 뜻을 나타낼 때에는 대명사로 활용되는 것이 있다. 예) 公, 兒, 小人, 上, 閣下, 陛下 등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3. 위의 수정 보완 내용은 ‘추가한 부분’만을 제외하고 보면, 기본적으로 명사나 대명사의 기본 개념을 수정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추가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한문과에서 (특히 교과서에서) 어떻게 교육되어 왔는가? 교육되어 왔다면, 그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본 발표가 새롭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교육되어 오지 않았다면, 이 ‘추가한 부분’을 교육과정에 새롭게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필연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위의 수정 보완 내용 중 ‘추가한 부분’은 ‘품사의 활용’으로 설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데, 이를 ‘개념 정의’의 수정 보완이라고 해도 좋을 것인가?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장소 안내>



- 상호명(전화번호) : 어부삼대(02-929-5522)
- 주소 : 서울 성북구 개운사길 19
- 문과대학에서 도보로 10분

<저녁 식사 장소 안내>



- 상호명(전화번호) : 한사우순두부(02-928-2866)
- 주소 : 서울 성북구 인촌로 76
- 문과대학에서 도보로 10분

한국한문교육학회

2019년 하계학술대회

미래 교육과정과 한문교육의 지향

발행일: 2019년 07월 6일

발행처: 한국한문교육학회

<http://www.hanmunedu.or.kr>
